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1
2. 창조	8
3. 타락	15
4. 노아	21
5. 아브라함	27
6. 족장 I	33
7. 족장 II	39
8. 출애굽	45
9. 시내산	51
10. 성막	59
11. 희생제물	66
12. 제사장	72
13. 유업	78
14. 다윗	84
15. 시편	89
16. 솔로몬	95
17. 성전	100
18. 왕국	105
19. 예언자	111
20. 포로기	117
21. 회복	122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128
23. 속죄	134
24. 부활	140
25. 오순절	145
26. 교회	150
27. 연합	156
28. 삶의 적용	161
29. 사명	167
30. 영광	172

강의 1

소개

강의 주제:

성경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전서에서 발견되는 구속의 역사의 단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을 밝혀냅니다.

본문: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27, 44).

강의 스크립트 1

우리는 구약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구약성경은 신약성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묻자면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구약성경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주제들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바라고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업은 포괄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론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초를 마련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매일매일 물고기를 줄 수도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도구와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에 있는 신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물의 벽돌을 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과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게 될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과 병행하는 본문인 역대하 9장에 보면 위대한 왕조였던 시바의 여왕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포함시켜 놓으셨을까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수업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0장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강의의 말미에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신학에 대한 이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사용할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 수업이 다루고자 하는 정확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학”이라는 용어부터 생각해 봅시다. 신학의 의미가 무엇이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적”이라는 용어의 중요성을 보고 이번 과정 전체를 배경으로 볼 때 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신학”이라는 용어의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신학이 필수적인가? 이런 지식이 정말로 필요한가?”라고 궁금해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그것이 당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광을 인류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의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창세기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장들에 나타난 우주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19:1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21:23에 나오는 역사의 정점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23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류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제1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소요리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9:23, 24)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가장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 33:13) 뒤에 나오는 다윗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한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시 27:4)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3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빌 3:10)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충만하고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존재의 형상이시라”(히 1:3)고 표현합니다. 그러므

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고 말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곧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더 논의할 것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실천적인 결과도 포함된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순수하게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천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히트 (Petrus van Mastricht)가 말했듯이 “신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2, 3도 이와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학,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입니다. 신학은 모든 신자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 곧 복음적인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면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신학”이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사실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둘째로 “성경적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수업의 명칭은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으며 특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책으로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 주셔야 인간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어떤 것을 가렸던 것을 치우고 어떤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인류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리고 있던 것을 치우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복음 곧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업은 성경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16에서 보듯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 성령이시므로 성경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66권의 모든 글자가 하나님께 의해서 온전히 영감되었으며 성경 어디에도 오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완전히 신뢰할 만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펼쳐진 구속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으로서 오류가 없고 실수도 없는 계시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전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한권의 분리할 수 없는 책으로서 일관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 안에 한 분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방법과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성경(Bible)이야말로 기독교의 성경(Scripture)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으로 시작합니다. 요즘도 신약성경 안에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구약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충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마 모를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전체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을 가장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시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시편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은 전체 성경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공하시는 내용의 4분의 3이 없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구약성경이 필수적인 또 다른 이유는 신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이미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며 반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신약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구약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가해 주신 신약성경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암기하고 연구했던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고 말할 때 디모데가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구약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은 신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전제로 기록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발견하는 역사적인 사건들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주제와 언어와 교리와 원리는 구약성경의 기초 위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을 읽을 때 자주 구약성경을 상기하게 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 구약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은 읽을 때 반드시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진 성취의 빛 아래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부를 하는 동안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전체 성경이 필요하고 전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신구약성경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입니다. 물론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 분이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째 주일 두번째 질문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신이 이 평안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사실들은 몇가지입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변은 “세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이고 둘째는 내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이며 셋째는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할 것인가입니다” 복음은 신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함께 설교했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 15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것들을 취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열심을 다하여 신약성경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약성경도 구약성경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29) 이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시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요 5:46, 47)라고 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으셨고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읽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같은 장(눅24장)에서 조금 후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44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약성경도 역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구약성경은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의 목록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성경의 장엄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그 분이 제공하시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적실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떻게 구약성경과 그리스도와 신약성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키는지 한 번 보세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29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

고하나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벧전 1:10-12)

잠시만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구약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자신들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면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얼마나 더 살피고 연구해야 할까요? 특히 지금 우리는 구약의 내용들이 온전히 성취된 신약성경의 빛 아래서 구약을 읽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위대한 개신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올바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고 유익하게 읽는 사람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으로 그는 반드시 영생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결과 그 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며 은혜와 의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연구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은 나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성경적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루는 이 주제에 속한 중요한 요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는 이 수업의 범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성경적인 구속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역사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속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 단순히 하나의 큰 행위로 다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 혹은 우리가 구원역사로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역사적인 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약성경의 설명이 총만히 주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듯 하나님은 또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작정하시고 진행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역사(History)는 그 분의(His) 이야기(story)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던 실제적이고 참된 사건들에 대한 영감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계시는 시간 속에서 점점 분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성경전체에 걸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훨씬 더 총만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성경본문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전체의 메시지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인들과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업은 구속에 대한 성경역사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전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활짝 펼쳐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하여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통해서 신학과 성경과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성경에 포함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적용할 때 다른 성경을 활용하면 이를 밝히고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예시는 이 과정이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0장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시바의 여왕은 아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습니다. 여왕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집과 그가 먹는 음식과 솔로몬의 모든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온 축복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0장에 나온 여왕의 반응에 주목하세요. 5절 마지막을 보시면 “크게 감동되어(no more spiri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감동되어(spirit)”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허파에서 나오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왕기상 10:5에서 언

급하고 있는 것은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본 모든 것들 들은 모든 것들은 그녀의 호흡을 가져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여왕의 말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왕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에서 그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이야기는 동떨어진 채 고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이라는 더 넓은 배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몇개의 점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다윗의 자손이 그의 왕좌에 영원토록 앉을 것이라는 약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이 주어진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런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신약성경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계22:16)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그리스도)에게 주시리니”(눅 1:32) 나중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행 2:29, 30)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신약성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여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왕위를 잇는 후계자였지만 그는 다윗의 더욱 위대한 아들이 오실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은 다른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될 분으로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강의 왕의 나라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평화의 시기보다 더 뛰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72편과 비교해 보세요. 이 시편의 제목은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10절과 15절에 시바의 여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이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이며 다가올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에 나온 말로 나타내면 이 왕국은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8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17, 19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단한 표현을 한 번 읽어 보세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약성경에도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시바의 여왕을 의미하는)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12:42)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속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제 남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성경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열왕기상 10장으로 돌아갑시다. 열왕기상 10장으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0장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 사역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실체의 빛 아래서 그 본문을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분 안에는 솔로몬을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지혜를 듣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보고 알기 위해서 멀리서부터라도 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도착해서 이 왕을 보고 이 구세주를 볼 때 우리들은 그 때 시바의 여왕과 더불어 말하기를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그분(그리스도)은 나의 모든 기대보다 더 뛰어나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이 왕의 하인이라는 사실은 모든 직업 중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지위이며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좌에 안치시고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열왕기상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

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분의 구속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그 분의 왕국과 자기 백성에게 넘치는 축복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압니까? 그러니 이 내용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도 정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강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이 과정이 제공하는 유익을 설명하기 위한 한가지 예시입니다. 남은 모든 강의에서 우리는 구속사를 관통하는 가운데 성경의 신학을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몇 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다가올 역사의 절정에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강의 2

창조

강의 주제:

창조의 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의 기초를 마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본문: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스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1:16-17).

강의 스크립트 2

여러분이 건물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튼튼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건물이 크면 클수록 기초는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성경의 첫부분은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남은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처음 몇장에 있는 신학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처음 몇 장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나오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은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첫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창세기의 신학은 나머지 성경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엮어져 있습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텐데 구속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궁극적인 종착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창세기 1:1을 펴시면 성경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번째 강의에서 보았듯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책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지 하나님이 오랜 시간동안 존재했고 미래에도 무한히 존재하실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실제로 시간 밖에 존재하시며 공간 밖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했고, 하나님의 본체의 삼위께서는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비로소 사랑하는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은 영원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삼위일체의 위격들 사이에서 영원히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조의 사역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사역을 작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소요리문답 제 7문항이 여기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뜻의 계획을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배웁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 분은 만물을 작정하십니다. 이 외에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께 다른 예를 더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0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배웁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봅니다. 창조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 말은 결국 삼위일체는 근본적인 교리이며, 실천적인 결과를 동반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보다 더 실천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 삼위일체께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부께 기도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자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삼위일체 교리는 신약성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리가 창세기의 첫부분을 포함해서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신약성경에서 이에 대한 보다 충만하고 분명한 계시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6에 사용되는 대명사들을 보는 것은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복수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대명사는 창세기 1장의 첫 세 절 말씀에서도 이미 나타납니다. 1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2절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3절에 보면 성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물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옳은 일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신약성경은 이 창세기 1장의 처음 몇구절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빛을 던져 줍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구절들이 창세기1:1과 얼마나 유사한지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창세기의 처음 몇구절 안에 위치시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주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펼치시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명령하심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막 4:39)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창조자 곧 바람과 파도를 명령만으로 존재하게 하신 창조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이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하여 확증합니다. 그에게서 창조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1:16,17). 이 본문은 대부분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그

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이전에 존재하셨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그 분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분, 곧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그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훗날 성육신을 통하여 직접 들어오실 그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강의 마지막에 보게 되겠지만, 이 성육신은 이 세상을 구속하고 또 처음 시작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곧 그 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계시하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남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속에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창세기1장은 역사, 곧 성경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남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그 분의 말씀과 행동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편 33:6,9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그리스도의 창조사역에 대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질 곧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조와 더불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장기계획에 따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셨고, 들의 백합화와 꽃들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다른 것들도 만드셨습니다. 그 분은 창세로부터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는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그것들이 들에 옷을 입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피조된 세계 속에서 이 특정한 것들에 대한 교훈을 그때에야 발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셨고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것들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일반적인 6일 동안 만드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104편에서 이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6일동안 창조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이라는 말은 저녁과 아침으로 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제한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날”은 넷째날에도 사용되었는데 태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날”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 단어는 순서를 의미하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첫째, 둘째, 셋째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날입니다.

복수로 표현된 “날들” 곧 창조의 날들도 구약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문자적인 의미의 여러 날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는 출애굽기20:11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있는데 사람이 일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날들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견해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첫번째 요점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계시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을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을 계시하셨을까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화룡점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모든 인간들은 본질적인 것들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26절)라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1:26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므로,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혹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 중 한가지 이유는 죄가 들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결국 타락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만약 창세기9:6을 보시면 주님께서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3:9을 펼치시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인데, 다른 어떤 이유보다 이것이 하나님과 닮은 것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11:7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로서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형상은 영적인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잃어버렸으나 회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3장 에베소서4장, 로마서8장 등에서 이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의와 거룩은 상실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후의 강의를 통해서 더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육체와 영혼입니다. 영혼은 때로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2:7) 이것은 성경의 남은 다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위해 쌓아 나가는 또 하나의 벽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락 이후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육신과 영혼 곧 한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육신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유지한 채로 무덤에 놓여있지만,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도 배웠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육신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들의 물리적인 육신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 곧 한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다른 점은 사람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에 있어서의 구별과 역할 관계는 타락 이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성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 지위를 가졌습니다. 남자의 머리됨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신약성경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창조로 거슬러가서 이 원리에 호소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11:8,9과 디모데전서2:13에 이 내용이 잘 나와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결혼관계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고자 하셨기에 결혼언약도 제정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것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곳에서 선지자들이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까지 이 사실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랑을 위해서 장식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언약적 약속으로 맺어진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는 태초부터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region)입니다. 사실, 이것도 역시 중요한데 한 예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가서 시편 8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노래하라는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서 그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은 인간이 실제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이 인간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느끼신다면 또 이에 대해서 의문이 드신다면, 더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2:8, 9을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 발은 사람의 발을 말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도 보시듯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니”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통치가 제공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밖에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계시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에게 영구적인 창조규례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창조시에 주어진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결혼입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2:23, 24에 있는 결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혼과 관련된 출산입니다. 자녀들을 임신하고 낳는 것입니다.

창세기1:28에서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번째, 창조규례는 노동 혹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2:15,19,20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노동은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을 하도록 사람을 만드셨고,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타락 이후 지금까지, 사람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하고, 다른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번째, 창조규례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창세기2:2,3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죄와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세워진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십계명 중에 제4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으로 가면 일주일 가운데 하루의 안식일을 준수하고 지키는 이 도덕적 명령은 마지막 때까지 지속됩니다.

히브리서4:9에는,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안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안식”으로 번역되는 단어들과는 다릅니다. 이 단어는 실질적으로 안식일 준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준수가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4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신약성경에서도, 매주의 안식일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매주 안식일을 지키라는 창조규례는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관통하여서 존재하며, 심지어는 천국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안식일이 없는 곳은, 오직 한 장소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의 남은 부분을 위한 구성요소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에 관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재하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걸으셨던 에덴동산에서 바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성막 혹은 훗날에는 성전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스가랴2:10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시고, 거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시대의 교회를 거쳐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21:3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언약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낮아질 것을 선택 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아이디어는 정말 중요한 성경교리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다룰 것입니다. 이 언약은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규정과 조건을 가지고 엄중한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반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종종 표식과 표지도 함께 주어집니다. 이 언약의 개념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첫번째 언약을 행위언약, 혹은 생명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독특한 언약인데, 이 때 아담은 타락 이전에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2:17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약 그 열매를 먹을 경우에 아담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죽음의 저주를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아담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 언약에 약속이 어디에 있냐고 말입니다.

저주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약속의 예표고 성례며 눈에 보이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나무의 존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혹은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 나무가 성경 어디에 다시 나타나지는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 나무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세요. 바로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22:2) 이것은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같은 책의 앞부분인 요한계시록 2:7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자기 후손들의 대표인 아담과 자기 백성들의 대표인 그리스도 사이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15장과 로마서5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먼저 첫번째 아담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에덴동산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창조의 탁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연구의 남은 부분들을 위해서 창세기에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구성요소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요점에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성경의 남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초 위에서 얼마나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건물을 건축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속자와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은 태초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알린 바 되신 이” (벧전1:20)입니다. 그 분은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양” (계13:8)으로 묘사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은 의심할바 없이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 사역이 성취되는 무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천국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데려올 장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25:34). 여러분은 이것을 보셨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 11:4은, 첫번째 순교자인 아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창조에 관한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주제는 신약성경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이것은 다시 창세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후4:6).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간을 생령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은 신자들을 중생시키심으로, 인간에게 생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땅을 생각해 보세요. 첫번째 세상은, 처음 창조되었던 대로 계속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결코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전 우주는 마지막 때에 임할 장엄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실 그 마지막 때입니다. 피조물 혹은 창조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저주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롬8:21)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새 하늘과 새땅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탁월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위하여 최고의 것을 남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번째 강의에서 보았듯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비극과 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강의 3

타락

강의 주제:

인류는 타락으로 인하여 그 교제를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본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1-22).

강의 스크립트 3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곧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나쁜 소식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소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 의사를 보러 갔는데 의사가 지금 당장 여러분을 수술실로 데려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수술은 회복되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수술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치명적인 질병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놀랄 것이고 치료방법을 알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때 의사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이해하게 될 때 좋은 소식은 극대화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류의 타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인류는 타락으로 인하여 그 교제를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실은 우리가 구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한 이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체 구속사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제시합니까?

이 강의에서, 우리는 인간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근본적인 변화와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복음의 약속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번째 강의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로서 자신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이

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하여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을 가지며 주권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 비롯되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인간이 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13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번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주목해 보세요. 거기 보면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인간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이 뱀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12:9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우리는 이 뱀이 다른 어떤 짐승보다 더 교활하고 간교하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뱀은 속이되 간교하게 속이는 방법으로 일합니다. 뱀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1절에서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내내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과 인간을 향한 계시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창3:1)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셨습니다.

이 유혹에서 사탄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공격했고 하나님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찾지도 주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8:44)

우리는 태초부터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사탄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3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창세기 3장은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에 나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그것에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일3:4은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데, 바로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빼먹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것을 빼먹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인생의 모든 비참함은 결국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범죄자의 길은 힘듭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저주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 땅, 그리고 뱀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죄는 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아담이 즉시 죽지 않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가지에 주목하세요. 첫째로, 이것은 영적인 죽음으로서 아담의 영혼의 부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엡2:1)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하

자면 선한 것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직 죄를 지을 뿐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로,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이 죽음의 종이 계속 반복해서 울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판결입니다. 아담의 영혼과 그의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히 정의로우신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18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는 반드시 죄가 범해진 대상에 비례하여 그 크기가 정해져야 합니다. 가장 작은 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범해졌더라도 이는 영원한 형벌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첫번째 죽음 아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는지 봅니다. 비극적이게도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저주의 핵심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죄책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책임에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염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죄책과 오염은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체를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소외되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영광과 영예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로마서3:23에 있는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3:24에 이 엄청난 추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59:2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둘째로, 우리는 죄가 오랜 시간동안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언약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2,3장에 “언약”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모든 요소는 거기 있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언약으로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호세아6:7에 보면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도 언약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23장에 가서 그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약속이라는 축복은 순종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생명나무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었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죽음의 저주가 경고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고 언약의 저주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언약은 그의 자손들을 대표하는 아담에 의해서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위치를 포함해서 남은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동안 성경의 후대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아담의 위치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진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제공합니다. 먼저 아담은 단순히 자신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대표 혹은 언약적 머리(federal head)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한 행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의 첫번째 죄는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범한 첫번째 죄의 책임이 그의 자손들에게로 전달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5:12-19은 바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아담의 첫번째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이 답은 우리가 “전가”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전가”라는 이 단어를 로마서 4장에서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전가는 법률적 용어로서 “~에게 돌리다” 혹은 “어떤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다. 혹은 계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첫번째 죄의 책임은 그의 자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들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죄가 그들의 계좌로 입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약적 머리로서 우리와 연합된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결과, 곧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가의 신학은 다른 이유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세가지 중요한 전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는 복음의 심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담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택한 백성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21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아담의 첫번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불공평하게 보인다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과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백성들에게 전가된 것도 불의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발견되는 죄와 부패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되 일반적인 출생의 방식으로 그에게서 시작하여 자손에게로 전달되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실제로 범하는 모든 죄와 허물의 출처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다음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가?” 정답은 후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두번째 진리와 관련하여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아담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관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5:21-22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그의 씨의 대표이듯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선택하신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담이 잘못된 것을 무효로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은 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벌을 받는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자신의 백성들을 그 상태에서 구출하고 끌어 올려서 아담이 타락전에 누리던 상태로 올려 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이고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순종하고 영생으로 올림을 받아야 했지만 반대로 그는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단순히 아담의 지위로 회복시킬 뿐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약속을 상속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수업과정의 마지막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첫번째 복음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첫번째 복음 약속으로 인도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 외로이 한 별이 하늘에 나타나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15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타락 이후에 처음으로 주어진 복음 약속을 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 창세기3장에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서 구세주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는 창세기 3:15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교리가 배아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처음으로 비추는 장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약속은 은혜언약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이 첫번째 언약인 행위언약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짐에 따라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언약의 형태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언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추락해 버린 인간의 새로운 형편을 다루는 그런 언약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은혜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은혜언약의 첫번째 씨앗을 바로 창세기 3:15에서 발견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주도권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시고 계시는 모습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성경은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이 은혜언약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역사의 남은 부분들을 통해서 은혜언약에 대한 자신의 계시를 펼치시고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가장 충만하게 표현될 때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다음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 그 후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이 유일하고 단일한 은혜언약에 대하여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15에서 요한계시록2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발견되는 지배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언약을 통해 구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15에서는 이에 대한 한줄기 빛을 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게 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기초 위에 그 계획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20문은 이 진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골로새서2:15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뒷꿈치가 상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의 자리에 서실 것이며 죽음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자신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최초의 저주는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갈라디아서3:13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창세기 3:21에서 이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물론 새로운 가죽은 동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고 희생하는 것은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음 장인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희생제사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히브리서2:14,15에 나오듯이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약속을 추적해야 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더 추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교회의 대헌장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첫 번째 복음인 창세기3장15절도 이 대헌장을 교회에 제공합니다. 이 구절에 세개의 대조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첫째로, 뱀과 여자입니다. 이는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연합이 종말을 고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와 사탄에 대하여 대적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번째는,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조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반면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로, 교회와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인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대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비전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여인의 신실한 후손과 뱀의 반역적인 후손 사이를 구별하여 나누어 줍니다. 셋과 가인의 자손들을 나누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나누며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을 구별합니다. 물론 여인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약속은 구속사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와 사탄의 통치에 속한 세상 사이에 적대감과 전쟁이 있다는 상황을 설정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교제에서 분리될 것을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6:14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신학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나오는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대헌장입니다. 창세기3:15과 요한일서 3:8, 10을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 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3:15의 약속은 마귀를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로 확장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16:20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은 창세기3장에 있는 그 구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2장과 같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약속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저주가 웅장하게 역전되는 것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약속은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주와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는 천국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도록 합니다.

결국 저주의 선언이 있는 창세기3장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저주와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제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펼쳐지는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3,4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어떤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21:4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인 가닥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이러한 주제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제들을 노아의 시대에는 어떻게 지어가시는지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 4

노아

강의 주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본문:

“하나님이 …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후서2:4,5,9).

강의 스크립트 4

노아의 방주와 전 지구적인 홍수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례없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노아의 시대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잘못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저질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홍수 때에 세상에는 영구한 변화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계획의 본질을 더 많이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5장이 신학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닐까요? 노아 시대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은 서로 반대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심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진행시키고 또 성경역사에 있어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도록 합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 인지를 볼 것입니다. 특히 홍수 이전과 홍수가 일어나는 동안 그리고 홍수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노라는 주제를 서로 엮이면서 구원이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홍수 이전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창세기3:15에 언급된 두 후손의 후손들 사이를 분리하고 구분하셨습니다. 첫번째 구분으로서 창세기4장에 나오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노아의 시대로 이어지는 두 혈통이 있었습니다. 이 첫번째 요점에 관련하여 이 두 혈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건한 자손의 혈통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우리는 창세기 3:15을 통해서 중보자께서는 경건한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4장은 창세기3:15의 약속에 따라 처음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두 후손 사이의 투쟁의 시발점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첫번째 위선적인 배교자가

되고 아벨은 첫번째 믿음의 순교자가 됩니다.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 4:4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을 가지고 그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11:4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10:17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비록 창세기4장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희생제사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사는 앞으로 오게 될 것들의 기초가 되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제도로 확장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아벨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허무함”으로서 이는 전도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벨이 죽고 난 후 경건한 후손의 계통은 셋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4:25)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성경에 따르면 “그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름” 불렀습니다(창4:26)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변의 환경과는 반대로 이제 교회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만약 좀 더 읽으면 에녹이 노아로 이어지는 경건한 사슬에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창세기5:22과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22절)고 말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24절)

걷는다는 말에 대한 히브리 단어는 매일매일 가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6:7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은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거기에 의도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11:5은 에녹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증언은 창세기6:9에도 이어집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 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17:1)

이것 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서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2: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의의 설교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후손인 신자들은 예언과 희생제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예배의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둘째로 첫번째 요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불경건한 후손의 계통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배웁니다. 뱀의 후손이 가인의 계통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요한일서3:12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에서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피의 제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권징의 첫번째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의 모임에서 가인이 쫓겨난 것입니다. 창세기4:16에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이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이신 모형으로서 미래에 있을 교회의 모든 개혁들의 한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첫번째 살인은 라멕에 의한 더 많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창세기4장에서 그 살인에 대해서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6장의 처음 구절들은 교회와 세상이 서로 섞인 것에서 비롯되는 부패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셋의 어떤 후손들은 인간의 딸인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 존 오웬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악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게 되면 그 결과는 교회의 몰락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6:3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축복

도 거두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고자 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수문이 열리자 심판의 수문도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분리의 원리가 훼손되었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불경건한 동맹이 이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세기6:5에 나오는 노아의 날이 닳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최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구절에 기록된 죄의 특징에 대한 여섯 가지 사실들을 눈여겨 보세요. 먼저 죄는 타고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이 사실을 창세기8:21에서도 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므로 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6:5에는 인간의 악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죄의 강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죄의 전체성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넷째로 죄가 가진 왜곡된 창조성입니다. “계획”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일에 있어서 창조적이라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죄가 내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죄는 배타적입니다. 죄는 유일한 악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곱째로 죄는 습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죄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로마서3:9,23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인 사람이 자기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아주 부풀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자고하여졌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를 들로 보내어 황소처럼 살도록 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사도행전12장에 나오는 헤롯이 있습니다. 그는 신으로 칭송을 받았고 그런 칭찬을 받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그 결과 벌레가 헤롯을 먹어버렸고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창세기6:5은 전적타락 교리에 대한 증언으로서 가장 초기에 나오지만 가장 분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전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적”이라는 말은 인간본성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는 광범위한 것이지만 반드시 집중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부패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이 영향을 받았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이해가 죄에 영향을 받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긴 목록을 신약성경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양심과 의지 등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의 도덕적으로 무능한 이유는 그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인간은 장님이며 무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그저 아프거나 눈이 흐려졌거나 약하거나 지식이 어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불신자는 자유의 상태가 아니라 묶여 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구원하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구속사에 걸쳐서 드러나는 의지의 자유에 대한 교리를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과정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큰 그림을 배경으로 창세기6장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속사를 네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장에서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고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덴동산에서 타락 이전에 무죄했던 상태의 아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있었습니다.

두번째 범주는 타락 이후입니다. 이 상태는 최악된 타락의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오직 악을 행할 능력만을 가질 뿐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셋째로 죄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선과 악을 모두 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범주는 신자들이 천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천국에서 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선을 행할 능력만 있지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6:5에 있는 인간들의 상태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불신자들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악한 것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편으로는 죄의 죄악됨과 다른 한 편으로 죄의 극악함을 아주 간략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특별히 실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유익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범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음,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야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거든” 물론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죄악됨과 죄의 극악함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악된 일이고 여러분의 손으로 그 형제를 죽이는 것도 죄악된 일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죽이는 일은 보다 극악한 것입니다. 보다 악한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극악함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는데서 분노에 찬 말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죽게 되도록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죄의 극악함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죄가 죄악되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높게 바라보는 반면에 인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합니다. 그 결과 구원의 필요성은 인간을 겸손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인도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서, 죄에게서 그리고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홍수가 일어나던 기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6:11-13에서 보듯 전 지구적인 배교는 전무후무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옛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운 구원이 오직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주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폭풍과 더불어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는 한 시대의 마지막을 알린 것입니다. 그 때까지 알려져 있던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두가지 사실에 주목하세요. 첫째는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에녹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24장과 누가복음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잠언29:1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몇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였습니다. 이 홍수는 지구 전체를 덮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일으키신 보편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3:3-7에서 베드로가 이를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노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사실 신약성경은 보편적인 홍수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병행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홍수는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상징이라는 말이죠. 바로 죄의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3-7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점과 관련하여 홍수가 일어나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이 창세기6:17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보다 조금 앞에 있는 5:29에서 노아의 출생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6:8에 노아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는 노아도 역시 은혜를 구했고 은혜를 갈망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구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또한 창세기8장은 “하나님이 노아를...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구원이 심판의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노아는 그저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베드로전3:20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명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세례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성화를 연결시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그리스도를 덮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정결하게 했던 이 물은 방주 안에 있던 이들을 구원했습니다. 악한 세상은 노아를 집어 삼키고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홍수는 세상을 파괴했고 동시에 동일한 물이 교회를 구했으며 교회를 악한 세상과 분리시켰습니다. 이사야1:27은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주로 부르신 후에 방주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곧 자신의 백성들의 피난처요 구원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뱀의 후손이 멸망당할 동안 여인의 후손은 안전하게 띄워져 구원받는 모습을 봅니다.

셋째 우리는 홍수 이후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언약 안에 있는 자신의 복음약속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9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선언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과 가장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22:21에 이르기까지 성경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창세기9:9에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세우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분입니다. 노아언약에서 여러분은 창조와 구속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창조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두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창조시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은 구속이 진행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역사 속에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약적 축복들이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이미 존재하는 창조의 갱신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9장에는 생명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 나타납니다. 이런 새로운 언약의 약속들은 여러 제사와 함께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8장 마지막 부분과 9장 초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조물들이 둘씩 방주로 들어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신 동물들은 일곱씩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희생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고 (이 정결한 짐승들은 제사에 제물로 드려져야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먹을 양식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8:20에서 제단에 대하여 최초의 언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언약은 다시 한번 희생제사와 피흘림과 함께 세워지게 되는데 이는 성경의 시작부터 이미 우리가 마음 속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훨씬 나중에 주의 만찬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언약에 대한 영구한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9:13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16절과 1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이는 또 다른 하나의 구성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언약의 표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 관하여 우리는 가정의 원리(household principle)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약의 약속은 신자의 가족들에게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믿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분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11:7)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신자인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로 확장하시는 것에 주목하세요. 창세기9:9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의 원리는 앞으로

보겠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원리입니다. 사도행전2:39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할 때 그도 이와 매우 비슷한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하신 것이라”

하지만 언약의 가족 안에서 언약의 약속들을 물려받는다는 말은 모든 가족이 참된 회심과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함의 반역과 언약파괴를 통해서 다시 여인의 후손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9:25-27에 이 사실이 나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홍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신 이후에 세상은 다시 노아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전과 연속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9장에서 창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창조규례의 연속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보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9:6에서 살인에 대한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해서 인간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구원이라는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제공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창세기9장의 마지막에 있는 어떤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속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기대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것입니다. 9:26,27에는 “또 이르되 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여기서 우리는 썸이 장막을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봉사함으로 그 장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야벳의 자손들은 그 장막을 심히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구속사에 있는 하나님의 장기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썸의 자손인 유대인을 사용하여 그의 언약과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언약과 교회로 들어갈 것이며 훗날 이를 심히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약속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안에서 훌륭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이는 다음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는 궁극적으로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성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나아갈 길과 구속의 역사는 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강의 5

아브라함

강의 주제: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복음의 축복을 분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우상숭배에서, 신앙과 순종의 길로 부르시며 내려오십니다.

본문: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3:8).

강의 스크립트 5

아브라함이 현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들에서 진행중인 갈등과 좀 더 넓은 의미로 중동 지역에서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브라함에 대한 진정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여기는데 이는 옳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자세하게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구속역사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신학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후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진행되고 확장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과연 어떻게 다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이후의 성경역사에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도록 합니까? 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이토록 강력하게 강조할까요? 우리는 구약성경에서도 신약성경에서 발견하는 복음과 구원의 방법과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제공하시는 신학적인 주제들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 주제들을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오실 구속자와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들으신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던 한가지 흥미로운 사건, 곧 우리의 모든 주제들을 한데 묶어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구속사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와 세상을 의미하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광범위한 족보와 미래 국가들의 기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함, 구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던 니므롯이 바로 뱀의 후손을 대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을 통해서 가나안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약속된 대로, 여인의 후손은 셈을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내려오고 그를 통해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고 그 후 중보자로 가는 계통을 잇도록 선택된 유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분간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의 계시를 셈족을 통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국가의 목록을 기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차매 구속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될 것이지만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교만하고 반역적인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까지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세상에 분산시킴으로서 그들의 악행을 저주하시고 좌절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펼쳐지는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있었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저주를 역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계시록 5:9,10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궁극적인 묘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한 자신의 약속 안에 포함시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세상을 별하셨습니다. 이는 지구 전체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의 조상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계속 지속되게 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32:8,9에서 모세는 이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마 여러분은 앞선 강의에서 제가 구약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른 것을 눈치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옳습니다. 사도행전7:38은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나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던 자가)... 이 사람이라” 다시 연속적인 요소를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셋에서 시작하여 셈과 아브라함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잠시 후 보게 되겠지만 신약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신약성경의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창세기12:1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그를 세상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를 실 때 자신의 신성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뒤로 가서 사도행전7장의 스테반에게로 가면 그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적을 떠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셨습니다. 15:1에서, 하나님은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1에서, 다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선택교리에 대한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으신 것이지 아브람이 여호와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분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라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 우상숭배를 떠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호수아24:2은 특별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가 우상숭배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 존 오웬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과 세상에 포함된 거짓 신앙과 부패로부터의 교회를 가시적으로 분리하심으로 교회의 새로운 단계를 세우려 하시듯이 믿음과 순종과 거룩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또 이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새로운 기초를 놓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세요. 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데 8절에서 19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지는 장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여러 번 더 보입니다.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의 구원하는 믿음을 광범위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이를 창세기 15:6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신자의 분명한 예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을 다룰 때 이에 대해서 보다 더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담과의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마다 점점 더 확장됩니다. 창세기 3:15의 언약적 약속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서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는 보다 더 잘 나타납니다. 이 하나의 은혜언약은 모세와 다윗을 거쳐 새언약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의 토대가 되며 그와 관련된 표현과 초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들은 그 이후에 오는 시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12:1 이하에서 자신의 언약을 시작하시는 것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성례적으로 표지와 인장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22장에서 그것을 결론 내립시다.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속된 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약속된 땅, 곧 하나님의 후손을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물리적인 땅이 천국에서의 영적인 유산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10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므로, 첫째로 요소는 약속된 땅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약속된 후손을 보는데 그분의 육신적인 후손은 약속의 후손을 포함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을 아우르는 많은 결실을 약속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언약에 관한 몇 가지 강조점을 다룰 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강조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적 약속의 핵심은 17:7에 나온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용어 곧 은혜언약의 이 핵심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3에 이르러 최종적인 정점에 이를 때까지 문자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은혜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언약은 피로 말미암아 비준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도축된 동물들의 조각 사이로 지나가시는 구체적인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엄숙한 맹세와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셋째로, 은혜언약에 있는 복음적 약속이 가정의 원리를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다시 17:7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언약의 이 요소는 신약성경에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도행전 2:39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창세기 17:7과 거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하신 것이라”

넷째, 이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졌으므로 창세기 17:11에 보면 복음 약속의 표와 인장인 할례도 역시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도 이를 행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4:11에서 바울은 할례를 믿음의 의를 가리키는 표시이자 인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약속의 표시가 중생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자손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불신자였고 이삭은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표시를 주라는 명령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7:14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출애굽기4:24-26에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 모세를 죽이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오실 구속자와 구속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12:3절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오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성경의 첫번째 책의 첫 구절 곧 마태복음1:1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3:14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나오는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3:15에 약속된 후손의 주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주제는 아브라함에게로 전달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3:14에 기록된 대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은 이방인 신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이 약속은 유대인 곧 육신적인 혈통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건전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로마서4:13에는, “아브라함이 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들이며 그의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7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강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삶 동안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와 그 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속을 바라보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지배적인 복음의 주제들을 묘사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구속사라는 정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흥미로운 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창세기2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와 우리의 공급자”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 이레로 나타내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했던 일 다시 말해서 창세기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둔 시험과 승리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할 가치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22장의 중요한 요점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양을 제공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시험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이 심히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약속을 제한하셨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삭의 삶과 자손들 안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과 멀어지고 또 그리스도와도 결별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4:16-25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히브리서11장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중지시켰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돌려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여 덩불에서 숫양을 제공하셨습니다. 절에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 사건

이후입니다. 대속물로 숫양을 제공받은 이후요 이삭이 구원받은 이후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삭은 제단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숫양이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합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저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모리아땅에 있는 그 산의 정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숫양을 가지고 아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에게 앞으로 주어질 더 탁월한 것에 대한 담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대속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8:56에서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분이 가리키신 때가 바로 이 때 곧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바로 이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2장, 창세기 22:2을 기억하세요. 이 사건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를 따라가세요. 이 장소는 훗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또 그 후에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고 제단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수천 수만의 제사가 수세기에 걸쳐서 바로 그 장소에 있는 동일한 곳에서 드려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장소도 이후 이천년이 지난 후에 같은 장소인 모리아산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양을 공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몰랐을 것입니다. 이삭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도 약속의 아들이었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더 위대한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분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성자입니다. 이삭도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왔던 아들이었나요?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야 겨우 얻은 아들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도 역시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성자로서 오실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어린양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의 도입부에는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삭도 초자연적으로 출생했습니까? 이삭은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나고 난 뒤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더 초자연적입니다. 그 분은 처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보다 더 온유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되었습니다. 모든 구약성경에서 희생양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가는 유일하신 마지막 희생양을 가리킵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5:7,8,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안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흥미로운 이야기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는 구속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빛 아래서 창세기22장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설교자들도 역시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실재들을 감안하여 이 본문을 설교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신선한 빛과 색깔을 주며 이 본문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하여 창세기22장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어떤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가지는 적실성을 여기서 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분은 오늘도 모든 참된 신자들이 가진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는 자신과 구원에 대한 계시를 이해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영감된 설명이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 족장들의 시기에 제공하시는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6

족장 I

강의 주제: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전개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계획에 대한 밝은 계시를 드러냅니다.

본문: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로마서9:4-5).

강의 스크립트 6

히브리서11장에 나오는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읽다 보면 마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이유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의 은혜언약과 한 분 구세주 아래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 안에서 이 족장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구절인 40절에서 12장 시작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물론 이는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보았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11장은 반복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등등이 있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안에서 언약을 지키며 살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구약성경은 여러분의 가족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들의 유산을 읽고 계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해서 읽는 것이며 자기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 분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읽는 것입니다. 족장시대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적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족장들은 어떻게 성경역사에 대한 패턴을 제공합니까? 왜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재산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서 선택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요셉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뼈를 묻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염려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은혜언약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그리스도와 오늘날 각각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어 줍니까?

이 강의에서 우리는 족장들의 시대 전체에 걸쳐서 엮어진 몇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것을 추적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자신의 구원을 계시하시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게서 멈춘 그 다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이후 성경의 역사에서 지배적인 신학적 주제가 된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불같이 일어난 분노와 진노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태인과 소금과 불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세 도시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소돔에서 피신했던 롯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약성경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눅17:32)고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본보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한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는 그들이 첫번째 계명을 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선지자들도 여러 곳에서 이 계명을 말했습니다.

이들이 보였던 지독히도 왜곡되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간음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바로 이것이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역사를 위한 모델로서 이들을 의로운 분노와 진노로 다루시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사용하십니다. 신명기29:23에서 하나님은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예시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훗날 하나님은 같은 경고를 주시게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이사야1:10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의 여러 곳에서 이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9장과 50장에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13장에서 바벨론 민족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이와 같은 주제가 이어집니다. 유다서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사용하셔서 그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악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11장에도 영적인 바벨론의 상징을 소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 줄만큼 의로운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할 것이라는 약속 바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심판 때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여러 곳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불립니다. 바로 이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소유했던 유일한 땅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묻혔던 땅과 동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둘째로 이삭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된 약속의 아들로 정하셨습니다. 창세기18:19에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의 종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멀리 보내서 아들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종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분명히 아브라함만을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공경했습니다.

창세기26:3,4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모든 중요한 요소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이 언약이 이삭과도 지속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동일한 은혜언약이 창세기3:15에서 시작하여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세대에 세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언약은 이삭 이후로도 계속 지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깐 여기 멈춰서 저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대단한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물창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과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과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러한 자손들은 자라서 미래에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선지서에서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이 12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한 가문의 머리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친상간의 결과 롯에게서 난 두 아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 나라가 태에서부터 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물론 에돔의 나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엮여져서 율법의 조항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민족들을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중요성은 선지서 전체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경의 뒷부분에 언급되는 우물의 장소나 제단과 다른 많은 장소들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많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항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주어진 자료 안에 있는 방대한 기간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쳐야 하는 중요한 구체적 내용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연구를 더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기초적인 수단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특히 우리는 이삭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순종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삭의 순종 곧 순종이라는 구속적 주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이삭이 기꺼이 모리아 산까지 장작을 운반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기꺼이 제단에 자신의 목숨을 내려 놓았습니다. 이 때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저항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가 고른 신부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약속의 아들 곧 기꺼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채, 자신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결코 그 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빌라도나 군병들이나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성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들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삶은 순종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삭의 때에 야곱은 선택되었습니다. 창세기28:13-15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26장에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지금 28장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야곱은 이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이라는 단어는 또한 “~할 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진정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 다음 두 장인 29장 30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베푹니다.

이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펼치는 것을 통제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선택교리가 특별히 강조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9:10-13로 가면 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창세기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동일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교리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보았듯이 선택교리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을 위하여 구원할 백성을 선택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옥에서 자신의 진노의 정죄를 당하게 될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로마서9장이 말하듯이,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그럴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없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언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42장은 주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반대로 에서는 언약을 깨는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약속의 표지를 받았습니.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언약에 속한 결과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익을 가졌습니. 하지만 우리가 듣는 말은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에서는 장자권을 한끼 식사와 바꾸어 버렸습니. 이 땅을 향한 그의 욕구는 영적인 것 곧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욕구보다 훨씬 컸습니. 히브리서12:15,17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시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를 신약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로 사용습니. 이 본문은 이렇게 말습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은혜언약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으며 이것은 각각 언약을 지키는 것과 언약을 파괴하는 것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습니.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버리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저주를 받습니. 물론 에서는 계속 그 길을 가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습니. 이는 분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있는 뱀의 후손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범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약적 축복을 받았습니. 창세기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확증하고 계습니. 특히 꿈을 통해서 확증습니. 이 꿈은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와 그것을 오르내리는 천사들에 대한 꿈을 통해서 이를 확증하시고, 또 야곱이 사다리의 꼭대기를 볼 때 그 위에서 여호와와 자신을 드러내습니. 이 때 나타나신 분은 야곱의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가 앞 강의에서 말했던 땅과 후손과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반복습니. 야곱은 그 장소를 벰엘이라고 부르는데 벰엘은 “하나님의 집” “천국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 조그만 장소 너머에 있는 곳을 가리키고 습니. 그는 그 땅 너머, 궁극적으로 그 약속 안에서 그 땅이 상징하는 곳 곧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실현됩니다. 주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집이며 그 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1:51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습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28장의 내용과 자기 자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습니. 창세기32장에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룰 주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고 그와 씨름습니. 서로 붙잡고 씨름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고 말습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습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습니.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자의 능력과 겨루어 이긴 사람”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알게 되겠지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그의 모든 자손이 이루는 한 국가 곧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진 위대한 조직으로 성장할 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네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열두 지파의 시조가 되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 열두 아들이 태어났습니. 신약성경으로 가서, 그것도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21장으로 가보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습니. 여기서는 새예루살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습니. 새예루살렘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며 남편을 위해서 단장된 신부와 같다는 등 다양하게 묘사하고 습니. 주님은 새예루살렘성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계시해 주습니. 주님은 요한계시록21장에서 새예루살렘성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습니. 다시 한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봅니. 이 열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인 유다는 다말을 통

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다말은 창녀인척 했었습니다. 이 쌍둥이 가운데 하나는 베레스였는데 그 의미는 “범하여진 것”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는 주 예수님을 “범하여진 것”을 고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열 세대가 지난 후 다윗이 이 계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내용이 신약성경의 가장 첫 장 곧 마태복음1장에 실제로 그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49:10에서 하나님은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5:5에 다윗의 뿌리인 유다지파의 사자로 묘사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양 곧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부분이 전체로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처음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은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은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다면 그의 삶에 많은 성공과 실패와 우여곡절을 비롯한 많은 어두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몇몇 부분에서는 도저히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창세기50장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면서 그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에 삶에 늘 따라다녔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과 그 전체 가문을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어질 수 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상태로 마칩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로 돌아가서 창세기15:13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이집트에서 사백 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는 모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암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을 주목해서 살펴보세요. 바로 창세기50:25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자신의 뼈를 반드시 애굽에서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질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11:22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이 작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더 읽어서 창세기에서 여호수아24:32절로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요셉이 원했던 대로 행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출애굽시에 도망할 때 그들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죽은 지 사백 년 이상이 흐른 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 그 뼈를 묻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다 다룰 수도 없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강조하실까요? 다시 약속으로 돌아갑시다. 맞습니까? 우리에게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히브리서11장에 분명히 나오듯이 그 땅은 생생한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족장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11장은 그들이 이것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한 조각의 땅도 부동산의 한 부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서 유산으로 주실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였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유산”이라는 제목을 붙인 강의를 할 때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이곳에서도 간략히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약속의 땅에 심겨지고 묻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약하면,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과 12장의 시작으로 다시 가봅시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1장은 족장들과 그들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의 위대한 목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와 이 모든 사람들을 묶어 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도 이것을 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족장들에 대한 설명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요셉과 그 외의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관련되어 있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선 가장 중요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 안에서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했으며 다음 강의에서는, 세 인물을 살펴볼 것이며 족장들의 시대 중에 관련이 있는 나머지 공부는 구약에서 할 것입니다.

강의 7

죽장II

강의 주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 이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에 대한 계시를 주십니다.

본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5:39).

강의 스크립트 7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일반적으로 주인공을 포함하는 주된 줄거리와 이야기의 전개를 분별해 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돕는 다른 등장인물들이 여기 저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 속에서 이들은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참되고 영감된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시아로 이어지는 주된 계보에 등장하는 핵심주제와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히 택한 다른 인물들도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는 창세기에서 등장했다가 그렇게 일찍 모습을 감춰버릴까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장엄한 목적과 구속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번 등장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그들은 누구이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왜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42장으로 이루어진 욥기를 성경에 포함시켰으며 욥이 성경의 신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셈에서 아브라함을 거쳐 야곱의 12아들에게 이르는 주요한 계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계보 밖에 있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죽장 시대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인물은 모두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성경을 전체로 볼 때 그 안에서 발전되는 주제를 추적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14장에 세 절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등장할 뿐인데, 왜 지금 죽장시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중에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시편110편에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110편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장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인용하셨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

스도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있듯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구세주의 영광을 보여주며 전체 성경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가지가 다 이 수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은 실제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믿지만, 시편110편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라는 말과 히브리서7:3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른 이유들 중에서도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합니다. 멜기세덱은 문자적으로, “의의 왕”이라는 의미이며,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살렘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일부분이며, 비록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십일조를 주었다는 말도 듣습니다.

비록, 불신앙적인 이상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는 했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 말고도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110편을 기록하면서 주님께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님이며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1절)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수없이 사용합니다. 시편은 메시아가 왕이시며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제사장이지만 한 레위의 자손들이나 오직 왕일 뿐이었던 다윗의 자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분은 제사장이며, 왕이 되실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우월한 서열을 따라 된 제사장이며, 아론과 그의 자손들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크고, 아론보다 크며, 다윗보다 큰 인물로서,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이 얼마나 우월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는, 이 주제를 택하고 길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중보자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탁월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7장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막연한 인물, 멜기세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성취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의 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혈통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을 연구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일찍이 창세기14장에서 보았고, 다윗도 시편110장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왕적인 통치자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그 분은 약속된 왕이시며, 우리를 자신에게 굴복시키며, 그 분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그 분은 제사장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대제사장, 곧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최고의 제물로 바치는 분입니다.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두가지 직분이 한 위격 안에 결합되었습니다. 창세기14장에 나오는 모호한 이 세 절 말씀은, 반드시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족장들을 주제로 하는 이 강의에서 중요한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여러 현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족장들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중요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1:1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족장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식들 중에 하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현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그 모습을 다양하게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은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것인데 이는 성자, 곧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현현과 그리스도의 현현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두 단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영원한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1:18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한, 성경은 골로새서1:15에서,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또 히브리어 1:3과 같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바빙크를 비롯한 대다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여러 현현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에게 일시적이고, 육신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나, 목소리, 혹은 다른 형태를 사용하실 때, 이것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인간의 마음에 각인되는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신약성경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현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성자께서 친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으로서, 참되고 영구적인 연합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과 행동으로 나타내신 다양한 예가 있지만, 현현의 역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현현, 곧 주의 사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사자로 나타난 현현의 구체적인 예를 보기 전에 현현의 넓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16장에서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22장에서 그 주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32장에서는 아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3:2에서는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그 후 사사기6장에서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전달자”를 의미하므로 “주의 사자”는 “주의 전달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사자는 천국을 채우고 있는 피조된 천사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라기3:1과 같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 천사로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1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다고 언급되며, 하갈은 그를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또 출애굽기 3장의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의 사자는 모세에게 나타내서, 그에게 말할 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자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에서 주의 사자는 전지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예들도 얼마든지 더 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의 사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받습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받는데 이는 출애굽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여호수아5:14과 기드온의 시대인 사사기6장에 나오는 반응을 주목하세요. 주의 사자는 천사들과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18,19장에서, 요한이 천사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것을 금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자신들이 요한과 같은 지존자의 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는 이와 다릅니다. 그는 기쁘게 이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의문점은 하나님의 현현의 목적이 무엇 이냐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성경의 신학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천사와 같은 여러 하나님의 현현이 가지는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다섯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적은 명백합니다. 바로 계시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특별계시의 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것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의지의 몇 가지 측면을 드러내기를 원하

셨습니다. 두번째, 목적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통의 한 부분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현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의 사자도, 구원의 좋은 소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소통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들은, 각각 이 웅장한 계획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역시, 주의 사자의 중요성이 이 강의의 전체 시리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계시에 대한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이것은 구속 혹은 구원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번째, 목적은 확증입니다. 여러 현현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언약을 펼쳐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들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번째, 목적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확증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바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다섯째로, “주의 사자”와 다른 하나님의 현현은 기대를 키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여기서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를 통해서 구약교회는 훗날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는 우리가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옴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옴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족장시대의 인물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인물이 옴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딴 책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5:11에는,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감된 이야기는 족장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옴기를 건너뛰거나 구약성경의 시가서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옴기는 42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가진 책입니다. 저는 옴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옴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동시에 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응하는 사건들 사이에 있는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펼쳐지는 무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다른 많은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에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이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응해서 천국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다음으로 그분은 이 땅에 있는 각각의 죄인들을 중생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게 하시게 오실 것입니다. 아주 외딴 곳에 정말로 작은 이름 모를 마을이 있는데, 적은 무리의 신자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교회의 회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때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 강력한 천사들에게서 나오는 천둥같은 기쁨의 외침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고 말합니다. 옴기에 나오는 이 신학적인 요점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옴기1:1에는 옴이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옴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뿐만 아니라 옴은 부자였습니다. 말씀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옴기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세가지 신학적 주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구체적인 것들 모든 분자들까지 주관하십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만약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다면 섭리에 대한 무지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섭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옴기 안에 영감된 주석을 제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만이 아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 처음 시작부분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책의 마지막에서 다시 변론하십니다. 욥의 세친구들이 한 말과는 달리, 모든 고난이 다 개인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그가 경건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욥에게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재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엄청난 재난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이런 재난을 간과하고 그 재난의 시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1:20이하에서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욥은 주님께서 주시고 마귀가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져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쪽 앞으로 나가서, 슬픔의 사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헤롯을 비롯한 그의 군병들이나 마귀에게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4:27,28에서 사도들은 바로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두번째, 신학적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들의 삶과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더 넓고 큰 스토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욥기에 나오는 가장 심오한 신학적 요점일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스토리가 이 세상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기는 이 커튼을 활짝 열어 젖히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 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1:8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계시며 사탄에게 욥이 은혜의 트로피라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 앞에서 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탄은 이에 반대하며 욥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모든 것들 보다 하나님을 높이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사탄의 고소를 물리칩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욥기의 앞 부분에서 2:9절에 나오는 위기의 순간까지 어떻게 이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고 긴장이 고조되는지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탄이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호흡을 멈춘 채, 시선을 욥에게 고정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다음 10절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때 수십만의 천사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고 소리치며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사탄이 패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사랑과 기쁨을 망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저 안락하게 살거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우리를 위하여 묘사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신학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중심사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는 23장에서 확증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나님)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욥이 이생을 넘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바라봄을 봅니다. 그래서 욥은 19:25-27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닦은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주제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는 표현에 대한 것입니다. 욥기에는 이 표현이 10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23:4, 시편44편 시편107편 등등에 나타납니다. 여기 멈추지 않고 이 표현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아모스서와 같은 선지서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인 신약성경에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4:16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1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돋는 아침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에 있는 이 표현의 기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는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성경과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욥기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한 신자,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하늘과 땅의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날에 절정을 이룰 것인데 이 때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하여 완전하게 만든 백성이라는 걸작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 밖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던 세 명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계보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모세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구약성경 나오는 가장 위대한 사건들 중에 하나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강의 8

출애굽

강의 주제:

하나님은 속박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계시해 주십니다.

본문: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14-15).

강의 스크립트 8

만약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에게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타국에서 노예였으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된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은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익숙한가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출애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강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한가지 방법은 바로 자신의 사역 자신의 행동 혹은 그 분이 하시는 일을 통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창조와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들을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감된 말씀을 주신대로 자신의 계획을 전개하십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구원역사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추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신학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이 성경과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역사에 대한 이 웅장한 스토리 안에서 출애굽이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의 백성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사건을 사용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속박당한 상

태가 되도록 내버려 주셨을까요? 이 구약성경의 이야기 속에 구속이라는 복음의 주제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둘러싼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출애굽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창세기15:13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반복해서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 혹은 “네 조상의 하나님”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1:7에서 가져온 후손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70명의 작은 무리로 왔지만 애굽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더 고통스럽게 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속과 구원을 위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남자 아기를 죽이려는 바로의 시도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쪽 가서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 헤롯이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해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데려간 후에 다시 돌아왔던 그 유사한 일을 기억합니까? 여기에 얽힌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분의 말씀은 사건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말씀과 행동은 기대와 믿음과 순종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첫번째 요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배운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단순히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3장에 나옵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가 한 말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5:2에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요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퍼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출7:5)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지식은 단지 이스라엘이나 애굽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에는 멀리 떨어진 여리고성에 있는 창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2:9,10에서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요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은 신학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된 것들을 봅니다. 이에 대한 아름다운 예는 그 분의 백성에게 선포된 그 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 분의 여러 명칭이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속성과 자신의 말씀과 예배 그 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든 방법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제3계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한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로 주기도문의 첫번째 간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3:14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그분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이름에 담겨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좀 더 넓게 출애굽기3:1-22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에 대해서 1-4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5,6절에서는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7-9절은 동정심에 대해서 10-12절에서는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15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16-22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6:2,3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그 전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대적들에게도 계시하십니다. 이미 살펴 보았지만 출애굽기4:5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여러 장에서 자신을 주의 사자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와 더불어 주의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마지막 방식은 출애굽에서 드러난 이 구속의 행위와 결합되어 있는 그분의 행위와 이적과 기적을 통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어떤 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성경시대 전체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와 시대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성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적과 기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영광스러운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구원이 재앙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뤘던 주제입니다. 물론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구원은 물론이고 애굽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이나 유월절이나 홍해나 물과 구름 기둥 율법의 선포 광야에서의 공급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들을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구속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은 두번째로 속박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많은 면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애석하게도 애굽의 속박으로 마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획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은 이번에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들은 지금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 있습니다. 또한 축복이 아니라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후손을 보기는커녕 바로가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외국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예의 경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계시를 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속박과 죽음에서 구속받아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야 합니다. 출애굽기2:23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구절들과 주변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이라는 핵심적인 주제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에서도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 예레미야24장과 에스겔23장에 가서야 언급됩니다. 하지만 애굽의 포로생활과 출애굽은 인류가 악의 세력에 포로로 잡혀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을 죄의 노예상태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이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섬겼습니다. 죄가 그들을 지배했고 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우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 속박의 상태는 불신앙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게 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세번째 주제인 속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속죄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헬라어 단어는 “풀다” 혹은 “속박에서 놓이다”는 의미입니다. 노예상태에서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14:13, 14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바로 그들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다는 사실과 피로 구속함을 받는 이 모든 개념이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는 희생제사에 대한 강의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이 유월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피흘림 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해 보세요. 앞에 주어졌던 재앙은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출애굽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마지막 이적에서는 구속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음에서 구속되는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애굽에서 구속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대속물로서 대속적 속죄를 표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어린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요1:29)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고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입니다. 이사야43:1,3에는 “야곱아”라고 말한 후에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박에서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안에 있는 대속물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는 영혼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구속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로마서 6:14에 언급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는 결코 주인이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거나 노예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11:29은 홍해를 건넌 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형(paradigm)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통해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그들을 덮쳤고 그들은 모두 익사당했습니다. 물에 잠긴 이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더이상 노예도 아니고 속박된 상태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과 어둠의 왕국에서 구출되어 그리스도와 소위 약속의 땅이라는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주인으로 하는 사탄의 가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장대한 스토리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속의 목적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창세기 초반에 대해서 할 때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질 한 백성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섬길 한 백성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구속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 이야기에서 바로 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과 함께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4:23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은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의 다른 편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기15장에서 부른 그 영감어린 노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높이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기의 가운데 부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이 노래는 여러면에서 이 전체 이야기의 중심에 해당됩니다.

15:13에 있는 이 노래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구약의 언어이며 당신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곳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가 시편과 같은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시편 136편의 모든 구절에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5:24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장면을 보세요. 이사야51:10,11에도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와 같은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중보자를 통해서 속박에서 구속 받았습니니다. 모세의 사역은 인간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고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그는 구원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40년간 애굽에 살았고 40년간 미디안의 광야에 살았으며 그 다음 40년은 시내산 이후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지냈습니다. 당신은 모세의 믿음과 순종에 주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11장은 모세에 대해서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도 세상과의 분리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신 모세는 잠시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즐기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거룩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세는 애굽 너머 심지어 히브리인들과 자신이 함께 당해야 하는 고통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 너머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중에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섰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국가들 참으로 하나님과 당시의 모든 피조세계 사이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 그 분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에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기적들도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대조되는 것도 있고 연관성도 있습니다. 모세는 오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같습니다. 히브리서3:3은 “그(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더욱 위대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32:32에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보자에 대한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모세와는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아래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습
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뛰어나고 위대하며 더 영광스러운 중보자로서 바로 모세가 그저 그림자 속에서 가리켰던 분입
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라는 주제를 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
해서 자신의 백성을 속박에서 구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가 단순히 육신적인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구
속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은 우상과 사악함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바로도 하나의 신이자 사악한 압제자로 여겨졌습니
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나중에 바
벨로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성경의 시작 부분인 마태복음2:14에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
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복음9:30,31에 보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
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여기서 주목하세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여기서 “별세”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출애굽(Exodus)”이라는 말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이 헬라어 단어는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
리스도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것은 궁극적인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흥미로운 이
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위대한 출애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사건
을 반드시 구속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고통의 용광로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신명기4:20과 이사
야48:10에서 발견합니다.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시내산과 율법의 수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
다”(레11:45)

강의 9

시내산

강의 주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고, 자신의 통치 하에 그들을 데려오고, 그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택하고 구속된 백성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주십니다.

본문: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12,14, 22).

강의 스크립트 9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글쓰기를 배울 때 종종 알파벳의 모양으로 그려진 여러 모양의 틀을 주고 그것을 따라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파벳 모양을 따라서 그리다 보면, 아이들은 단어를 쓰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설명 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사는데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한 계시를 십계명을 통해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 분은 이 완전한 삶의 표준에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할 때,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며, 이는 신자의 복음적인 경건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 분이 피조물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시내산의 하나님은 신약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는 구약과 신약에서 변화되는가 아니면, 동일한 채로 남아 있는가? 시내산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것인가 아니면, 같은 약속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인가? 율법의 서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율법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모든 신자들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119:97)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가지게 된 구속의 관계가 어떻게 거룩과 지혜를 통해서 빛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모든 열방에 대하여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신명기4:6-8에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인지 드러냅니다. 하지만 같은 율법이 그 모든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 앞에도 주어졌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내산과 구속과 은혜언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생활하는 동안 그는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은 호렙산에서 일어났는데,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으로서, 같은 산을 가리킵니다. 가시떨기는 불이 붙어 있었지만 타지는 않았습니.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내시고, 이를 모세에게 알려주신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바로에게 보내심을 받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단 자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면 다시 이 호렙산 혹은 시내산으로 다시 이끌고 오라고 지시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3:12은 우리에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서라고 말해 줍니다. 고로 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중요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다음 세번의 강의를 통해서 다루어야 할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연결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서로 대립되는 언약으로 잘못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관계를 은혜로운 관계로 보지만, 모세의 것은 인간의 공로에 기초를 둔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여서 이 은혜로운 관계를 방해한다고 여깁니다. 신약성경에서 모세를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제가 증명하고자 했듯이,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언약은 전개되는 중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했던 연속성은 지속됩니다. 모세언약은 창세기3:15을 궁극적으로 새 언약과 연결하는 계시의 역사 속에서 더 발전된 언약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모세언약은 은혜언약의 일부분입니다. 이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시내산과 율법의 수여가 구속과 은혜언약의 맥락속에 위치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은 구속과 은혜언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19:4,5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이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동일한 복음과 구속을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20:2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해내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강의에서 보았듯이, 애굽의 속박에서의 구속은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사역의 그림자입니다. 더욱이 율법, 그 자체도 복음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번의 강의를 통해, 성막과 희생제사와 제사장직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상징들은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관련하여 놀라운 신학을 전해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레위기를 레위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그 분을 완전히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찢린다는 것은 언제나 자비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길 때 희생제사를 이용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역시 율법이라는 사실도 눈여겨 보세요. 다음으로 은혜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합니까? 바로 앞 강의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 내용이 모세언약에 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26:12에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

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모세 언약에도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26장과 신명기27,28장에는,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만약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언약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26:40-45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와 가지는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말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를 이해하는데도 핵심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소가 신약성경에는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11장에서 새로운 언약의 식사인 성찬에 자격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주어지는 엄중한 경고로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는 표현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6,10,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2,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깜짝 놀랄만한 경고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겨우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이해해야 이러한 신약성경의 구절들에 대한 배경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과 구속, 시내산과 은혜언약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정말로 수많은 구절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가지 예를 더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찬을 제정할 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26:28에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을텐데 이런 표현은 유월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24:8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흥미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더 연구하는 가운데 더 많은 연결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신학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구성요소만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 첫번째 요소를 다루면서, 거룩과 순종으로의 부르심이 구속이라는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은 그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면서 더욱 강화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칙과 복음적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측면입니다.

둘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계시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계시는 분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든 방식들을 요약하십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름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대문자로 L-O-R-D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로 L-O-R-D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구약의 남은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성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실 것이며, 그 구절들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그 구절들은 사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다룰 때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은 역사상 처음으로 불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4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계시에 대한 몇 가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두 경우에 대하여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가시떨기만이 아니라 시내산에 있었던 불을 기억하세요. 모세는 가시떨기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산에 가까이 오거나 이 산을 침범하지 말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

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벧전1:16에서 보듯이, 신약성경에도 여전히 표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약성경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사실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성경의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6:1-3에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천사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적어도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거룩과 관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결입니다. 거룩은 순결하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혹은 흠이나 비난받을 것이 없거나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중요한 의미는 바로 분리입니다. 거룩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다른 모든 책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을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른 모든 식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다른 여섯날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분리되었고 그의 백성들과 죄에서도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에 관한 율법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들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남은 모든 인류와 분리되고 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물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죄로 부 르기를 거부할 때 혹은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찬탈하여 우 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다른 계시는 그 분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으 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우리는 그 분의 사랑을 율법에서 볼 수 있습니 다. 율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봅니다. 이 말에 주목하세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단어들은 십계명 전체에 걸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율법의 첫 번째 돌판이라고 부르는 처음 네 계명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바로 사랑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어떻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처럼 그 분의 교훈은 사랑 의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율법과 사랑이 서로 반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은 뿔레야 뿔 수 없이 연 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이를 지지합니다.

로마서13:10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사랑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14:15)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요한 일서5장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율법을 요약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하느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마22:35-40) 이렇게 율법은 사랑의 관점에서 요약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또 다른 계시 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분은 자신을 “너희 하나님”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 말씀은 첫번째 돌판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계명에서 새 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맥락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에게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위를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대로 그저 그 분을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소유권을 야곱의 후손에게 두셨습 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질투는 불타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8:6,7에 있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요약하면,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으로 가면 이 영광은 불타고 있습니다. 신명기5:24에 나온 말씀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그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불이 자신을 태워버릴 것 같아 겁에 질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도 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1절은 심지어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2장은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9장은 28,29절로 끝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다음 요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는 율법의 범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의 다른 범주들을 이해하면 율법과 신약성경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율법들은 영구적이지만 다른 것들은 시내산에서 일시적입니다. 심지어 구약성경의 신자들조차도 이러한 범주와 구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 40:6, 51:16). 뿐만 아니라, 역사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정말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교회는 세대를 거치면서 율법을 세 개의 주요한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도덕법, 시민법, 혹은 실정법, 그리고 의식법입니다. 이 세가지 범주를 간략하게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덕법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 있을 때 그에게는 도덕법 전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도덕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으로 십계명에 요약되었고 승인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영원하고 영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도덕법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바울과 다른 많은 곳에 나오는 신약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강화되고 해석됩니다. 이 도덕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실정법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시민생활에 관한 법이거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법입니다. 이는 사회정치적인 법으로서 신정국가로서 독특한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함께 종료되었으며 그 율법의 일반적인 정당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킬 의무가 없다.

세 번째, 범주는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함 그리고 분리와 정결에 관한 것에 대한 모든 율법을 가리킵니다. 성전과 성막에서 행하는 경배와 제사장과 제사제도과 같은 것들을 관장하는 율법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식법들은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을 비롯해서 그 분이 신약성경에서 행하신 사역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이어질 세번의 강의에서, 이러한 의식적 제도와 율례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의식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법들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 율법들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폐지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에 요약된 도덕법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덕법이 핵심입니다. 다른 법과는 구별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존 오웬은, “하늘의 가르침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점진적으로 드러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설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결합되고 체계화되어서 예배와 순종을 위한 하나의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이 되었고 통일된 진리체계로 교회에 제시되었다”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열 마디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34장과 신명기4장 그리고 신명기1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어로 “데칼로그

(Decalogue)”라는 단어가 온 것입니다. 데칼로그가 바로 열 마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신9:10). 이 자체는 이 십계명이 영원하며 핵심적이라는 뉘앙스를 지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이 따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신명기5:22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열 마디 말씀 혹은 십계명은 그 자체로 언약이고 증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몇몇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돌판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언약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서 5-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돌판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 즉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첫 번째 돌판을 보면 모든 계명이 예배와 관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계명은, 그 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규정하신대로 그 분을 예배해야지 우리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은, 왜 우리가 그 분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성한 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설명하는데 특히 그 분이 지정하신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첫째 되고 큰 계명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22:37,38) 예수님은 처음 네 계명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 계명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먼저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십계명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신 A.T 베르군스트 (Vergunst) 목사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신 강의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출애굽기31장과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존 오웬은, “일단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글로 표현되자 성경을 소유하게 된 유한한 각각의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못지 않게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고 구속사라는 큰 그림 속에 있는 도덕법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현대인을 위해서 도덕법이 가진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인정하셨으며 심지어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법이 영원하며 자신은 그 도덕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마태복음5:17-19 말씀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음으로, 예수님은 같은 장에서 십계명을 설명하시기 시작하시고는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왜곡하여 만든 그들의 율법해석을 논박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와 바른 의미는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지 단순히 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 율법의 요구를 강화시킵니다. 율법은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동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수여자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 귀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율

법의 교훈에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바울은 도덕법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사용하는 현실과 마주대해야 했습니다. 두 분은 율법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내가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 것이라는 생각과 같이 율법을 칭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박하면서도 우리가 율법을 모두 버리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3:31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과 도덕법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자들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시로 읊조리나이다” (시119:97)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는,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님은 그 율법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우리를 그에 합당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표현을 신약성경에서도 발견한다는 사실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로마서7장에서 바울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12절)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4절)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시편기자의 말과 같습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1:8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5:3에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쯤에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율법의 세 가지 주요한 용도를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의 첫 번째 용도는, 악을 제어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용도를 율법의 시민적 용도라고 불립니다. 율법의 선포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억제하는 영향력으로 작용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서 죄를 드러내고 양심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각성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신학적인 용도라고 합니다. 율법의 이 용도는 사람이 죄를 각성하도록 인도하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갈 3:24).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 불신자가 회심할 때뿐만 아니라 신자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계속됩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구속받은 신자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용도를 우리는 신자의 삶의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이 기능은 우리가 반드시 죽이고 피해야 할 죄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동기는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가지게 된 구속에 대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순종의 기준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율법은 억제제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며 삶의 규칙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더 많은 것을 합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며 복음은 다시 우리를 신자의 삶의 규범이 되는 율법으로 몰아갑니다. 율법과 복음은 둘 다 성경에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절대로 칭의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역사하므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시내산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구속이라는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룩

함을 따라 그들을 살아야 하는 삶의 표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성막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진리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 10

성막

강의 주제: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강의 스크립트 10

우리가 성막에 대한 묘사를 보면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지루하게 기록된 성막에 대한 모든 자세한 내용을 건너뛰고 싶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신학에 대한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성경을 주의깊게 보려고 멈춰서서 묵상하면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야 할 기쁘고 기분좋은 진리들을 볼 수 있도록 창을 열어줍니다. 재미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이 펼쳐지는 흥분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성막은 전체 성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막을 설계하는데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막의 구성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학을 알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따라야 했던 질서와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 어떤 방식으로 신약성경과 그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17세기 네델란드 신학자였던 헤르만 빙찌우스(Hermann Witsius)는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동안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 분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40일이나 걸렸다” 세상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는 성경 한 장보다 약간 더 필요했지만 성막을 설명하는 데에는 성경 여섯 장이 사용되었다. 출애굽기의 절반 정도 분량이 실질적인 출애굽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막의 설계와 건축에 대한 설명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죄악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들이 성경의 남은 부분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구속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핵심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 바람이 불 때 그와 함께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자신의 백성과 화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확신시키시면서 언약의 약속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계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임시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성막”이란 텐트를 의미하며 다른 모든 텐트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여호와와의 장막” 혹은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텐트는 “성소”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텐트는 “증거막”으로도 불렀습니다. 율법의 두 돌판은 “증거판”으로 불렸으며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내부에 있는 언약궤 안에 두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막이 성전으로 바뀔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성막은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위치했는데 성막 주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열대로 이 열두지파는 각각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성막과 진영의 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제일 첫머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25:8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언약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출애굽기29:45,46에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막의 목적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자, 여기에 유사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24:15,16에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옛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40:34에 기록된 이와 유사한 표현을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성막을 통해서 영속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막에서 발견되는 복음의 패턴과 복음의 내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를 연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이 말씀하신 규정대로만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십계명의 제 2계명을 통해서 입증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오직 내가 지정한 대로만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도덕법과 관련하여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12:32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 성경적인 율법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예배행위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신약성경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양식대로 건축되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25부터 레위기7장에 이르는 성경의 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31:11에는 다음과 같

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표현은 전체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있어서 모든 혁신과 인간의 창조성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전해주시면서 정확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신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의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 기구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부분의 공급과 배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바로 구속받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부분을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마주쳤을 순서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신학적인 주제와 구속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추적할 것입니다. 기구의 각 부분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이 따랐을 순서도 역시 복음진리를 전달해 줍니다.

첫째로 전체 그림을 보세요. 지붕이 없이 하늘로 뚫린 넓은 성막틀이 있습니다. 이 틀은 여러 기둥에 걸쳐 있는 흰색천과 휘장으로 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받침과 갈고리와 가름대 성막틀 안에는 성막이 있는데 이는 여호와 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성막틀 안에 있으면서 성막 밖에는 구리로 된 제단과 동으로 된 대야가 있었습니다. 성막 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넓은 부분은 성소였으며 가장 안쪽에 있는 더 좁은 부분은 소위 지성소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부분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일곱개의 주요한 부분만을 간단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 훨씬 더 많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성막틀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바깥쪽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분리되고 거룩하신 분임을 보여 줍니다. 그는 구리 받침과 은가름대와 고리로 결합된 네 기둥에 붙어 있는 파란색, 보라색, 주홍색, 그리고 흰색 휘장으로 만들어진 문을 통과합니다. 제사장이 그 문을 통과하여 성막틀로 들어올 때 처음으로 그가 보는 것은 구리로 만든 제단입니다. 바로 자신의 눈 앞에 그 제단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단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각각의 코너에 네 뿔이 있는 사각형 제단은 구리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제단은 금과 같은 다른 물질로 도금된 것보다 더 견고했을 것입니다. 제단에는 구리로 만든 팬과 부삽과 집게와 같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있는 불은 절대로 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를 위한 희생제사와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향해 간 곳은 바로 이 구리로 만든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대속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첫번째 요소 없이는 제사장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희생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제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사실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실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사역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늦대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늦대야에는 물이 가득 차 있을 텐데 거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의 몸을 철저히 씻었습니다. 성막에 접근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만약 씻지 않은 채 성막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이어지는 이 다음 단계는 의식적인 면에서는 세척과 정결의 필요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정결한 상태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정결, 곧 영적인 정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1:7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성막 자체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성막은 사중으로 된 천으로 덮혀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위로 볼 때 가장 밑에는 청색, 자색, 홍색의 가는 베실로 만든 천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들인 그룹들의 형상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염소털로 된 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붉게 물든 양의 가죽으로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방수가 되는 가죽으로 된 층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휘장을 지나서 성소라고 불리는 성막 안에 있는 첫 번째 방 첫 번째 구역으로 들어가

면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금으로 된 등잔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가장 먼 방향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막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왼쪽으로 가면 금등잔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등잔은 순금을 펴서 만든 단단한 하나의 조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무와 비슷한 모양으로서 가운데 기둥이 있고 각각 세개의 가지가 뻗어져 나와 도합 일곱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기에 등잔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서 어두운 방을 밝힙니다. 불을 붙이면 그 내부의 모습은 마치 지상에 있는 천국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벽과 천장에 있는 그룹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등잔대들은 요한복음 8:12에 기록된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구세주를 보여주는 빛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연인은 죄와 어두움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등잔대는 주님의 임재와 구원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밝히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가리키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건너편 성소의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진설병은 임재의 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테이블도 역시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데 그 테두리는 금으로 된 테로 둘러져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진설병 12 조각이 있는데 여섯개씩 두줄로 되어 있으며 매 안식일마다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떡 조각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주어진 영원한 약속과 예비하심을 항상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떡을 진설하는 예식은 영원한 언약으로 불렸습니다. 이 떡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당연히 우리도 살아있는 말씀이시요. 요한복음 6:35에서 나오듯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자신을 먹는 사람들은 결코 주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다섯 번째 기물은 분향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막에 들어가면 이 분향단이 성소의 가장 먼 쪽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모서리에 도합 네개의 뿔이 있는 이 분향단도 역시 순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달콤한 향을 태웠는데 오직 이것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분향단의 뿔에 속죄제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시은소 앞에서 드러지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만약 시편 141편의 시작부분을 노래한다면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향처럼 피어올라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2절)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상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8과 8:3,4은 이런 묵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분향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달콤하고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마치 향기가 휘장 안에 있는 언약궤와 시은소 바로 앞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곧 세례 요한을 구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한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났던 곳이 훗날 성전(성막이 아니라) 안에 있는 분향단 앞이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의 첫시작 부분에서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성물은 휘장입니다.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지성소를 나누는 큰 장막이 있었습니다. 분향단 뒤에 있으면서 두 구역을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막은 아주 무거운 천으로 만들어졌고 가운데 나뉘어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휘장을 옆으로 돌아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일단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성물이 있는데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지성소 자체는 4.5미터 정도되는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대속죄일에만 가능했습니다. 그 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시은소에 피를 뿌리는데 이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훗날 성전에 있던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아래에서 위로 찢으셨던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4:16에 나오는 이 구약성경의 이미지와의 관계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은소를 기억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언약궤와 시은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결국 성막 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도 바로 이곳이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 전체에서 핵심적인 곳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언약궤는 직사각형이고 그 안과 밖이 다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 그 자체만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생생한 묘사가 거기에 가득합니다. 히브리서9:4에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고 있는 황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만질 수 없었고 만지게 되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은소는 두드러져 편 순금 한 조각으로 만들어졌고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시은소의 양편에는 두개의 날개를 가진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날개가 서로를 향해서 위로 펼쳐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였는데 이는 성막 전체가 가진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시은소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보여주는 작고 일시적인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핵심적인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낮에는 자신의 임재를 구름으로 나타내셨고 밤에는 성막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소 바로 위에 머무는 불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 생활 내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멈출 때에는 그들도 천막을 치고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는데 바로 성막에서 발견되는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하시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이고 지상적인 그림입니다.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거처에 대한 참된 본이 됩니다. 우리는 성막이 땅에 천국의 그림이라는 사실을 이미 암시했습니다. 천정과 벽을 덮고 있는 각양 색상의 천 위에 정교하게 새겨진 그룹과 시은소 위에 있던 그룹 그리고 이 시은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당시 지어진 성막이 보다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위한 모델이나 견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5:9-40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성막이 견본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관계된 구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성막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처소에 대한 모델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실체에 대한 일시적인 모형입니다.

히브리서8:5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9:8,9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인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9장23, 2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10:1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것은 그림입니다. 성막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그림입니다. 구약성경의 상징들은 궁극적으로 신약성경의 실체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약의 의식들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막과 성전의 상징들은 영구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이런 의식으로 표현된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미 그것들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 구약의 의식적 상징들과 제소들과 규율들을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오류에 대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를 금하고 대적했습니다.

갈라디아서4:9에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2:17은 장래 일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4장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행전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10장에 이르는 전체 내용을 보았고 이 내용이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자들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명하시고, 규정하시고, 제정하신 신약의 예배가 제시하는 규정은 훨씬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예배의 영광은 제단이나 향이나 제사장의 섬김과 같은 지상의 상징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배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설교, 성경봉독, 기도, 시편찬송 그리고 성례와 같은 단순한 규정을 통해 우리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막은 신약성경에서 비로소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1:14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고”가 되며, 이어서 “우리가 거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리켰습니다.

또한 성막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후서6:16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은혜언약에 대한 표현이 성막에 대한 표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로운 모습을 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성취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안에서”, 곧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마18:20)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은 천국에서 성취됩니다. 이미 말했지만,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에서 성막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거처의 견본이자 모형이며 그림자이자 상(figure)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본문을 함께 비교하며 종합해 보면서 이 두 본문이 얼마나 비슷한지 살펴봅시다. 앞에서 우리는 출애굽기29:45,46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2:13로 달려가서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

성막과 이후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한 중심 장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훨씬 위대한 실체에 의해서 영원히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상징하던 영적인 진리 곧 자

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편23:6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시인의 갈망과 같이 절규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편27:4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소원은 시편 전체에 걸쳐서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보시거나 시편63편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 이런 노래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이런 노래들이 상징하는 영원한 실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노래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모임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노래하고, 하늘에서 그 분과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성막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성막의 신학적인 내용을 설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이 상징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실체를 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구약의 일시적인 상징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하늘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은혜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가올 천국에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희생제사에 대한 구약신학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구약성경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강의 11

희생제물

강의 주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의 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죄로 상실했습니다.

본문:

“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13-14).

강의 스크립트 11

때때로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과 같은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여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새롭고 낯선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면 그저 그것에 대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를 부엌에 데려다 주어서 그가 음식재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또 이 모든 재료를 다 조합했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맡고 그 음식의 맛을 보는 법을 배우고 요리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를 주의 깊게 듣는 법을 배운 후에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의 질감을 느낀다면 그 음식에 대해서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인 구약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시고 그들에게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주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의식적인 제사제도를 통한 것이었는데 이는 오감을 자극하는 생생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의 예배방식은 이렇게 피가 흥건할까요? 왜 다양한 형태의 제사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제사의 차이점이 가지는 신학적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희생제사들은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 복잡한 구약성경의 규례에 속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어떻게 신약의 복음에 관한 주제들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5:1에서 긴급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주셨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정하신 장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규례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에서 시행되는 희생제사와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를 수행하라고 명령을 주신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

다. 이 세 강의는 함께 가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제사가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제사는 다양한 때에 드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삶과 예배에 새겨진 공식적인 제사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제사는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삶과 경험에 있어서 중심적인 자리를 유지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제사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대리적 속죄를 그 모든 유익과 함께 완전히 나타냅니다. 첫째로 이 강의에서, 우리는 제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전환점이란 제가 생각할 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9:45,46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40:34,35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긴장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공하시는 해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바로 제사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의 절정은 9:22,23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적인 속죄 교리와 관련된 신학적인 용어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리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대리적 속죄입니다. 이는 법적인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를 위하여 이루어진 속죄입니다. 바로 대리적 속죄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죄사함 (expiation)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속죄 (atonement)의 한 부분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은 형벌에 대한 값을 지불하여 죄책을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화목”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화목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무지해서 범하는 죄라 할지라도 죄는 속죄를 요구합니다. 죄에 대한 속죄는 대리적 제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개념의 핵심이며, 우리가 이 강의에서 연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역사에도 핵심적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사의 준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저는 제사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각각의 구체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학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남은 구약성경 전체의 여러 곳에서 특정한 제사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서에서 이 제사들을 보실 것이고 시편에서도 이 제사들을 보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쓴 글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약 성도가 어떤 특정한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는 그 제사가 가르치는 신학적인 진리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구약성경에서 이후에 나오는 구문들의 의미를 밝혀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체적인 제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 제사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하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1:15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왜 화목제를 드렸느냐는 것입

니다. 이에 대한 답은 조금 후에 화목제에 대하여 다루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점에 대하여 제사들에 담겨 있는 용어와 신학적인 개념은 복음에 대한 신약적 해석에 대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신약성경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구약의 일시적이고 의식적인 희생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희생제사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피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제사에 관련된 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죽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짐승들은 제물로서 불에 태워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거룩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소멸하는 불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신약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29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리고 보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나담과 아비후 그리고 고라와 같은 이들에게 행하신 심판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절차의 요소들 중에 몇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언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까? 먼저 이들은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이 짐승을 검사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볼 때 이 짐승이 정결한 짐승인가? 이것은 흠이 없는 짐승인가? 예를 들어서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저는 짐승은 아닌가? 아니면 피부병이나 흉하게 망가진 부분은 없는가? 모든 다리의 길이는 동일한가? 등등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과정이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것을 바치고 있었고 이는 이 제사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말 그대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짐승은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백성들이 어떤 짐승이 비싼 짐승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참된 희생제사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음, 저 귀한 걸 아무개에게 주다니 저 사람이 진정으로 희생했군”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종교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검사할 때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 예배자가 값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경솔하게 그 분께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책망을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흠이 없는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주어지고 검사를 마치고 난 후에 둘째로, 제사장들은 손을 짐승들 위에 얹었는데 단순히 접촉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압박을 가해서 이를 테면, 한 손을 짐승의 머리에 의지하듯 눌렀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믿음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자신을 짐승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죄가 상징적으로 그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짐승이 그 예배자를 대신하는 대속물이며 그를 대신하여 속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자신과 동일시했던 예배자는 스스로 짐승의 숨통을 끊었는데 이때 그는 죄가 죽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죄없는 대속물의 피 그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도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제사장들은 제사의 나머지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넷째로, 그 후에 제사장은 그 피를 뿌렸습니다. 레위기 17:11 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은 죽음에 대한 값을 치룹니다. 생명은 죽음의 얼룩을 제거합니다.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제단의 측면에 피를 뿌리며 제단 아래에 피를 붓는 것은 다양한 경우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때에는 분향단이나 시은소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죄에 대하여 용서함으로 죄에 대한 속죄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제사장들은 짐승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그들은 짐승의 일부분을 태우거나 전체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태워지는 과정에서 짐승은 연기로 변했는데 이것은 성경이 제단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처소로 올라가는 즐거운 향기로 묘사하는 연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그릴에서 고기를 요리할 때 나는 향기를 맡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향은 종종 주변에 있는 집까지 퍼져서 다른 집에 사는 이웃들도 그들의 정원에서 그 냄

새를 말합니다. 특히 가장 맛있는 부위인 지방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단에서 태워져야 했는데 이는 당연히 최고의 부위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제사장들은 제물을 함께 먹고 교제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호의와 특히 화목제의 경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이 사실은 언약적 약속의 심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제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가르쳐줍니다. 각각의 경우 하나님께서 친히 이 규례를 말씀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첫째로, 번제 혹은 전체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강압에 의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가는 것”,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의 상승제 (ascension offering) 로도 부르는 번제는 레위기 1장 가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번제가 경배의 실질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첫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레위기 1장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제사제도의 핵심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드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성막 뜰에 있던 제단의 이름인 번제의 제단이 이 제사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제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인데 사람들이 가져온 다른 모든 제사들은 이 제사에 더해 하루 종일 드리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번제라는 기초 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제도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번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번제는 홍수 후에 노아에게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바로 그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되었는데 바로 여기서 수없이 많은 세월동안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짐승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태워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구별되고 드러지는 것을 보여주고 상징합니다. 이는 전적인 자기헌신의 모습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졌으며 연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이 연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에서 마노도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사사기 13:20에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와 사자와 마노아의 대조적인 모습은 제사 그 자체에 대한 모습과 잘 어울립니다.

둘째로,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 제사는 소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제사에는 어떤 죽음도 피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의 일부분은 불에 태워집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우리의 인격을 받으십니다. 번제는 소제가 드러지기 이전에 드러져야 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생산된 것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유향이 보태져서 제물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소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제물 전체를 불태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말로 하면, 소제는 그 소제를 바친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러지거나 아니면 그냥 소제만 드리지만 이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사로 자주 나타나는 것은 번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구별된 헌신과 공물이 결합된 것입니다.

셋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와 친교를 상징합니다. 이 제물의 일부분은 불태워졌고 일부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먹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막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제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화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화목제가 없이는 어떤 교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제사에서 가장 비싸고 풍미가 돋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름이 필요하지도 않고 음식을 잡수시지도 않습니다. (이 사

실은 많은 곳에 나타나지만 특히 시편 50편을 보세요) 하지만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여러 면에서 가장 큰 특권이 됩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이 이 개념과 용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13-18 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가면 “화평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다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넷째,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구체적인 죄책을 용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 (expiation)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속죄는 앞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벌칙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지하여 우연히 범한 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가 심각한데 이는 모든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분의 거룩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위는 제사장들이 전임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예비된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구워집니다. 죄인은 네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회중이 있으며 통치자들이 있고, 각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속건죄입니다. 이것은 죄책 제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사는 배상과 보상을 의미합니다. 혹은 잘못된 일에 대하여 교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방금 전에 언급했던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죄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를 절취한 것을 다루는데 보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죄에 강조점을 둡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요약했는지 기억하세요.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두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죄책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일절 관용이 없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제사는 죄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위가 사함을 받지 않고 남아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제사들이 드러진 순서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성막에서의 과정에 대해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제사들을 드렸던 순서도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처음 세가지 제사는 모두 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이상적인 경배의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뒤에 나오는 두가지 제사는 속죄 곧 특정한 죄에 대한 치료책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나오는 두 제사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다시 말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른 제사보다 먼저 드려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레위기 9장을 보시면 정결을 위해서 제시된 속죄제와 보상을 다루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제사에 이어서 번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개념으로 진행되면서 다음으로 소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끝납니다. 피가 사용된 것은 속죄 곧 죄에서 깨끗이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속죄제는 상승과 완전한 성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자들이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인 화목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패턴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고 성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분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이 모든 제사들을 한데 모아서 생각해 봅시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 자체로 죄를 속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4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도들은 당시에 이미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규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되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역사의 중심이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 B.C)과 그리스도 이후의 해 (Anno Domini, A.D)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루하고 단조롭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제사가 전부 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함께 활짝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복음과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시적인 의식들은 그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심으로 성취되었을 때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표지와 그림자 곧 모형과 지시물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취의 빛 아래서 유익을 누리며 그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약에 지속되던 많은 희생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최종적으로 드리신 제사와 대조됩니다. 히브리서 9:26에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고 히 10:14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셨고 그 죄를 위하여 심판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 이 사실을 보세요. 그 분은 “흠 없고 점 없는” (19절) 희생제사입니다. 그 분은 성부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 중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온유하고 성부께 복종하는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아무런 강요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유일하고 궁극적인 대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달래셨고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의 피는 그 백성들에게 뿌려져서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5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행사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영혼이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어린양께 내려놓되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복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와 더불어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피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곧 로마서 12:1에 나오듯 합당한 (영적) 예배인 산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따르고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완전히 맡김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제사들은 화해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의 총체성을 표현합니다. 이 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의 죄책에서 시작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의 자리에 있을 대속물의 준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죄를 덮거나 속죄하는 것으로 가고 이어서 보상과 헌신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한 독서와 설교는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복음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한 시선은 심지어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사이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6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9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지정된 이들로써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강의 12

제사장

강의 주제: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지만, 그는 오직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문: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11-12).

강의 스크립트 12

어린 아이들이 보는 책과 성인들이 보는 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이 책은 책 아래부분에 간단한 몇 글자를 적어 놓고는 대부분의 지면을 크고 형형색색의 그림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성인들이 보는 책은 그림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 온통 글자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의식이 가진 체계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구약은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생생한 그림책입니다. 그림이 가득한 책은 오실 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조명과 충분한 지식 속에서 구약의 의식을 의미하는 이 그림책은, 신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숙하고 온전한 계시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 이러한 구약의 의식에 대해서 계속 살피는 가운데 하나의 온전한 패키지를 이루는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직이 가진 연결고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봉사를 했으며 그것이 복음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여러 의식적인 행사들은 우리에게 어떤 신학을 가르쳐주며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 된 이야기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자신의 대제사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호의적인 임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더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사가 필요하며, 또한 그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제사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두번째 곧 필히 제사장직이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약의 그림자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계시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모세오경을 다루는데, 이 강의를 포함해서 열 두 강의를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다른 부분이 덜 중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세오경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것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강조점들에 초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는 성경신학에 대한 과정이며, 성경의 처음 다섯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두번의 강의를 소화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저 몇 가지 주제만 간단하게 다루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제사장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흐르는 지배적인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천사들의 외침에 나타나듯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하는 표지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은 두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첫째는, 분리입니다. 최악된 것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결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과 영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제사장들과 제단과 절기와 그릇과 기름과 제사장을 위한 옷이 모두 다 거룩하다고 묘사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때 거룩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사장은 자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진 황금판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들어가는 자기 백성의 거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직은 이 준비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의 제사장직을 지정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교회정치는 신약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생각해 낸 혁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대로 수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레위기 전체에 걸쳐 분명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5:4도 역시 이를 확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무 이스라엘 남자나 제사장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로 이 직분을 한정시키셨고,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많은 가문들을 구별된 책임을 가진 다양한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물론 제사장 계층 가운데서 뽑혔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직계자손들이 담당했던 가장 존귀한 직분인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그 직무를 나누지 않았는데, 그 직무 중에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위 지파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레위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국으로 흩어졌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와 관련된 기능을 지정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연주자들, 짐꾼들을 비롯해서 제사는 물론이고, 제사와 성막과 성전의 예배의 다른 측면들과 관계된 다양한 책임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성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구별할 때 이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큰 그림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세 가지 주요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각각의 직분을 담당하게 될 때 모두 다 성스러운 기름을 부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랬고, 제사자들도 마찬가지이며, 왕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의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것을 합친다면,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은 진정 이 세 직분의 성취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축약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은, 최종적인 선지자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과 위대한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을 가리키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어야 하는 거룩한 예식복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구체적인 사항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규정된 흉패에 대해서는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사장 직분이 감당하는 한 가지 중요한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임명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흉패에는 열 두 개의 귀한 돌과 보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돌에는 그 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돌들은 흉패에 놓여 있었

고 홍패는 대제사장의 심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는 열 두 지파의 이름도 함께 하나님 앞에 두는 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는, 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심장에 자기 백성들을 담아 영원한 보좌 앞으로 갑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을 접하게 됩니다.

둘째로, 제사장들이 하는 봉사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는 선물과 헌물과 제물과 간구를 드리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의 사함을 얻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규정을 다룰 때 보았던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들도 그들의 섬김의 활동에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배에 대한 율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정하시고 명령하신 경배의 행위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전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31:11에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명한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곳에 기저에 흐르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레위기 10장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원칙을 어기는 예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1-3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심지어,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월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후의 역사들 속에서 오늘날까지 적용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대로 그 분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기도하고, 시편을 부르고, 성찬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등등을 명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의식적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규정을 주셨습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몇 가지 예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와, 매일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사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특별히 거룩한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년 세번, 곧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축제를 열고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남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특별한 시편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편들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라고 부르는데, 시편 120편- 134편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절기들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마지막 절기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의 첫번째, 거룩한 의식적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출애굽기를 다루는 강의를 통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과 유월절에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3:4-8에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 이 절기를 지정하셨습니다. 그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계속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절기의 기원은 열 가지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때 하나님은 만약 그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의 테두리에 바르지 않으면, 모든 가정의 장자를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피가 묻어 있는 가정은 넘어가셨습니다. 이 심판 속에 임한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 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올 때 서둘러 빵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일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쪽 넘어가서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 마태복음26:30에 보면,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이라는 말은 시편의 표제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들은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렐 시편을 불렀습니다. 이 시편들은 시편 113-118편에 나오는데 바로 이 절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이 시편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떠나시면서 시편 118편을 부르시고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편 118:22,23,27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땀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 상황에서 이런 찬송을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강력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비하심을 상징하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7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유월절 양입니다. 그분의 피는 자신의 백성들을 덮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32:1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때때로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도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유월절 이후 오십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로서, 그 주의 첫 날인데 훗날 신약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추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삼천 명의 영혼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성경을 다룰 때 오순절과 그 후에 일어난 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이 절기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때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성별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일을 쉬고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립니다. 아마도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을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울렸던 나팔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곧 구세주의 출생에 대한 천사들의 선언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같은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6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번째로,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절기 중에 하나로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야 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백성들은 다양한 번제와 선물과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을 추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진행되었는데, 나뭇가지로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사십 년 동안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불렸고, 이스라엘의 달력과 국가적인 삶에 있어서 중심적인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 속죄를 통해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개의 슬픔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종종 금식과 함께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자신이 평소에 입던 복잡한 예복이 아니라, 단순한 베옷을 입었습니다. 매 해,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이 예식은 두 세트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둘째로, 대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번제도 드렸습니다. 이 두 세트 사이에 아사셀 희생염소를 보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의 절정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일 년에 유일하게 그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 곧 대속죄일입니다. 그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이스라엘을 위한 염소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죽어서 그 피로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희생염소가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는 험악한 광야로 인도되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이 제사들에 관한 영적인 의

미에서도 발견했지만, 이 아사셀 희생염소에게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모습, 곧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히 8:12, 10:17)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등 뒤에 (사 38:17) 그리고 깊은 바다에 (미 7:19) 던지신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시되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옮기셨다 (시103:12)고도 합니다. 이 모든 표현은 아사셀 희생염소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제사를 예비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께 용납되고, 그 분의 임재로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절기들의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는 않았습디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향기나는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절기들의 성취로 이 절기들을 가득 채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세번째 요점인 완전한 제사장에게로 안내합니다.

어떻게 최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곧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요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27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10: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이델바르크 요리문답 12번째 주일 31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요”고 합니다. 소요리문답 25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7 강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는 레위지파의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야 말로, 지상의 제사장과 그들의 봉사와 의식적인 절기와 규례들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신약성경에서 완전히 폐지되고 그 기능을 다했습니다. 이제 기독교회에는 지상의 제사장과 예복과 제단과 분향단과 유월절과 오순절과 같은 구약의 절기는 물론이고, 그 외의 다른 의식적인 예배의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그 분의 탁월한 영광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게 하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2:17은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신약성경의 성소 혹은 지성소는 성막과 성전과 같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방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정한 성소, 곧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는 성소를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14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신약의 예배에는 이 땅의 상징이 없습니다. 이 상징은 너무나 시시하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천국 중심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약성경이 구약성경보다 그 형태에 있어서 더 단순하기는 하지만, 구약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을 가져다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 앞에서 모일 때, 신약의 예배는 매주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나 안타깝게도 그들을 따르는 어떤 개신교회에서 발견되는 제사장적 기능과 의식적인 요소를 신약의 예배 속으로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는, 사역을 영원토록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중보의 탄원을 드릴 것이며, 또한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18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15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증언합니다. 또 출애굽기 19:6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은 하나의 국가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만인제사장 교리에 나타나듯 신약성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9에 보면, 신약의 이방인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6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았던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 곧 지성소로 이 땅의 제사장이나 중보자의 도움없이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16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반면에 자신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로마서 12:1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론적으로, 이 강의는 성경의 처음 다섯권에 대한 우리의 간략한 생각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과, 그 분께 나아가는 합당한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는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험한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과 그 땅이 상징하는 유업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13

유업

강의 주제: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유산의 약속된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함을 위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본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3-4).

강의 스크립트 13

전체 과정 가운데 여기쯤 되면 여러분은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단순히 그 본문의 내용만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보다는 진리의 전체적인 경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읽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체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주어진 본문이나 이야기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분별해 내기 위해서 각각의 점들을 연결해야 하는 필요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안에서 약속의 땅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은 왜 그토록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것은 유업이라는 개념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교회에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신학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주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약성경에 전달되었습니까? 신약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주제들 위에 세워졌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 약속의 땅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이 기초적인 주제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담에게 원래 주어진 땅은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그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창세기 1:28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됨으로 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비슷하고 새롭게 갱신된 요구와 함께 새로운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이방인들의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우상을 척결하여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을 건설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를 성취하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일곱 개의 사악한 국가를 공격하고 완전히 파괴해야 했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들

은 호흡이 있는 어떤 것도 살려주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중에 어떤 살아있는 사람도, 어떤 살아 있는 짐승도 살려두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국가 밖에 있는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는 죽여야 했지만 여성들과 어린이들과 소는 살려도 되고 전리품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땅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속의 땅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1 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8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은 기대는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서 더욱 커져 갔습니다. 요셉의 뼈를 기억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이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사백 년 전에 이미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그 자손에게 약속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유업의 역할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언약적 헌신을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각 지파에게 할당된 분량만큼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분량을 자신의 지파 안에 있는 다양한 가문에게 그들이 영원히 보존해야 할 유업으로 할당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예외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 레위인들은 그 땅에서 아무런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들의 유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몇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8:1,2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족은 유업에 대한 약속은 결코 궁극적으로 지리적인 의미의 부동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백성들과 함께 하는 그 분의 임재와 같은 영적인 유업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언약이 땅에 적용된 이 상황 속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요구 사이의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믿음으로 받되 믿음에 응답하는 순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열명의 정탐꾼과 두 명의 정탐꾼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열명의 불신하는 정탐꾼과 믿음을 가진 두 명의 정탐꾼, 곧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것을 그들이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 열 명의 정탐꾼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저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사십 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고 스무 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누리지 못한 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24에 있는 갈렙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보십시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서의 처음과 마지막인 1장과 23장에는 순종의 열매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백성 안에는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인 가시적 교회와 참된 신자들인 비가시적 교회의 구분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2장과 9장과 같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중요한 신학적 원리는 남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원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이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31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2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이에 대한 한가지 예는 광야에 있었던 구리뱀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14,15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앞서 맺었던 언약의 확증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도 역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푸는데 이것은 언약의 표시이며 인장입니다. 또한 그는 길갈에서 언약의 음식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정복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만나가 그치고 옥수수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도 자신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므로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약과 그리스산과 여호수아 8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개요를 보면, 처음 12장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오고, 13-21 장에서는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등장하며, 22-24장에서는 그 땅에서의 안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곧 이 마지막 부분이 가진 중요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간략한 개요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풍성한 복음 진리로 가득찼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피성이 가진 신학적인 중요성과 어떻게 이 도피성이 우리의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배경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짜여진 복음주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리키는 것은 그 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실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다음 요점으로 안내합니다. 둘째, 성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외인이요, 장막에 거하는 체류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자신의 역할 전체에 대하여 경험할 때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낯선 사람이었고 외국인이었으며, 순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전달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본향을 잃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살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신들에게 속한 장소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막은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 온 땅의 디자인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약속된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는 그 땅의 상징을 넘어서 그 땅이 상징하는 실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약속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성경에서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1:10과 1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은 새예루살렘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 고난을 당하면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위로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시선을 그 땅 너머에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땅이 상징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이는 천국에 있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와 개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신약에도 들어와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요, 일시적인 체류자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거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에 있는 것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이자 처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땅과 유업의 약속 전체가 가지는 상징주의는 신약의 지배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4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주신다고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2,3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백성들과 영원한 약속의 땅에서 함께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

사장들과 같이 우리의 유업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24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은혜언약의 발전과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9:15) 요한계시록 21:7에서 천국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도 언약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할당했듯이 하나님은 천국에서 각각의 신자들에게 나눠줄 분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누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까? 히브리서는 이 성취도 역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히브리서 4:9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 둘 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1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병렬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에 사명을 주실 때, 그 분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두 곳에서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현재의 지리적인 땅과 그 땅이 유대인들과 교회에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잘못된 강조를 하는 바람에 신학적인 범주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땅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 원래의 상징주의가 신약에서 이루는 성취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히 구약의 땅에 대한 약속에 멈춰버립니다. 앞서 보았듯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저자들이나 모두 다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사사기와 롯기가 이 강의 주제와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성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땅을 정복했던 시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상의 왕조의 탄생을 연결해 주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순종의 열매와 함께 믿음으로 들어갔듯이 같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언약은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고 있었고 이는 그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분깃 안에 있는 사악한 국가들을 쫓아내고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요한 반응 중에 하나는 나태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이 나라들을 쫓아내는 일을 실제로는 꺼렸다는 사실과 그 나라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탐욕에 잘 나타납니다. 존 칼빈이 언급했듯이 “그들은 오직 한 부분만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지배권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상숭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부패해졌고 부도덕과 자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망가뜨리고 약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셨고 또 그들이 다른 나라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2:3과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표면으로 끓어오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들을 징책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 구원자와 사사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을 개혁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안식을 누리지만 곧 죄-하나님의 진노-징계-구원에 대한 탄원-개혁-국가의 방향을 정함-안식이라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매번 그들은 금세 자신들의 완고한 길로 되돌아가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

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는 이 표현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남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삶의 방식과 거짓 경배의 영향을 통해서 자신들이 강력한 울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14-18을 읽어 보세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신약 교회를 향해서 같은 언약적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14-18은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했던 사실 위에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구약성경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모두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또한 사사들과 구원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비하심도 봅니다. 하지만 매번 이 구원은 한 세대 정도 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원가 이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열왕기상 14:8에 나오듯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왕 곧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만을 행하며 하나님의 구속받은 왕국에 대한 통치를 받을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룯에 대해서 생각할 차례입니다. 룯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경험했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28:5 이하에 나오듯이 이는 언약의 저주가 임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과 공급이 있는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는 이방인인 모압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두 명 다 모압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그 후에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룯의 믿음과 룯의 회심이 등장합니다. 룯기는 복음 진리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강의와 관계가 있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룯기의 여러 주제들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율법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룯기를 이해하려면 율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는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두 개의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대결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5:5 이하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이스라엘 남성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의 남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그의 부인과 결혼하고 그의 형제를 위한 자손을 양육하며 이를 통해서 그의 가문에 속한 유업과 땅을 보존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는 결혼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레위기25장에 역시 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친척 혹은 구속자 혹은 가까운 친족 혹은 다음 친족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땅을 상실한 가족의 땅을 다시 재구매하거나 구속할 책임을 가진 사람인데 이를 통해 그 가족을 보호하고 방어막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룯기에 이러한 개념이 가장 분명하게 나옵니다. 친척이자 구속자를 의미하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 작은 책에 스무 번이나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책의 지배적인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제도 이면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친족으로서 구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절은 많습니다. 그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매매해서는 안되고 구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친족 구속자는 한 가족을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노예신분에서 한 가족의 일원을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것도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계대결혼을 담당할 수도 있었고 살인의 경우에는 피의 복수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피성에 대한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과 재산과 피와 이름과 한 가족의 일원의 이름과 자손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룯기가 왜 이 강의의 주제에 어울리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룯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룯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나 룯이나 보

아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친족으로서 구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이 천국에 두고 있는 이름과 그들의 영원한 유업을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업을 구속하셨고 그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있는 4장의 끝부분에 가면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많은 분들이 읽지 않고 뛰어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없는 말씀을 성경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룻기가 족보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왜 이렇게 끝나지?”하고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윗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땅과 유업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신약성경이 이 주제를 기초로 그 위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업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12 말씀을 보면 이 유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하늘 유업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사사기와 룻기의 마지막은 한 왕을 주시기 위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을 펼쳐 보이는 계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 14

다윗

강의 주제: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은 다가오는 씨앗의 약속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다윗의 미래 아들은 왕의 왕으로서 다윗보다 더 크고,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본문: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사도행전 2:29, 30).

강의 스크립트 14

어린이들은 얇고 투명한 종이를 위에다 대고 그 아래 나타난 선을 따라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그 얇은 종이를 그림 위에 둘 때 그 아래에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사용해서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베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로 그 밑에 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윗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종 다윗의 마음과 삶에 자신의 성품의 흔적을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와 왕국을 전진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것은 최악된 것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까? 그 왕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구속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나머지 부분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 시기에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발견되며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래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미래의 실재를 지시합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룧기에서 우리는 한 왕국이 부상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왕은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몇 가지 요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을 위한 준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아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최고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가 그들의 표준이 되는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그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반역적인지를 보여주었고 한 세대에 주어진 일시적인 사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왕이어야 했습니다. 룧기는 다윗의 조상이 친족 구속의 사례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속한 왕은 구속하기 위해

서 다스립니다. 시편 72:14에서 하나님의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이다”

하나님은 성막의 예배에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회개와 의의 설교자로서 그 길을 예비했으며 태어날 수 없었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 2:10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에 주목하세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은 모두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그들의 직분은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메시아적 왕에 대한 기대감은 한참 뒤로 가서 창세기 49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이 기대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발생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도 사사들에게서 다윗의 가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도 이제는 통일된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서의 시작으로 가까이 갈수록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왕직에 대한 의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좌악된 것이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2:12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7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12:19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왕을 구하는 그 자체는 좌악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구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10에서 왕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17장을 보면 한 예로 율법 그 자체도 왕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한나는 오실 한 왕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삼상8:5)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삼상8:6) 문제는 왕직이 무엇이냐는 것이 아니라 왕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닮고, 그를 통해 그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들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와 안전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공되는 안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방인의 왕들조차도 한 번도 줄 수 없었던 방식으로 주어지는 안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다윗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백성들은 반역했고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도록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맛을 보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에 따라 한 왕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 곧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다윗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룻기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다윗의 족보를 제공하고 그의 통치가 시작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베레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이 베레스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창녀인 척 했던 그의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불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문의 족보는 다윗에게 상당 부분의 이방인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잘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의 피의 십육분의 삼은 이방인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을 가지게 된 라합과 신앙을 가진 모압여인 룻이 포함됩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의 첫장인 마태복음 1장을 펼치고 이 동일한 족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부하셨을 때 사무엘상 13:14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이 본문을 취한 다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던 때로 가면 사무엘상 16:7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어린시절부터 노년이 되어서까지 언제나 목자의 마음과 전사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관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0:1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와 병렬되는 것으로서 사무엘하 5:2은 다윗에 대해 이르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고 합니다. 다윗에게서 목자와 왕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보입니까? 열왕기상 9:4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열왕기상 14:8도,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윗의 공적인 죄악도 알고 사울의 죄는 다윗에 비하면 덜 심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처음 네 계명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돌판을 범했습니다. 시내산에 대한 강의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 돌판에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돌판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시편51편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마음은 극심한 깨어짐과 회개와 새로운 순종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좋은 시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펼쳐지는 은혜언약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규칙을 세우시는 방식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인의 후손은 왕직을 가진 후손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으로 인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것으로서 다윗이 국가의 남과 북이 만나는 중심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이자 왕국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입증되듯이 신약교회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4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라” (26절)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21장에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사무엘하6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던 사건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갈망했고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왕직과 곧 우리가 다루게 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로 합병되기 위한 배경이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사무엘하7:1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대적들에게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앞으로 하나님 아래에서 안전한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은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가 오게 될 것을 그림자의 형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으로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메시아적인 보좌를 하나님의 영원한 주인 되심과 하나로 병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28:18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로 섬기실 것입니다. 그 분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그 열정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나라가 전진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다윗언약과 다윗의 확실한 자비에 계속 호소할 것입니다. 이는 은혜언약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을 믿음과 회개와 새로운 순종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언약의 핵심구절은 사무엘하 7:14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언급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그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친 아들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1:5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약속된 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 나가고 역사를 보면 다윗의 가문의 통치는 결국에는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포함된 큰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대상29:23에 있는 솔로몬의 대관식에 대한 말씀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다윗의 가문의 보좌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통해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지상에 있는 상징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롬1:3)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서 구약의 신약적 성취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요한계시록22:16)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속적으로 예언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11:1,2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신 왕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자이시며 모든 나라의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이 모든 표현은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신약은 승천하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를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행2:29)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행2:30)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72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리키며 그분의 나라에서 바로 그 통치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분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시72:8) 다스릴 것입니다. 17-19절의 마지막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황홀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보좌는 다윗의 보좌를 향해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는 다윗의 왕국의 확장보다 더 높고 탁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처음 약속된 땅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소요리문답26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굴복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행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위로 그 이상입니다. 모든 현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곧 이 땅의 모든 나라보다 더 영원하게 있을 그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고 모든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1장과 3장 등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리스도의 경험 및 특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에게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일으켜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준비와 모든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율법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통치와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 연결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이것을 또 그리스도인과 연결합니다. 이 구절들은 다른 남은 구약성경과 마찬가지로 현대 신자들에게도 정말로 적실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오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미래에 있게 될 다윗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남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역할입니다.

강의 15

시편

강의 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노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하는 영감된 노래의 영구적인 책을 교회에 주십니다.

본문: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44).

강의 스크립트 15

이 강의 15장은, 제목이 “시편”입니다. 어떤 멜로디가 여러분의 머리에 각인되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음악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 단어를 어떤 음악에 붙이면 그 단어를 암기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이렇게 음악은 효과가 좋습니다. 노래는 우리를 빛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각인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노래책을 주셔서 암기하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신약성경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성경의 중간쯤에 이 노래의 책을 두셨을까요? 시편에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있으며 그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습니까? 시편은 교회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 시편에 대해서 흥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의 의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노래를 짓게 하셨는데 이 책은 바로 이 노래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편을 오는 모든 세대의 자신의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로 성경의 정경 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편에 대해서 지정해 놓으신 목적과 시편 안에 포함시켜 놓으신 내용에 대해서 탐구해 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시편이 감당하는 역할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을 위해서 한 장을 따로 떼어서 다루는 이유입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노래의 책으로서 이 책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 책에 대한 열정이 새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시편이 가지는 중심적인 위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책이 정말로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시편이 단순히 성경의 가운데 부분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속사 전체에 걸쳐서, 시편이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 있는 책 중에서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평균 19구절마다 한 번씩 시편이 인용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신약성경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사실 만으로도, 우리가 시편과 친숙해져야 할 이유가 있지만 시편 자체가 성경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신교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시편이 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책과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농축된 형태로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율법, 예언, 복음,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포함된 모든 측면과 성경의 모든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험의 모든 부분을 비롯하여 끝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은 구약계시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대에 기록되기는 했지만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 사이에 기록된 시편도 있습니다. 몇몇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역사를 되풀이해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시편은 영감어린 노래의 영원한 교본으로서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도 시편을 부르셨습니다. 결국 시편은 예수님 자신의 노래였습니다. 사도들과 사도적인 교회들은 시편을 불렀습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시편은 교회가 사용했던 유일한 찬송가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후 몇 세기 동안 장로들은 150편의 시편 전체를 암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이 교회에서 불려지도록 계획하셨는데 이는 남은 모든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시편은 온 세상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와 독일과 멕시코와 그 외의 모든 곳의 교회들이 성경 전체를 읽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듯이 각자의 언어로 예배 가운데 시편 찬송을 드림으로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시편도 역시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일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모든 시대의 교회가 불렀던 동일한 영감된 찬양을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각각의 신자들의 삶에 활력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시편 주석의 서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도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어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감정 중에 거울을 보듯 드러나지 않은 감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께서서는 시편 속에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과 소망과 염려와 당황스러움 등 사람의 마음이 흔들 수밖에 없는 모든 감정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신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을 보면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과 두려움과 승리와 신뢰와 소망과 회개의 때와 다른 모든 신자의 삶의 경험의 순간을 위하여 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여건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그것을 노래로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신자의 삶에서 시편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로, 시편에 나오는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바실리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편은 모든 신학의 개요로서 영혼을 위한 모든 약이 비치된 약국이며 사람들이 처함 모든 상태에 유익을 끼치는 좋은 교리를 가진 백과사전이다” 이것은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했던 루터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바실리가 말했듯이, 시편에는 좋은 교리가 가득합니다.

시편에 있는 신학은 평생동안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예를 강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책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은 총 다섯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시편1-41편이고, 둘째는, 42-72편이며, 셋째는, 73-89편이고, 넷째는, 90-106편이며, 마지막으로, 107-150편입니다. 처음 네 권은 모두 송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다섯째 책은 다섯 개의 찬양 시편의 절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 저자들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주요한 저자인데 모든 저자들이 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시편1편과 2편은 두 개의 절반을 형성하면서 전체 시편의 서론의 기능을 하는데 전체 시편에 스며들어 있는 주요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1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시편2편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신자들과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의 대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여덟 개의 시편은 아크로스티크입니다. 이 말은 연속되는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120-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인데 유대인 순례자들이 순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회상하고 다시 들려주는 역사적인 시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5-106편과 뒤에 나오는 135편-137편이 있습니다. 또 회개의

시편도 최소한 14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죄의 고백을 강조하고 있는데 51편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지만 몇몇 시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오실 그리스도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메시아 시편으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42, 54, 69, 72, 110, 118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신학적인 주제를 계시하신 약간의 시편도 강조해야 합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시편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부분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장면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1장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립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 짧은 장에서 시편을 7번이나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가진 모든 측면이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있고 그리스도의 겸비와 승귀 모두가 가진 다양한 측면도 있으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분의 사역과 배신당했던 사건과 그 분의 속죄와 죽음 그리스도의 장례와 부활 승천과 통치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재판관이며 목자로서 찬양하며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가진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보다 시편에 있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내적인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시편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은 불완전 할 것입니다.

시편은 복음에 있는 구속의 적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전가와 용서와 중생과 그리스도인의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시편에는 복음을 세상의 모든 나라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은 영감된 선교사의 찬양과 같습니다. 시편67편이 이에 대한 중요한 예가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분의 속성을 비롯해서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계시입니다. 시편에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전체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통치권에 대한 찬양으로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종합적인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넘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미래를 가리키며 마지막 심판날과 다가올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요점에 관한 마지막 사항으로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영감되지 않은 찬송과 이 하나님의 노래를 구분하는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름하여 저주시입니다. 저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악한 대적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시편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왜 히브리어로 찬양이라고 불리는 이 책이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고 반대로 의인과 악인을 구체적으로 대조하고 또 축복과 저주를 다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7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찬양에 대한 첫번째 언급을 보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분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들은 대부분의 현대 예배찬송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과 그 분의 이름과 그 분의 성품과 그 분의 생각과 그 분의 방법과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인이었던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욕망과 생각과 감정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그것과 잘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림 위에 대고 베끼는 종이에 대한 비유를 기억하세요? 전체 시편에서 저주시가 가지는 위치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사항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사악한 대적들이 멸망당하도록 신자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과 의로운 자의 구원과 기쁨을 구하는 시편들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는 신자의 마음과 뜻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139:19-22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 들이니이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영감되지 않은 찬송에는 이와 같은 주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왜곡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노래를 사용했던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이 가진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완전하신 공의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

판하시고 멀하실 때 성도들이 “알렐루야”라고 노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의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노래로서 시편이 진정으로 충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점으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영감된 찬양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노래로 찬양하는데 있어서 영원한 지침으로 사용 하라고 시편을 주셨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의 찬송가이며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기초를 세 가지 요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에 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야말로 찬양에 사용되는 노래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언과 찬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배를 위한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었습니다. 사무엘하23:1,2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1:16과 사도행전2:29-31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시편90편을 썼던 모세도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헤만과 같은 사람들은 선견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9:9과 다른 곳에는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고 말합니다. 역대상25장에도,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손들이 예언을 했다는 의미인데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 들이니...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다시 조금 후에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와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백팔십팔 명이라”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의 통치 하에서 일어났던 구약의 영적인 개혁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감된 찬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대하 29:30은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성경에도 여전히 기준이 됩니다. 잉글랜드 청교도였던 존 오웬은 “모든 규례나 경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믿음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그 분이 요구하신 대로 그분의 권위가 그 명령 안에 있음을 분별합니다. 선지자의 직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또 영감된 찬양도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공중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인간이 만들어낸 영감 되지 않은 음악을 사용해도 된다는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정경에 속한 노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제공하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정경 안에 있는 영감된 노래의 완전한 저장고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용하도록 허락하신 것 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유일하고 권위적인 지위가 있으며, 하나님은 예배 중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 시편105:2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된 노래를 모아서 제공하신 것은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정경을 읽기를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외경이나 다른 어떤 글로 성경읽기를 대체해도 된다는 근거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래를 사람들의 노래로 대체해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노래를 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불러야 할 내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걸어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예배 찬송”이라고 적힌 걸표지를 가진 책을 건네 준다면 여러분은 그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가지고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규정을 주시고 내용도 정해 주십니다. 바로 성경은 읽기 위한 목적이요, 시편은 찬송을 부르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도서는 기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은

세례를 위해 주신 것이고 빵과 포도주는 성찬을 위해서 또 선포하는 은사는 설교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골로새서3:16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본문인 에베소서 5:18,19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의미하는 세 희랍어 단어는 모두 헬라이어 번역 시편의 주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종종 하나의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표지와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바울은 시편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이라는 단어를 볼 것입니다. “신령한” 이라는 단어는 노래라는 단어를 꾸미는 말입니다. 혹은 이 형용사는 세 단어 모두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 “신령한” 이라는 헬라이어 단어가 영감된 글을 의미하는 경우가 25차례나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3 장에서도 바울은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노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시편을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 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했던 교리들과 모순되기보다는 이 두 본문, 곧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5장은 다른 곳에 나오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시편은 모든 세대를 위한 완전하고 영구한 찬양의 책입니다.

셋째, 시편의 충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시편은 찬양의 영구한 지침으로서 온전히 충족합니다. 무엇이 충족한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노래에서 아무런 부족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사람이 이 시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인간의 모든 삶을 포괄하며 그 사람의 정서와 영혼의 감정도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경우에 적합한 시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시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편이 부족하다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시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22:3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셨던 노래를 노래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에서 우리는 그 분을 향해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시편을 더욱 더 의미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교회보다 시편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보고 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은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과 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나타내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종종 시편에도 잘 나옵니다. 시편141편은 분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분향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묘사가 분명합니다. 존 칼빈이 다음과 같이 쓴 것은 정말 옳은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맞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사방을 살피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찾더라도 다윗의 시편보다 이 목적에 어울리는 더 좋은 노래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성령님께서 만드시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편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마치 자신이 친히 우리 안에서 부르시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는 것과 같다고 확신합니다”

프랑스 개혁교회 성도들이었던 위그노들은 시편찬송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한가지 아름다운 예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의 글을 보면 시편 찬송 이야말로 프랑스 전역에 성경적 신앙인 종교개혁이 확산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신자들은 시편을 암송했고 프랑스 전역에 있는 마을과 도시에서 하루 종일 이 찬송을 열정적으로 불렀습니다. 이 찬양소리는 가벼운 모임이나 공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물론이고 길가를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과 밭에서 땅을 일구는 농부들과 그들의 가정 주변에 있는 다른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혁파 군대

도 전쟁에 나가면서 이 시편을 찬송했습니다. 전쟁의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의 지휘관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리를 높여 시편을 부르도록 했고 경건한 사람들이 뺨기처럼 적군을 관통할 때 시편68편의 노랫소리가 대포소리처럼 그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삶 속에 시편을 노래하는 일이 얼마나 일상적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풍성히 거했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매일 매일 그리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시편을 암기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편1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 혹은 말씀을 밤낮으로 암송하고 그 결과 얻게 되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책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평생동안 집중해서 이 시편을 연구하고 마스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용할 영감된 노래책을 제공하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노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솔로몬이 가지는 지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 16

솔로몬

강의 주제:

모든 지혜의 보화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42).

강의 스크립트 16

어떤 시대건 세상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사람을 칭송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는 귀한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죄가 참된 지혜를 뒤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은 어리석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이 세상의 가짜 지혜는 반드시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어리석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품과 본성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요?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언제 지혜로운 자에서 어리석은 자로 변신하게 되었으며 그의 변신이 이스라엘에 끼친 결과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참된 보고가 되십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서야 합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 매우 중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인식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지혜는 솔로몬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줬고 세계의 명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벽한 지혜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정상의 지혜에서 추락해서 어리석음의 심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통치기간 동안 계시하셨던 신학을 탐구할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무엘하12:24, 25에는 솔로몬이 여호와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여디야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역대상22:9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평

생 동안 평화의 열매를 누렸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전례 없는 번영을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은 솔로몬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2:2이하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어떻게 다윗이 은혜언약의 두 측면인 모세언약과 다윗언약을 하나로 합쳤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불가해한 하나님의 사역이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건과 불경건, 축복과 저주의 예시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미래의 계획, 곧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암울하게 끝났습니다. 그는 지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 어리석음으로 끝났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지혜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신명기34:9)와 다윗 (사무엘하4:20) 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솔로몬과 관련해서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열왕기상3장에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달라고 대답했던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게 했습니다. 열왕기상4:30-34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조금 후에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매혹된 사람의 예시입니다. 여왕이 발견한 지혜는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통치가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국가들은 다시 솔로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희망찼지만, 솔로몬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요구하는 것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여인들과 결혼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어긴 것입니다. 이 부인들은 솔로몬에게 악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하나님은 신명기7:3,4에 경고한대로 그가 우상숭배를 하도록 두셨습니다. 열왕기상11:1-6에 이 모든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한번 읽고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찢어 대부분을 다른 이에게 주실 것이라는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맺은 언약에 언약적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이 죽은 후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보존하여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죄는 멸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씨앗은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에 걸쳐서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왕국의 분열과 두 나라의 우상숭배에 대한 길을 닦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18강의에서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성경의 내용에 등장하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로 시선을 옮겨 봅시다.

둘째로, 신학적인 주제들입니다. 먼저 가장 분명한 것은, 지혜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지혜의 출처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며 지혜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롬16:27) 그리고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유25절)으로 묘사됩니다. 이사야 40:14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혜로우시므로 그분의 말씀도 역시 지혜를 전합니다. 신명기4:6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지혜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반면에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헛된 사상을 하며,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로마서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55장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길과 생각보다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중심이며, 그분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가운데 성경을 인생의 실제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지혜도 역시 언약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1-9장에는, 지혜가 결혼이라는 언약적 언어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녀 곧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소리치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거절하지 않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잠언2:10,16) “버림받다” 혹은 “버리다” 그리고 “잊어버리다”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선지자들은 이런 단어들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언약의 파괴는 매춘과 간음을 낳습니다. 이 주제는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지혜와 대조적으로 어리석음을 묘사하는 낯선 여인의 길에 주목하세요. 잠언7:27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떻게 그 길이 지옥과 죽음의 방으로 인도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3:1). 잠언 3:18에서는 지혜가 생명의 나무로 나옵니다. 이 표현은 우리를 다시 과거의 에덴과 연결시켜주며 미래로는 천국에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로 훈련을 받은 사람과 관련하여 히브리서12:5 이하는 잠언3:11,12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주의하세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 피하라는 부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는 부름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지혜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자신보다 심지어는 이스라엘보다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열왕기상10:23-25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라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세상을 향한 빛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를 보러 오게 될 세상입니다. 시편과 선지서들은 하나님은 이 지혜의 선물로 국가들을 오게 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강화합니다. 이 나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준 후 하나님은 또한 엄청난 자원을 자신의 백성과 왕국을 위한 유업으로 모으셨습니다. 그 외의 다른 나라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되었던 엄청난 거금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부유했기에 은은 길거리의 돌처럼 흔했고 컵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지혜는 잠언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합니다. 게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은 종교에 대한 통칭으로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존 머리 교수가 기록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경건의 핵심입니다” 신약교회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9:31에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성령의 위로 안에서 걸어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가 가지는 존경과 영예와 신뢰와 경외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몇 가지 사실을 포함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보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것이 없으면 경외함도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며 우리의 모든 활동과 행동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거짓된 신앙의 표지입니다. 로마서3:18은 불신자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경건한 두려움은 많은 선한 열매를 촉진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행동을 도모합니다. 이에 대한 예는 고린도후서7:10입니다. 이것은 또한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고

후5:11).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경건한 예배에 동기를 부여하며 우리는 시편의 다양한 곳에서 이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12:28,29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3:22,23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종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3:16에는,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라는 말이 잠언10-15장 사이의 여섯 장에서 무려 54회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포함된 참된 지혜는 복음적인 의를 생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점과 관련하여 솔로몬의 지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습니다. 잠언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신자를 교육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전체 잠언의 기초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마칩니다(1장7절과 31장30절). 그리고 지혜는 분명히 지배적인 주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잠언의 근원은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잠언은 도덕법을 풀어서 매일의 삶에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합니다.

전도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분의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라고 설득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이 점을 증명합니다. 전도서12:13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합니다.

셋째, 솔로몬의 노래 혹은 아가서도 있습니다. 아가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책인데 모든 개혁파 작가들에게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낯설다면 이 중요한 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결혼이라는 모티프는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5장이나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강렬한 정열과 질투심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며,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대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고 말합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남편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셋째, 마지막 주요한 요점에 있어서,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에서 발견한 신약적 성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범주에서 우리는 신약적 성취를 발견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솔로몬의 영광이었지만 어리석게 되어 버린 솔로몬에게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는 탁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분은 솔로몬보다 위대한 분입니다. 이번 코스의 첫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왕이 서로 주고받았던 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마태복음12:42에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 땅 끝에서 왔음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숨을 멎게 할 만큼 황홀한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을 어떤 식으로 가리키는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사야11:1,3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2:40에서 그리스도 오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린도전서1:24)로 묘사됩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저장고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2:3은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성취를 발견하는 두 번째 영역은 그리스도인과 관계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지혜는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1:20에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경쟁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3:15 이하는 세상적이고 육감적이며 마귀적이라고 표현되는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에서 온 지혜, 곧 먼저는 순결하고 평화로운 지혜를 대조합니다.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3:15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고린도전서1:17이하에서 세상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 곧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어리석다고 여기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신자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이 구원의 열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의 빛 아래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12:2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통치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의 보화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성전신학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강의 17

성전

강의 주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보다 영구한 거처를 세우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와 그 분이 시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실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본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22-23).

강의 스크립트 17

여러분이 자동차로 현대의 도시로 접근할 때 특별히 이 도시가 대도시라면 멀리서 지평선 위에 솟아오른 높은 빌딩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 여러분이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 빌딩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거기에 도착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날 때 점점 다가갈수록 그들은 멀리서 그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을 수 있고 성에 접근해 갈수록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분이 자신의 백성들 중에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참으로 웅장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건축구조물이 가진 아름다움과 달리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가장 높은 장소였던 성전 산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양의 금으로 성전을 덮어 씌우도록 명하셨기에 해가 뜰 때의 성전의 모습은 불타오르는 듯이 반짝이는 광채가 마치 작은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왜 성전이 성막을 대체하게 되었을까요? 성전과 성막은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왕국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왜 거룩함이 성전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주제입니까? 그리스도와 성전은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성전은 복음의 어떤 부분을 드러냅니까? 이제 성전은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은 신약의 교회나 현대의 그리스도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전과 다가올 천국은 어떤 관계입니까?

성전은 구약 이스라엘의 핵심으로서 그들의 귀중한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바로 성전의 내실인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삶 전체 곧 그들의 삶의 일정과 특성과 정서가 모두 이 거룩한 구조물에 매여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한 참 뒤에 일어났던 바벨론 포로기에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

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던 시간은 바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 그는 한 번도 제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하나님의 정해진 일정대로 살았고 성전의 의식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대에 기록되었던 시편137:5,6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예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자랑스런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신학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요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알아볼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성막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움직이는 구조물이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순례자로 지내고 또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만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반면에 성전은 보다 영구적인 처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왕국의 수도로 삼은 후에 그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리는 자신의 통치와 통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역대상28:9,10에는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던 열왕기상2:2과 비슷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솔로몬이 성취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전의 영광과 광채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8장에서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에 그것을 성전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봅니다. 언약궤를 들여놓은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국가의 안정과 확장을 의미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8:29에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물며 자신이 지은 집은 더욱 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상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와 죄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성전은 여러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듣고 그분의 집을 향해 찬송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8:43은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비록 성전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예술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율법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마음대로 고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역대상28장에 보면 성전에 속한 부요함은 물론이고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가 영감받은 모든 것” (대상28:12)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대상28:19)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지정하셨습니다. 열왕기상6-8장에는 성전을 완공하는데 칠 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단한 광경으로서 있었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보는 이마다 숨이 멎을 정도였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면서 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황폐해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호의로운 임재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추방된 상태에서 돌아온 요나에 대한 강의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다른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은 이전의 성전의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모습의 새성전을 볼 때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습니다. 에스라3:12,13장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합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전의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신학 사이에는 분명히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 그 규모와 영광에 있어서 훨씬 웅장했지만 기본적인 목적과 개별적인 구성요소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막에 대한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와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살펴보기를 권면합니다. 대신 이 성전에만 해당되는 몇 가지 신학적인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에 대한 모든 것에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는 장소입니다. 시인은 시편138:2에서 이를 증언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성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집입니다. 열왕기상9:3,7에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신학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일정 부분 복음서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전정화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2:15,17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니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드렸던 헌당기도에는 성전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기도는 열왕기상8장과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언약과 속죄와 중보와 불순종으로부터의 용서와 회개에 관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바로 이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기도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과의 구원적인 교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요점들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는 솔로몬과 구약의 신자들을 열왕기상8:23에 나타난 결론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는 크고 무겁고 아름다운 휘장이 있었는데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내실을 나머지 온 세상과 분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휘장은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드러진 속죄하는 제사의 필요성으로부터 분리된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은 찢어져서 열렸습니다. 마가복음15:37,38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직접적인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10:19-22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주변국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솔로몬에게 굴복하여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15장에 바로 이러한 확장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솔로몬에게서 실현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시편72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물을 모아서 자신의 집과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구원의 전개가 바로 세상과 역사의 중심입니다.

머리 속으로 빨리 앞으로 가서 신약시대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알려진 가장 먼 곳까지 이르는 도로를 건설했던 로마제국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적절한 때와 장소에 그 도로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 도로는 더욱 위대한 그

리스도의 왕국의 전진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제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요. 오늘날 선교사들은 비행기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세계로 가지고 갑니다. 비록 우리가 거리나 국가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신학에 대한 이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복음과 자기 왕국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의 시대에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게 위해서 모든 자원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이 요점에서 마지막인데, 바로 성전이 에덴동산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태초에 있었던 그 동산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다가올 천국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동산의 이미지가 성전의 구체적인 사항과 디자인에 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덴동산과 성전은 둘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셨던 낙원에서 사람이 쫓겨났던 타락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친히 제사와 구속을 예비하심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전의 성막은 이 언약적 약속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에서 더욱 풍성하게 표현됩니다. 천국에 있는 성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곧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는 신약에서 이루어진 성전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성전신학을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전도 하늘의 영원한 실재에 대한 패턴이며 그림자입니다. 곧 새 언약 아래서 오게 될 더 큰 영광 가운데 성취될 것을 가리킵니다. 앞선 강의를 통해서, 배운 대로 이러한 구약의 의식들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전과 성전의 상징들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이 미리 제시했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구약의 성전이 상징했던 신약의 실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네 곳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2:19-21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삼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인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잠시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골로새서2:9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하고 충만하심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가장 충만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신약의 성취는 교회에서 발견됩니다. 교회도 역시 성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 가운데 거하시므로 이 사실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1장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이를 걷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자,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촛대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촛대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1장에서 우리는 촛대가 교회의 상징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16:18을 기억하세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히브리서3:6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써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편118편에 약속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의 백성들은 그 분 위에 지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 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2장 마지막 부분인 20-22절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교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본문에 모든 조각이 다 등장합니다. 각각의 신자는 이 집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2:5에는,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 그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이 가졌던 세상적인 영광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18:20). 우리의 예배는 하늘에 있는 보좌의 방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는 설교와 성경읽기와 기도와 시편찬송과 성례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신약적인 성취는 교회에서 두 번째로 발견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입니다. 각각의 신자도 역시 성전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3:16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6:19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16에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롬6:13).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고린도전서6장과 고린도후서6장을 보면 이것은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거룩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별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신약에서 성취된 네 번째 영역은 천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천국에서 만나게 되고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시는 거처인 성전의 최종적인 성취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21:22,23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구약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21:27에 나오듯 부정한 것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성전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천국에는 이 땅의 그림자를 대체하는 천국의 실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보다 영구한 거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와 그 분이 시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솔로몬 이후 시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져서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예루살렘과 성전으로부터 소외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소외되었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강의 18

왕국

강의 주제:

왕국이 분열된 후,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14,16).

강의 스크립트 18

어린이들은 강력한 왕이나 아름다운 성이나 광활한 왕국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웅들과 승리와 패배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장엄함을 느낍니다. 또한 위대한 왕국의 흥망성쇠에 관련된 뒤얽힌 길을 추적하는 일은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국가들은 역사의 주된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백성의 중심에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구속에 관하여 전개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주변을 돌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목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윗과 여로보암은 이 긴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분열은 치유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될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대면하시는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었습니다? 분열왕국 시기에서 비롯되는 신학적인 주제들은 어떻게 신약성경으로 전달될까요? 이 시기는 그리스도 오심과 함께 오게 될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역사의 남은 시기에 대하여 이 시기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우리가 구속역사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어떤 보조수단이 있습니까? 이 강의의 범위는 구속역사 가운데 솔로몬 이후의 왕국의 분열에서 유다의 바벨론 포로시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인 이 역사 (history)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학의 요점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동일한 시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을 연구하고 그 신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을 주게 될 몇 가지 제안들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약속의 땅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두 왕국으로 나뉜 후 두 개의 병행하는 왕

조가 생겼습니다. 만약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한 연대표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각각 어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나라에 예언했던 시기는 언제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의 연대표에 추가하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과 같은 역사서 안에 있는 내러티브를 읽는다면 반드시 언제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 연대표를 참고하세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이 강의과정을 통해서 구속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 곧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왕국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연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혹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에 나타난 그분의 계시를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체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경의 신학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대단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에 있는 역사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연구는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신학과 결합되어서 특히 선지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연구와 이해에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유대인들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인식해야만 하는 이 다섯 권의 자료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영향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연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어느정도 익숙해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지도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지도는 우리가 두 왕국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포함된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동안 이 제안을 따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제 우리의 관심을 이 역사적 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해야 하며 또 그러기에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16:7에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왕상14:8)고 말씀하십니다. “나(하나님) 보기에” 라는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다윗은 경건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다른 왕도 일어나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반복적으로 다윗과 여로보암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18:3에 나오는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성경이 불경건한 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열왕기하13:2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모든 불경건한 왕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다윗에 대한 언급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경건한 왕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이름은 자주 언급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 부분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왕들과 불경건한 왕들이 구별되는 기준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불행하고 끔찍한 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난 분열은, 남쪽의 두 지파와 북쪽의 열 지파의 분열이었고, 이스라엘의 신정정치에 회복할 수 없는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약속의 땅은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쪽 왕국의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북쪽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열왕기상11장에서 직접 행했던 배교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12장에서 보듯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강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분열에 썩기를 박아 더 깊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쪽의 열 지파는 반역하여 따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12:16에는 다음과 같은 불길한 말씀이 나옵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과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이 말인 즉, 그들은 하나님과 그 분과의 언약에서 자신들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에 필연적으로 담겨있는 의미에 주목하세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언약을 철회하고 던져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언약의 규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같은 장인 열왕기상12장의 후반에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급격한 영적 타락의 시작이었고 결국에는 앗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여호와와 신실한 종이 없었습니다. 예후가 그나마 가장 거기에 가까웠지만 그도 역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열왕기하7장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고집한 결과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말은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남쪽의 유대인들은 북쪽의 이스라엘을 혼혈 이방인들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혼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4:9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 유다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했던 영적인 배신의 길을 걸었고 동일한 결과를 맞보아야 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유사했습니다. 앞으로 유다의 포로와 회복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유다의 여덟 왕은 어느 정도 신실한 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열한 왕은 전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워졌으며 특히 므낫세의 통치시기에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하21:2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끔찍한 우상숭배를 하였고 언약의 씨인 자녀들을 불에 태워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므낫세는 인생의 마지막 이 년 동안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에게 미친 악한 영향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의 포로기간 동안 예언을 했던 에스겔의 예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37:16,17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막대기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이 사라지는 것은 사도행전1:8에 나오는 대로 오직 새 언약 안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2:14이하에서 두 지파 사이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치유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으니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인도합니다. 첫째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세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중보자 또 하나님과의 결합을 이루는 은혜언약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를 의미하는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이후의 역사는 대체로 이 세가지를 모두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핵심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대면하시는 첫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불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 지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들의 악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배적인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계시를 탐구하는데 시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는 마음과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있는 것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상이란, 우리가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따르거나 하나님 자신보다 더 앞세우는 모든 것입니다. 우상이란, 어떤 신일 수도 있고 참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형태의 예배의 순결한 모습에서 떠나 만든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처음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함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12장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북이스라엘에 따로 제사장과 산당들과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도시들과 거룩한 성일을 제정하고는 따로 독립된 형태의 예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의 중심에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12:28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친숙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32장이 기록하는 사건으로서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의 재현입니다.

자, 다시 율법으로 가 봅시다. 율법의 제 2계명은 모든 형태의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적인 예배에 대한 율법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4:15,16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만든 모든 형상을 금하셨습니다.

더 이른 모세시대의 말씀인 출애굽기32:4과 여로보암시대의 열왕기상12:28 모두에서 금송아지는 여호와와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형상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 대한 모든 형상도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숭배의 죄는 남은 왕들에게서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했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42:8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우상숭배가 가져온 한 가지 중요한 결과를 지적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것을 닮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요점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115:4-7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등등입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이 8절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을 닮아가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경우 우리가 섬기고 닮아가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 우상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파괴했고 그 결과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왕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여러분이 읽은 것과 신명기28장과 레위기2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비교해 보시면 이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실제로 각각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넷째로, 이 사실이 어떻게 신약성경으로 이어져서 신약적 발전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영구한 우상의 공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교훈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출애굽기32장의 사건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10:6,7에도 나오는 것을 봅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

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경고는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울립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고린도후서6:16,17을 기록하면서 언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요한은 자신의 첫번째 서신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일5:21). 그러므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과 자신의 율법의 거룩한 기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우상숭배에서 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물론 이 형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초점이 되십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명한대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3:18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8:29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어떤 형상 곧 하나님이나 다른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형상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된 축복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약의 분열왕국 시기에 나타나는 한 왕과 그 다음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왕들은 매번 약속된 위대한 왕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 위대한 다른 왕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를 잇는 궁극적인 상속자로 신약성경에 그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우리는 그 분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메시아이므로 그 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하신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최초로 실패했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실패했던 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천을 묘사하고 있는 다니엘서7:13,14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본문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 사건 전에 나오는 다니엘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묘사하십니다. 다니엘2:44에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2장과 7장에 나오는 이런 본문들은 마태복음2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명령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구약의 역사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왕국이라는 주제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보다 뛰어난 왕이시기에 그분의 왕국은 모든 나라보다 탁월합니다. 그 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11:15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또한 요한계시록21:24장에는 열방 가운데 복음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과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왕 곧 우리가 구약을 읽는 내내 그렇게 기다리는 약속된 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과 같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처음 했던 기도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외치는 기도로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상8:60은,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합니다. 시편67편은 여전히 우리의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하시기를 구하고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았듯이 왕국이 분열된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그 역사와 신학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예언적인 메시지 곧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19

예언자

강의 주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불러 심판을 선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섬기시는 구주를 바라보라고 부르셨습니다.

본문: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 (히브리서 1:1-2a).

강의 스크립트 19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메시지는 마이크를 통해서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 마이크 자체는 아무런 메시지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의도하는 청중들의 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나오는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는 절대로 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짐을 그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담대하고, 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감된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섬겼습니다. 이 영감된 계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과 더불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지자였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주신 직분이 가진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주요한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관련하여 그들이 수행했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에 관해 앞선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약성경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에 대한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바로 전 강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기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직의 지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데, 우리가 바로 전 강의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은 시기의 유다와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강의에서는, 그들의 포로상태를 둘러싼 예언적 메시지와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으로 말하는 대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감된 입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와 예언을 오로지 미래의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지자를 너무나 좁게 정의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당대의 세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마다 그들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은 파수꾼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다시 외치고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약속과 의무로 다시 돌아오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11:6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모든 성경적 언약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에덴동산에서 맺었던 행위언약과 노아언약과 모세언약과 다윗언약으로 돌아가는 외침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언약과 다윗언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은 영감된 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보았듯이, 여러분들이 예언서와 역사서와 시편에서 그들의 예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영감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처음 예언할 때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이전 말씀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지서에서 발견하게 될 연결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민수기12:6,8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언약을 하나님에게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기초 위에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던 구약의 두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여러분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5:17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목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좀 더 뒤로 가서 마태복음22:40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13:15, 27은 매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에 대한 율법을 읽고 설명하는 일이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와 위협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13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만 골라서 했습니다. 예레미야6:14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미가3:5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요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전 강의에서 제가 드렸던 조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선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을 잘 알아야 하는데 특히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지 아니면 남쪽 유다 사람들인지 그것도 아니면 앗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 외쳤던 나훔선지자나 에돔에게 말했던 오바다 선지자와 같이 이방인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들과 그들이 섬겼던 시대를 바로 연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조각으로 나뉘어진 구약의 신학을 하나로 만드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초기 선지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엘리야, 엘리사와 다른 선지들을 비롯해서 이사야, 호세아, 미가, 아모스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신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과정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은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 그 분에 대한 계시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줄 그들이 알리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구절이 에스겔서에서만 70회 이상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섰던 유명한 이야기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상18:37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선지서 전체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40:9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사야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장 전체는 여호와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강의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모든 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며, 순종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경우 당할 결과에 대한 경고도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어둡고 우울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고 계셨는데 하나님께 도전하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심판의 경고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도로가에 “전방에 다리가 끊어졌습니다”라고 운전자들에게 경고하는 네온싸인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짜증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마운 경고문구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자비롭게도 사람들을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이 신학적인 요점에 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요나가 이 메시지를 자기 백성의 원수에게 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회개합니다. 요나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한 후인 4:2 말씀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심판의 메시지는 자비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14:25로 돌아가 봅시다. 요나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셨던 역사를 그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신학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예언적인 경고가 니느웨에게 자비로운 결과를 주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선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33:11을 통해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이 시기에 가장 자주 저질러졌던 범죄인 우상숭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꽤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요점입니다. 선지자들은 우상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언약적 표현입니다. 결혼의 이미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창조 때에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내산에서 율법 곧 십계명이 수여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되고 제일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철저히 사랑하라고 하실 때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 배타적인 관계가 성립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제2계명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34:10, 14과 같은 곳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구속한 아내인 자신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와 질투어린

사랑은 그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사야는 반복적으로 다른 누구도 없고 다른 신은 없다고 언급하는 가운데 이 사항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발전시킵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면 이사야43-46장을 보시고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이것이 결혼에 관한 표현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고 버렸을 때, 그들은 끔찍한 영적인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이 주제는 선지서의 저변에 흐르고 있고 호세아서는 바로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예레미야서 특히 2장과 3장을 살펴보세요. 만약 에스겔서에서 이에 대한 소개를 발견하고 싶으면 에스겔16장, 이사야57장과 같은 곳도 보세요. 성경은 영적 침체에 대하여 영적인 매춘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백성의 신랑이신 하나님께 정당하게 속한 것을 취하는 것이며 다른 연인인 우상과 더불어 사악하고 일그러진 영적인 간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불쾌해하시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런 생생한 이미지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피하거나 약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재앙과도 같은 일이지만 그 원인, 곧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원인은 의롭고 신실하신 남편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 요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볼 것은,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역시 오실 메시야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이 기름부음을 받으신 이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박국3:13).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와 형통하게 될 한 왕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23:5). 그 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며 (사7:14)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게 될 것입니다 (사9:6). 그 분은 이새의 줄기이며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이고 신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반드시 읽어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불명확한 선지서의 본문들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들을 신약성경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하는 이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신약성경의 성취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자신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베드로전서1:10, 11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만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신명기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신명기 18:18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저 앞에 있는 신약성경을 펼쳐보면 사도행전3:22-24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신명기의 이 본문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이 나타내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기름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 곧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은 모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이신 메시야 혹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소요리문답24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직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되고 비참한 상태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신자의 삶에서 나오는 감사함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히브리서1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1절과 2절의 첫부분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납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진리 (요14:6) 말씀 혹은 로고스 (요1:1) 복음 전달자 (눅4장) 구약성경의 수여자 등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에서도 계속 선지자로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설교되는 것을 듣고, 또 성경을 노래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 신약성경에 선지자직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신약의 선지자들과 그들이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신약성경의 계시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감된 사도들과 더불어 신약교회의 기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베소서2:20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신약의 선지자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계시의 중단과 함께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직접적인 계시는 그분의 완전하고 충분하며 영감된 성경에 한정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1:19-21에서 성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보다 확실한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중인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선지자들의 위협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선지자직은 중단되었지만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거짓된 선생들은 계속해서 현대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7:15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십니다. 신약성경은 참된 신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라고 요청하는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이런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가 들리는 모든 곳에서 거짓선지자들의 가짜 메시지에 대한 책망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4:1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2:1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선생들은 보통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기에는 좋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짓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만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빛을 주장하면서 올 때 여러분은 그것이 오래된 오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연단을 견뎌낸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신조와 개혁파 신앙고백들은 이 오래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오류를 분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1:8,9은,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가르침은 반드시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5:21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사도행전17:11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요한계시록2:2에서 에베소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은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분을 보증하여 디모데후서2:15에 나오는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식에 있어서 진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코스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예수님도 마태복음12:39에 나오듯,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언급하심으로서, 신약성경에도 영적인 간음

에 대한 사상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여러 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순결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곧 이상승배에서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11:2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야고보도 역시 야고보서4:4,5에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현대교회를 위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의 이 표현이 가진 방대한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승배의 위협은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승배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은 영적인 간음의 위험에 대하여 신약교회에 경고하는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한 채로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울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불러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4:4에서 가르치셨던 교훈과 동일한 교훈을 선지자들에게서 배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음 강의에서는, 바벨론 포로에 관한 예언적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강의 20

포로기

강의 주제:

하나님의 약속은 특권을 가져다주지만, 그들은 또한 의무를 지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반항하고 언약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징계의 자비를 낳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11-12).

강의 스크립트 20

고대사회에는 신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들에게 신문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거나 혹은 그 후 신약시대의 그리스와 로마사람으로서 신문의 머리 기사를 읽고 있다면 그 기사들은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저는 그 신문의 기사들이 황제들의 궁전에서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도 있겠죠. 혹은 현재 발생한 전쟁과 외국의 전선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투 특히 그들의 나라가 영광스럽게도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과 그 외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로마제국에 복속된 새로운 땅이라는 점에 대한 간략한 기사 외에는 아무런 기사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나라들도 진정 지엽적인 변방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단지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목적을 위해서 통제하십니다. 하지만 신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나 뒤에 가서는 로마나 다른 강대국에 속한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교회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역사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앗수르와 바벨론 같은 위대한 나라를 들어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제 미리 경고하셨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개혁으로 인한 영적인 회복은 그들의 유배를 어떻게 연기시켰습니까? 이러한 개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포로기 동안 이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며 이 포로기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라도 남겨주었습니까? 포로기 동안 여전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포로기에 이르는 기간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시기는 그들이 앞서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포로에서 돌아오던 것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먼저, 역사를 약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할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31:20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고 언약을 깨뜨리면 그들은 그들의 땅에 속한 특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며 나라들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26:27-33이나 신명기28:64-67로 가보면 이러한 언약의 저주와 위협이 포함된 언약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뒤로 가면 여호수아24:19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에 관한 모든 일의 시작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남 유다 보다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고 완전히 악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와는 완전히 분리된 채 200년 정도 존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적인 경고를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BC722년에 앗수르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북쪽의 열지파는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유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북쪽 형제들에게서 교훈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는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갔고 비슷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 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대략 백년 정도 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이 그 전에 있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BC586년에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 두 나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원인은 선지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와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17:15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울레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왕과 요시아왕을 통해 진행되었던 성경적인 개혁과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포로가 되는 과정을 늦추셨습니다.

열왕기하18:3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왕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다른 어떤 왕도 히스기야가 받은 이와 같은 칭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그도 완전하지는 못했고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헌신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가장 철저한 것 같아 보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늦추기는 했지만 포로가 될 운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나라의 끔찍한 죄에 대하여 보응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들을 둘러싼 불경건한 세상의 방식으로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위한 포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70년간 안식의 휴식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죄악된 나라는 포로가 되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언약의 축복과 언약에 대한 것 말입니다. 이 역사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모세오경의 계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28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신앙과 불순종 앞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3장 시작부분에서 바울은 구약성경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특권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의 역사에서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10:11-12은, “그들” 곧 구약의 신자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전체 그 중에서도 3,4장은 현재의 불신앙과 끔찍한 결과를 거두게 될 위험에 대한 경고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포로기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은 그 당시만 큼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라들을 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선한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사용하십니다. 시편76:10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벌하셨으나 앗수르도 역시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 앗수르를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멸하셨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유다에 대하여 그들이 했던 것에 대한 징계로 찬란했던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더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이 어떻게 신약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로 다 모이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죄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는 사악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결과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에 행한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유대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사도행전4:27,28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정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주권적으로 처리하십니다.

하지만 포로기 시대의 예언들 속에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예는 많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니엘 2:7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거대한 상 (image) 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난 외국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에는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마지막으로 다리가 의미하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2:44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왕국의 때 곧 로마제국의 시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로마제국이 세력을 떨칠 때인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왕국이 서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뒷부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기 동안에도 미래에 교회와 교회 너머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펼쳐질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고 있는 예언적인 계시라고 제가 제시했던 것과 같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주제로 했던 강의에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땅의 중요성에 대한 신학적인 요점을 기억하시죠? 그 신학적인 요점들은 포로와 관련하여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만연한 불신앙과 배교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로운 임재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로기 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옮겨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이와 유사한 것은 교회의 권징에 관한 규례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실재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가시적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런 특권의 장소를 박탈하는 출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포로기라는 예언자적 시대와 신약성경 사이의 연결성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첫째, 히스기야와 요시아를 통해 일어난 구약의 개혁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할 항구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불신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를 부패시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와 동일한 과정을 다시 역으로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사를 공부하시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구약기사들의 패턴들과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 시대와 17세기의 제2종교개혁 시기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이 아주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악한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을 따라 만든 자신의 계획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범했던 최악의 악한 길을 따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 가운데 첫 네 계명인 첫 번째 돌판에 대한 불순종은 5-10계명을 담고 있는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장을 비롯해서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1장은 인과론적인 연결성에 대해 기록하는데, 첫번째 돌판을 버리면 두번째 돌판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끔찍할 정도로 비도덕적이고 죄악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보여주듯, 사람이 더 멀리 벗어날수록 그들의 삶의 방식은 더욱 더 악하고 뼈뿔어지게 되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형태의 성적인 타락과 살인자들 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하면서 하는 말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분이 정한 예배방식을 따르게 되며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에 있어서 눈에 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율법이 들려졌고, 모든 백성들의 귀에도 율법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사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신랄하게 뉘우쳤고 겸비하여 졌으며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세상적인 영향력과 우상숭배를 피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도 정확하게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개혁에 가장 우선순위가 주어졌습니다. 존 칼빈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누리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다음의 두 가지야 말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들도 포함하므로 결국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예배를 받으시도록 정해진 방식에 대한 지식이요. 둘째는,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출처에 대한 지식이다” 구약의 개혁들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좌정하시며,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충성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자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히브리서12:5-11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일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조금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죄에 대한 아픔을 느낀다면 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여기세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질책하심으로 그들을 연단하시고 또 교회의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여호와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을 떠나 죄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교정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가시와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연결점은 이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중에 일부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남은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친구들이 바로 이에 대한 예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신세라고 하는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었고 그분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갈라디아서4장에 따르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포로와 마찬가지로 신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외국인, 이방인, 순례자, 외부인, 일시체류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늘에 있는 자신들의 거처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흠어져 있는 신자들을 향해 쓴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흠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계속해서 2:11,12에서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유배지에 있지만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죄악된 길에 저항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쫓아다니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힘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대의,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선한 것을 구하는 일에 고정해야 합니다.

시편137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노래입니다.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외침으로 남아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137:5,6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포로기 동안 고난을 당했던 경건한 사람들의 경험을 생각할 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방 문화의 영향력으로 가득 찬 적대적인 세상에서 유배자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그분의 대의인 그분의 나라와 시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가가 이룩한 성취에 대하여 공공미디어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팽파레는 부수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야말로 중심이야기이며 이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와 최근의 역사를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의 빛 아래서 봅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이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신세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포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두 번째 위대한 출애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들의 구원과 귀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강의 21

회복

강의 주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더 큰 약속 안에서 구약전서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본문: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15:16-18).

강의 스크립트 21

집으로 돌아오는 경험에 비교 될 수 있는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었으면 더 그렇습니다. 집에 도착하게 되면 익숙한 광경, 소리, 그리고 냄새가 여러분을 반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집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조차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주요한 지형물이나 익숙한 모습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했던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얼마는 이교적인 주위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곳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기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 망가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이가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떠났던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슬픔이 섞인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자신들이 알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의 마음은 기뻐합니다. 시편126편을 읽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노래를 부르다가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편126:1,2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기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귀환에 있어서 주요한 지도자들은 누구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까? 귀환한 후에는 어떤 죄를 그들이 계속해서 범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경적인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학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안식일이 가진 영원한 적실성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구약의 예언에 있는 새언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 시대에 대한 우

리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21번에 걸친 구약에 대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구약역사는 두번째 출애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인의 구원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역사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터 그리고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와 같은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9:2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헌당예배에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상8:33,34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이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니엘9장의 기도는 진실로 성경의 표준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는 죄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죄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된 원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서 자신이 귀환하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는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첫 째로, 스룹바벨의 인도 하에 첫번째 그룹이 귀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영도 하에 귀환하였습니다. 에스더서는 아마도 이 두 번째 귀환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하나님의 약속의 지속적인 효력과 성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스라서에서 보듯이 이번 갱신도 역시 겸손과 하나님의 율법으로의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은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 시기에 예언을 했던 말라기의 지도 하에 이루어졌던 세 번째 귀환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하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회복과 갱신의 다른 패턴을 제공하셨습니다.

구속사의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상태에서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가셨던 가장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였을까요? 정답은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구하려고 데려가셨고 그 왕국을 보존하셨는데 이는 오실 메시아로 가는 길이 여전히 열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왕은 수백 년 후에 약속된 대로 나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둘째로, 이 시기의 신학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신학의 몇 가지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주요 목적을 이루고 앞 강의에서 본대로 자신의 구속을 펼치기 위해서 섭리가운데 전 역사의 과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유대인들이 유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칙령을 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자신의 종이며 동시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시온에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왕의 지위는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잠언21:1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 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의 과정을 조정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셨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셨으며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옮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 백성들의 마음과 삶에 여전히 동일한 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

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구약의 첫부분에서 발견했던 동일한 많은 죄를 여기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세요. 예를 들어,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셨던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뒤로 한참 가서 창세기6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때 이후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봤습니다. 또한 그들이 타락한 예배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 결과로 오는 모든 종류의 죄를 함께 거느리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라기는 그들의 외적인 신앙의 형태가 왜곡되었고 뒤틀어졌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는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자들, 그리고 타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말라기3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서 7:8,9는 두번째 돌판을 범했던 이러한 죄악들에 대한 또 다른 명확한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그들의 영적인 간음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문단에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하에 구약의 마지막 개혁이 있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정확하게 동일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은 율법을 읽으면서 시작되고, 죄에 대한 각성을 가져오며, 백성들이 회개하고, 세상과 분리되며, 하나님의 순결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순결한 예배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예로서 안식일의 역할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내용을 느헤미야에서 읽습니다.

특히 느헤미야13:15이하입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음식을 사고 팔고 상업적인 거래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외부인들에게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대면하였고 행정관으로서 예루살렘 내부와 근처의 모든 장소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13:18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있게 되는 앞선 심판의 한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시작과 마지막을 연결하고, 신약에서의 연속성을 위한 전례를 마련하기 때문에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안식일은 창세기2:2,3에서 창조의 규례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타락보다 먼저 일어났으므로 죄와 구속과는 상관없이 항상 적실성을 가집니다. 안식일은 결혼, 일, 그리고 번식과 같은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폐지되지 않듯이 안식일 제도도 폐지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주의 바로 그 구조 속에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안식일의 중요성을 명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는 출애굽기16:22-30입니다. 아담의 때에서부터 십계명 속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승인이 주어질 때까지, 안식일 준수의 흐름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십계명에 새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20장과 신명기5장에서 보시듯, 이 계명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러한 명령들은 본성적으로는 도덕적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영으로서 모든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표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5:17-19에서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이 모든 시간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통제합니다.

칠일 가운데 하루를 따로 떼지 못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범죄하며, 간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것만큼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정통치 하에 있는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한데 대한 벌은 사형입니다. 출애굽기35절과 민수기15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논박할 것도 없이, 여호와께 대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구약에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것이 신약에서는 죄로 여김을 받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딱 고정되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도덕법을 범하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도 동일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사야58:13,14에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일상적인 일과 오락을 멈추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루 전체를 공적이고, 사적인 예배, 곧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활동에 쏟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듯이 안식일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자비의 일은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안식일 개념을 마주하셨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원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훼손되는 곳에는, 항상 영적인 쇠퇴가 있으며, 성경적인 개혁은 항상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역사적 시기에서 얻은 신학적인 진리들이 지금도 적절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을 강조해왔습니다.

셋째, 구약역사의 이 마지막 최종 단계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구속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안에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두번째 출애굽이 가진 불충분성은 뭔가 더한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4:2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5절) 신약성경을 펼쳐보시면 이 예언이 거의 400년 후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구약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준비를 해야 할수록 선지자들의 시대가 전체적으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가올 새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새언약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제공합니다. 구약 혹은 옛 언약과 새언약의 차이는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시행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본문은 예레미야31:31-34입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부분적인 이유는 히브리서8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은 새 언약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과 그 이전의 언약 사이에 있는 연속성입니다. 이 언약은 동일한 사람들, 곧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같은 율법, 곧 지금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같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며 또 우리가 한참 전에 배웠던 언약의 핵심인 약속도 같은 약속입니다.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이 둘 사이에 있는 연속성과 연결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새로운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내적으로 적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하고 충만한 용서를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상징이 아닌 실제적 용서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3장에서 새 언약이 가진 더 위대한 영광이 옛 언약이 가진 영광보다 더 탁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히브리서8-10장은 이 사실에 대한 기초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이 가진 탁월성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죄의 사함을 위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이 새언약을 승인 하십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1장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36:25-27은 정결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끗한 물을 뿌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주어질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새 언약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가올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성경이 예언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더 충분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잠깐 멈춰서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점을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 둘은 서로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기초가 되는 구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없이는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을 해석할 때에도 신약의 성취의 빛 아래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연속성, 동일성, 연결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구과정을 지나면서 보았듯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3:15에서 시작되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확장되어 새 언약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의 은혜언약에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본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구약과 신약은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바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과거의 이단들이 반복해서 가르쳤던 아주 파괴적인 오류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에서 변하지 않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 둘 다 같은 구세주를 계시합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와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신약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나타나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현대 이방인 신자들도 아브라함이 구속을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역사 전체에서 구원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의 장엄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도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은 두 개의 다른 시행체제 아래에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약속된 대로 신약성경에서 교회 이방인 신자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연속성에 대한 이 모든 요소는 성경 전체가 기독교 성경이며 우리는 이 전체 성경을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에 대한 계시로 알고 반드시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둘째로,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가운데 불연속성에 대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와 신약과 구약에서의 은혜언약의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다른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미리 예언하고 신약은 그것을 성취합니다. 불연속성에 포함된 요소는 먼저 구약의 의식법에 관한 제도와 규정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희생 제사라는 의식적인 예배와 제단과 제사장과 같은 것들을 정결례와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을 금지하는 의식들과 함께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진 중요성도 역시 그것이 상징하던 실체로 대체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그림자들이 가리키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다시는 그림자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는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왕국의 확장되는 중요한 장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방인들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를 비롯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비율을 보면 훨씬 더 적은 이방인들이 언약과 구약의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구약이 주로 “와서 보라”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넓게 말하면 가나안 좁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정했습니다. 몇몇 외부인들도 여호와께로 와서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주로 “와서 보라” 모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가서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마28:19) 차이점이 보입니까? 이제 복음은 열방에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선교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주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들을 받은 이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과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방인 국가들은 제자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유업에 더하여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세계로 가라는 사명이 창세기의 처음 장들에서부터 계속해서 구약성경에 예고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신약성경에 맺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속성의 마지막 범주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서 오는 신약의 축복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훨씬 더 엄청난 분량의 성령 충만이 오순절에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의 도움이 없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훨씬 더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도 더 많은 확신을 누리고 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범주 안에 속하는 다른 많은 예시들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성경으로 만드는 지배적인 연속성이 있지만 우리의 연구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구약과 신약의 다른점을 의미하는 불연속적인 측면에 대한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역사와 신학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완료했습니다. 구약의 이 마지막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지평선을 너머 오실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속역사의 정점에서 계시하신 신학적인 주제들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의 22

성육신

강의 주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영광의 총만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강의 스크립트 22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을 때 기대감이 만발하여서 그 약속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할 모든 계획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낸다면 그것을 보는 순간 마침내 그들을 보게 될 것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으로 그 보고 싶은 열망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바로 구약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바로 이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계시를 보내오셨습니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분이 오시는 것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분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기쁨을 주며 마침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어떻게 연결하십니까? 기대와 성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에 대해서 복음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까? 그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지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요점을 살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는 구약을 의미하는 예언에서 신약을 의미하는 성취로 혹은 기대에서 성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될 신약에 대한 연구는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원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표시합니다. 말하자면 그 분은 축인데 이 축을 중심으로 세상이 돕니다. 사실, 세계의 대부분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리스도가 축이며, 이세상이 이 축을 통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을 의미하는 B.C.라는 약자를 사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년 수를 표시합니다. 또한 우리는 A.D.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 주님의 해”를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아노 도미니 (Anno Domini)에 대한 약어로서 그리스도 이후에 년 수를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의 전체 역사는 이 순간을 가리켰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

고 그 이후의 세상 역사는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과 그분의 오심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첫째, 저는 생각만 해도 즐거운 기대와 성취라는 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둘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구약성경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5:39)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눅24:27, 44)

신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다양한 구약의 인물들 곧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등과 같은 인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유사점을 뽑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한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와 구약의 많은 사건들 규례들 그리고 다른 모형들 사이의 관련성들도 끌어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12장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으로서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구리뱀에 대한 언급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광범위한 계시를 생각하면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는 구약성경을 아는 경건한 신자들을 구약에서 발견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2:25-26에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마찬가지로 같은 장인 누가복음2:37-38에 나오는 안나의 예도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기대가 고조되고 이에 대한 기쁜 성취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신약성경의 초반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게 이 기대와 성취를 연결시키는지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지배적인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2:10에서 천사들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그 천사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1:12 말씀을 기억하세요. 구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볼 것을 원하는 것이니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시 누가복음2:13-14을 봅시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성육신 속에 나타난 기대와 기쁨의 성취에 대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다른 하나에 주목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부를 구속하고 취하셨던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입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시편118편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25,26절을 보시면 시편118편이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세요. 또한 호산나라는 말이 시편118편에 나오는 “우리가 기도하오니 구하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찬양의 소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21:9에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병행구절인 마가복음11장, 누가복음19장, 요한복음12장과 비교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9:9에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

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62:11,12절은,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21:4에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방금 구약에서 읽었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예를 통해서 여러분은 구약에서 이와 같이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한 기쁨과 함께 이 기대가 분명히 성취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다른 구약의 본문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45편은 기뻐하는 왕의 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24편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고 말하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고 말합니다. 아가서3장에는 왕을 바라보는 시온의 딸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본문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3장, 시편96편,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성경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복음12:15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대와 기쁨의 성취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의 앞에 있으며”라는 큰 주제를 가진 이사야40장과 “너희는 시온 딸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는 이사야61:11,12 사이에 있는 연결성도 주목해 보세요. 이제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한 예로 신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22:12까지 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어서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저는 지금 기대와 그리스도의 오심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진 성취의 압도적인 즐거움에 대한 구약의 심오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에 충분한 예로서 이렇게 간략한 본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연구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보라, 보라”는 요청은 실제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그토록 큰 기쁨을 안겨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은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육체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삼위일체의 제 2위께서 사람의 본성을 입으심으로 두 구분된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지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계시는 가운데 나타난 낮아짐과 겸비를 말합니다. 소요리문답22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참된 인간의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조직신학을 공부하실 때 이 교리에 관계된 모든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과정에서는 우리의 목적에 맞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두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기간 동안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간단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1-3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과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 2위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반복되는 주제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정도의 흥미로운 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8:58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10:30-33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주목하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들

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3:14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 이름을 여러번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시면 종종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번의 “나는...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6:35)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8:12) “나는 양의 문이라” (요10:7,9)고 하셨습니다. 또 그 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요10:11-14)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14:6)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15:1이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잡히실 때 요한복음18:5,6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대명사 “그”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나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여호와를 가리키는 구약의 많은 본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본문들을 찾아 내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요한복음12:41을 예로 들면, 이 본문은 이사야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환상을 인용합니다. 이 환상은 이사야가 여호와에 대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여호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많은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 분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9:35, 30-38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인자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명칭을 다른 어떤 명칭보다 자주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 복음서에서 81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구약을 연구했으니까 구약에서 인자라는 명칭은 신성 곧 신적인 영광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의미하고 인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자라는 명칭도 역시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7장에 보면 다니엘이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과 다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 인자라는 명칭에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절정에 이르게 되면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는 공개적으로 그 분의 신적인 영광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20:28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이 교리를 펼쳐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이시며 이것은 우리가 방금 본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계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1:14과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육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를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9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 전체는 바로 이 주제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최종적인 계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하며 다른 곳에서는 (골로새서 1:15)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1:3)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사건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전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오는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셨다는 삼중직에 대한 모든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메시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최종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1:1이하에서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신 대제사장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7-10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1장이 한 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다룰 요점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감당하신 사역에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에 처음으로 나오는 주제는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죠. 그리스도는 왕국에 대한 선포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4:17은,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1:14,15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왕국의 개념은 구약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에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왕국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아담이 살았던 에덴동산입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타락으로 인하여 망가졌고 성경의 나머지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시내산에서 발전된 형태의 왕국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모세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와 선지자들이 선포한 약속을 통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분의 통치와 또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한 백성에 의해 하나님의 권위가 유지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성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세워졌고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다스림과 관계있습니다. 이 왕국은 비유를 통한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미래에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설교를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그분의 기적을 통해 나타난 것 못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 설교는 하나님의 주장과 그분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왕국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십니다. 마태복음13장을 보시면 그 비유의 모음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왕국을 묘사하신 후에 쪽정이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비싼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 모든 비유는 이 왕국이 가진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이 왕국이 역사 속에서 서서히 성장하고 확장해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왕국은 겨자씨로 시작하지만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반죽에 있는 누룩과 같아서 전체 반죽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전개될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2항은 “복음 아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가시적 교회는 이전과 같이 율법 아래서 한 국가로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집이며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일상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인용했던 문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는 회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회개의 필요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통치인 죄의 지배와 통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돌아서는 것이며 그분의 멍에를 메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부르시고는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

라고 하십니다. 그 분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이 모든 내용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그분은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언약의 여러 측면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언약적 갱신을 의미하는 신약 혹은 새언약의 규례를 제시하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왕국과 중보자와 언약이라는 주제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약의 설교 곧 사도들과 현대 교회의 설교에도 적실합니다. 바울은 로마서16:25-27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23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연구하실 때 매 장을 넘길 때마다 사도적인 설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5:42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설교해야 할 내용과 핵심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주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고 높이 들리셔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셔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전체 인격과 그분의 전체 사역을 설교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디모데전서3:16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 성육신이 등장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영광의 총만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더 확장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23

속죄

강의 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문: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2:2).

강의 스크립트 23

세상은 영적인 실체들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장님과 같아서 불신앙의 어둠 속에 더듬더듬거릴 뿐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끔찍한 사형을 당함으로 결국은 패배한 지도자 왕, 구원자에게 있는 분명한 연약함보다 더 바보같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 어떤 종류의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멸시하는 듯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신성한 공의를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지키심을 통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는 완전한 패배로 보이지만 사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는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얻으신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1:18에서 말했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던 것들이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까요? 이 구약의 신학적인 주제들은 무슨 수로 신약성경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습니까? 왜 십자가는 신약성경과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됩니까? 속죄의 다양한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 요소들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가 지켜낸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구원의 성취의 대상과 구속의 주관적인 적용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반면에 후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대한 첫 네 강의에서 우리가 주로 다룬 내용은 구원의 성취의 대상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게 될 몇몇 강의에서는 주로 신자들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른바 우리 안에서 이루어

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균형을 가지고 서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에 초점을 맞추느라 다른 하나를 배제하게 되면 성경의 복음 메시지를 왜곡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속죄라는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라는 주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대한 계시는 창세기3:15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은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3:8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2:15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구약의 전체 역사는 이 위대한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자세하게 전합니다.

출애굽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5:7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함께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5:12에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계신 모습이 나오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21:14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는 구약의 보증 희생제사, 대속, 대속물, 구속 등의 주제를 성취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신약성경의 개념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구약의 신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으면 아주 제한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보여줍니다. 각 복음서마다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복음서가 공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그 사건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가량이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 한 주와 그분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성경의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그분의 속죄사역의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십자가 신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해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해 주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도 그분의 성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이 복음을 가르칠 때 그는 로마서 3:26에서,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명백하게 불경건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계시실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이에 대한 유일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충분한 심판과 그 형벌을 자신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두심으로서 이루어진 그분의 진노에 대한 만족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 요점과 관련하여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표현과 신학에 대해서 연구할 것입니다. 십자가 신학에 대한 네 개의 주요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희생제사 곧 제사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지배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5:2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희생제사 체계를 가진 구약성경 전체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교리의 중심개념은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대신하여 희생하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대리는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죄를 속하십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이 속죄하는 제사는 보상 (expiation)과 유효 (expiation)를 포함합니다. 이 두 개념은 중요한 두 개의 신학용어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상은 죄를 없애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1:5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효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5:8,9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죄의 이런 측면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려면 이 진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4:10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합니다.

십자가 신학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화해입니다. 많은 예 중에서 로마서5:10,11에 나오는 한 예를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해는 속죄와 십자가 신학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소외되는 것을 끝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우정과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정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안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인 셈이죠. 또한 설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5:18-20에 있는 바울의 설명을 한 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첫번째 주제는 희생제사입니다. 두번째는 화해입니다. 그러면 세번째 주제는 구속입니다. 에베소서1:7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은 우리의 구원과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자신에게로 사는 대속물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눈에 띄는 개념입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 전체가 바로 이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 장자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나 율법뿐만 아니라 룯기와 같은 책에도 나타나는 친척구속자의 개념에도 바로 이와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이르러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증으로서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한 빛을 대신 갚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신약성경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지불된 금액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10:45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노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네 가지 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노예상태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죄의 노예상태와 죄책과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와 같은 것들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2:14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3:13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역사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일서3:8에 나옵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구속받았습니다. 히브리서2:14은 “죽음을 통하여 죽

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15장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십자가 신학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며 구속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네번째, 주제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종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순종의 두 측면을 구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입니다. 이 두 용어는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을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5:21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드릴 수 있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시는 동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셨고 이를 통해 완전한 의 곧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믿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가되고 또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분의 순종의 행위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형벌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고, 자신의 백성들의 자리에 서서 그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2:8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와 십자가 신학과 관련하여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두번째 요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모든 필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네 가지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째, 희생제사는 우리가 가진 죄책과 진노라고 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적대감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우리의 문제에 대응합니다. 구속은 노예상태의 문제에 대응하고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대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신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며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조차도 자신의 백성들을 구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참된 복음의 메시지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이룬 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시편85:10에서 부르는 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셋째로, 이 강의에서, 우리는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속죄의 축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것은 자주 오해를 받는 교리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의 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과 반대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보게 되겠지만 이 내용은 속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영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자신의 백성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보다 넓은 맥락 속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잠시 이 질문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렇게 하면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복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마지막 사람에게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설교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충분성은 전혀 의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여기에 언급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속죄의 범위입니다. 이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속죄의 범위는 속죄 그 자체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단지 가상의 가능성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은 실제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보장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지는 않는다고 믿기

에 그 질문은 “누가 속죄를 제한시켰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답은 “하나님께서 속죄에 대한 한도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의 죄와 그에 대응하는 믿음의 선물이 속죄 그 자체에서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불신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의 선물을 얻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외의 남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중지불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언급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그 동일한 죄에 대한 값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 성경은 이 개별주의 (particularism)를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만 속죄를 제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이 사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서 나온 계획을 따라 친히 한 특정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7:6-8에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전체 제사제도도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속죄를 의미하는 제사들은 특정한 한 민족에게만 적용되었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에 관한 수없이 많은 다른 성경본문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52장 마지막 부분인 13절에서 이사야53장 전체에 이르는 본문에 어떤 대명사가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신약성경에서도 첫페이지부터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1:21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10:14,15에서 같은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17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바울도 사도행전20:28에서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더 많은 본문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가 전하는 주장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 다양한 가닥들을 한데 묶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고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던 존 오웬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가 말하는 내용을 잘 따라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성경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는 자신의 진노를 부으셨고 성자는 그 진노를 겪으시되 1)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혹은 2) 어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혹은 3) 모든 사람들의 어떤 죄를 위하여 감당하셨다. 이 경우 먼저 마지막 케이스가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이 됩니다. 이는 곧 “모든 사람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죄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우는 제거할 수 있다. “둘째로, 만약 두 번째 경우가 맞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택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들 대신에 당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옳은 입장이다” 하지만 셋째로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인데 “만약 첫번째가 사실이라면” 곧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형벌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라는 물음에 여러분은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대답한다. 오웬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 불신이 죄냐 혹은 죄가 아니냐? 고 묻겠다. 만약 죄가 맞다면 그리스도는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으셨거나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왜 이 불신은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셨

던 다른 죄보다 더 그들을 막아서야 하는가?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죽지 않으셨다”

여기서 오웬이 성경적인 주장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성경적인 주장이 가진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의 범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편이 자신의 부인에게 자신은 그 부인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다른 c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볼 때 자신의 신부를 위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보는 것이지 모호하고 정의되지 않은 인류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들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줄 때 그분은 자신의 구체적인 백성들을 자신의 마음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내 죄를 위한 속죄를 지키고 계셨으며 사랑 안에서 그 죄를 나를 위하여 지키고 계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과 그분의 속죄사역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은 성경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이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24

부활

강의 주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리부활을 통해 사람과 천사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며, 이를 통해 그의 백성들의 약속된 구속을 확보하셨습니다.

본문: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15:17-18).

강의 스크립트 24

성경은 우리가 장엄한 역전으로 부를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속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갑자기 뒤집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기 직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홍해를 등 뒤에 두고 서 있는 상태에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웅망스런 군대였던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는 자신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통해 건너도록 하시고는 바로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이며 얼마나 예상하지 못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구약성경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에스더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은 긴장하여 의자의 끝에 걸터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구약성경은 이런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압도하는 패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들이 살던 모든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 보겠지만 십자가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견되어 있습니까?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의 육체의 본성은 그 전과 동일합니까? 그 몸은 진짜 몸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자신을 공적으로 변호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의 구원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신자들의 몸의 부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 역사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계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치와 그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16:10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2:27-31에서 베드로는 이 본문을 시편16편에서 인용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사야55:3과 시편2:7과 함께 이 동일한 본문을 안디옥에서 한 자신의 설교에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13:30-37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본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분은 요나의 경험을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형으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12:38-40에는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사흘째 되던 날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마치 유령과 같이 몸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육체적인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못박혔던 흔적을 보여주셨으며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분의 참된 몸이었고 비록 이제 새롭게 되기는 했지만 죽으시기 전에 가졌던 바로 그 몸이었습니다. 이 몸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으며 그분의 무죄하심에 대한 확실하고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부활이 보여주었던 것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2:36에는 “그러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1:4에서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4:25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쫓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1:8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환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제기하는 불신자들의 잦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진리는 정말로 분명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는 서로 관련없는 다양한 증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들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세기에 특히 유대인에게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정말로 낮았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금지될 정도의 지위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하는 이야기를 꾸며낼리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인들은 여인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과 그분의 제자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증인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거짓말하도록 사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8:11-15에 나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한 육신을 눈으로 직접 본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5:6에서 바울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들 중의 대다수는 바울이 글을 쓰던 때에도 살아 있었으며 그러니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증언을 모으면 누구도 부활을 논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대적이었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패배하신 메시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는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실제로 부활이 있고 난 다음

에야 믿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경험은 교회의 사역과 설교를 이끌어 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과 성경적 정통진리의 핵심입니다. 사실 부활 교리는 구원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에 이 진리를 확실히 믿지 않으면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10:9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첫번째 요점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고 말합니다(고전15:17,18) 부활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해 부활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신자들이 경험한 과거의 부활 혹은 신자들이 과거에 경험한 영적인 부활입니다. 신약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이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면서 다른 측면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는지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성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연결성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제27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해서 성취된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그들의 구원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연합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정답은 사람은 본성상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 강의에서 전적 부패와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자들이 새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2:5,6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2:12,13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신자의 영혼과 구원에 역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4:25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신자들이 지속하는 죄와의 싸움은 그들이 죄를 죽이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외부의 역사에 의존합니다. 신자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아래 있지도 죄를 섬기도록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6:4-10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정서의 전체 방향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로써 영광에 대한 그의 관심사를 쫓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3:1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으며 이 부활의 능력은 그들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부활을 가리킵니다. 죄에서 죽었던 상태에서 빼내어져서 생명을 얻게 된 이를테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옮겨진 신자 말입니다.

셋째로 신자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육신적인 부활입니다. 바로 마지막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질 몸의 부활이죠. 고린도후서4:14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미래에 있을 신자의 몸의 부활의 소망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신약에서 가장 풍성하고 길게 설명하는 장인 고린도전서15장을 펼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구약의 초기 시대에서도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은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마지막 날에 땅끝에 서게 될 것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구속자를 볼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욥기19:25-27은 얼마나 아름다운 본문인지요!

이 미래에 있을 신자의 몸의 부활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에 붙어있습니다. 이 사실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과 장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부활을 얻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셨듯이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도 역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그리스도 옆에 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15:20-23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는 말하자면 계약금과 같습니다. 이 첫 열매는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으므로 그분과 연합된 백성들의 육신도 세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골로새서1:18에서 “그(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좌정하고 있다면 몸도 반드시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의 몸은 정죄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38문은 신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설명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흠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 그분은 그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모두를 의미하는 전체 인격을 구원하십니다. 만약 육신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로마서12:2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산 제사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몸, 그 손, 눈 그리고 로마서6:13이 말하듯 지금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우리 몸의 지체는 마지막 날에 일으키심을 받고 영화되어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소망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섬김 속에 있던 위협과 희생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자신의 몸이 멸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무덤에 묻혀 있는 동일한 육신이 설령 해체되고 고문당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흠과 재에서 부활하여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순교라고 하는 최고의 희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히브리서11:35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순교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육신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일으킴을 받을 것을 알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파멸과 죽음의 위협을 주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은 오늘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 분을 섬기도록 장려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관한 가장 긴 이 장을 마지막 5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여기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때때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과 같은 표현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신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곧 모든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과 은사와 은혜 등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드리고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현재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말로 변화시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한 주일의 마지막 날에서 첫날,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던 날로 바꾸신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매주 기독교인의 안식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매주 기억하는 날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제 우리는 구속사와 자신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공부에서 그분은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의 승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신 결과 중의 하나 곧 오순절에 주어진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 25

오순절

강의 주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으며 성령께서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본문: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16:13-15).

강의 스크립트 25

만약 여러분이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이 멀리 떠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더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완전히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가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요한복음14-1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떠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전혀 손해될 것이 없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구요? 바로 주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에서 오순절이 왜 중요한 사건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과 성령의 오심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있어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있어서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오순절과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신자들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과 함께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15, 16장에 기록된 소위 고별강화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곧 자신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을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16:6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18에서 보듯, 다

음과 같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도대체 어떻게 그분은 오시는 것과 가시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셨듯이 성부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26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7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는 로마의 교황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교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찬탈한 자요 그분의 대적입니다.

두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 곧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될 성령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45:7에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9에서 보듯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그리스도께 오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기간 동안 성령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지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제가 발견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놀라운 주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제 생각에 이 주제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시작될 때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물위를 운행하시듯 누가복음 1:35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마리아)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합니다.

둘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 내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사야 11:2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자랐습니다. 죄악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죄가 없고 거룩한 지혜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지혜로 성장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리스도께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고 마태복음 4:1에 나오듯이 그 후에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설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성취하시면서 나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지상사역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셨던 분은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성령입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령의 사역을 봅니다. 히브리서 9:14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실 때 그분을 지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 안에서 썩지 않도록 보존하셨습니다.

넷째, 성령을 포함해서 삼위일체의 삼위께서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역사하셨습니다. 로마서 8:11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을 육신도 살리시는 그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있어서 하신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요점을 다루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요한복음15:26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백성께 그분을 보여주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16:13-15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계속 감당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취하여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번째 요점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속사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주목할만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또 그들의 높아지신 중보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시편2편, 24편, 68편, 110편과 같은 여러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리가 가져다준 한 가지 주요한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2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대로 구속사의 이 위대한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2:33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앞에서 말했던 요점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분리해서는 성령을 바르게 알거나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가지는 교제가 우리가 성령과 가지는 교제를 결정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직 한 분 성령이 계신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많은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십니다. 에스겔36:27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이것이 새 언약 곧 은혜언약의 핵심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51:11)라고 기도할 때 구약성도들은 구원에 필수적인 성령을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충만한 사역의 모든 열매는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 전체의 사역입니다.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14:16에 나옵니다. 또 성자께서도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는 요한복음15: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8:9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최종적인 부활의 때에 이루어질 충만하고 완전한 구속에 대한 보증, 혹은, 맹세 혹은 계약금의 기능을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사역에 대한 인장과 같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성령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으셨고 성령께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서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네 번째로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3:6이 이에 대한 예가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신자를 거듭나게 하고 신자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에 적용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이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계몽시키고 신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지하고 거룩하게 하며,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은 없어서는 안 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은 결코 성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없이 말씀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말씀없이 성령만 있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말씀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3:16에 나오듯이, 성경을 영감시킨 성령도 신자들의 마음을 조명하고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도 동일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성경계시를 사용하시고 이 성경이 신자의 영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보았던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한 예입니다. 에베소서5:18,19에서 바울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와 병행하는 부분인 골로새서3:16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시편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노래하며,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으로,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에서 그리고 스데반의 사역에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6:10과 7:51절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능력과 즐거움을 상실함으로 성령의 사역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거룩하심에 대한 사랑에 불타기는커녕 죄악된 생활습관을 통해 성령의 사역을 약화시킴으로 인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현대의 은사주의 운동은 다양한 기적과 특별한 이적과 경이로운 것과 같은 성령의 특정한 은사들을 아주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독특한 은사는 신약성경에 있는 새로운 계시에 대한 표지와 확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16:20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2:22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기적은 사도시대와 연결된 일시적인 표지이지 역사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영구한 특징이 아닙니다. 게다가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혼동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은사를 분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 강의 초반에 보았듯이, 성령의 주된 사역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시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3:18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3:18은, “우리가 다 수

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합니다. 신약성경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이 열매는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속에 있는 거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로 알려져 있는 목록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령의 부으심과 신자들의 마음과 삶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조각들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설교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성자를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셨을 때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에 다른 선물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에베소서4:7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68:18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것을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에 적용합니다. 에베소서4:11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신약성경의 시기와 함께 종료되었지만 목사와 교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선물이 됩니까? 에베소서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선물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전한 교리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고린도전서 3:21,22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자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그 교회 안에 내주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의에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으며 성령께서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이 이 모든 과정의 대주제에 얼마나 잘 어울리며 전개되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라는 그 체계에 정확하게 들어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강의 26

교회

강의 주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퍼지게 하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16:17-18).

강의 스크립트 26

역사 속에서 많은 기관들이 세워졌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 위대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어서 일어나고 쇠망하는 역사를 읽습니다. 국가들이 가장 융성할 때에는 결코 패망하는 일이 없고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망하여 지구에서 사라져서 결국에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영향력과 인맥을 가진 능력있고 영향력있는 가문들은 물론이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업이나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걷게 됩니다. 오직 한나라만 참으로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고 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시들지라도 오직 한 기관만 모든 세대를 이겨낼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16:18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시간을 이겨내고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와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바로 교회가 중심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누가 교회의 회원이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참된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통치와 감독을 어떤 구조로 만드셨습니까? 교회의 권징에 속한 규율이 가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회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선물에 이어서 일어난 교회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번 코스를 통해서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거처가 되는 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의 초기 역사에 대한 영감된 기록을 제공합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도 신약성경 아래에서의 교회의 삶과 기능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 줍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앞선 여러 강의에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연속성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이 두 시행체

제 아래에서는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만 있습니다. 사도행전7:38에서 스테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마찬가지로 바울도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영광은 창세기 초기에 나오는 여러 장들과 구약 전체에서 약속된 것으로서 많은 이방인 신자들을 포함하는 교회의 확장을 포함합니다.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한 백성을 구속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한 왕국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숙고했던 구약의 주제들 중 많은 것들이 신약의 교회론에서 성취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주셨습니다. 시편118:22,23에 보면 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에베소서2:20-22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에 거하시며 그곳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14:24,25에는 불신자가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머리이며 왕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1:18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약성경의 신학을 탐구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분의 영광을 증가시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론을 포기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의를 더 이루고 그 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47에는 가장 초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신적으로 지정된 교회를 버리거나 그곳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벨직신앙고백 27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중이고 그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지위와 상태에 있던 기간에 스스로 만족하여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가입하여 한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과 훈육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순종하며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면서 교회와 연합하여야 한다.” 길게 인용했지만 이것은 역사적 개혁교회 신앙고백 가운데 하나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신약성경에서 그렇습니다. 때로 이 말은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비가시적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한 좁은 지역의 회중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넓은 지역의 교회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징을 위해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장로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구분을 시작으로 신학용어가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개의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의 교회를 두 개의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가시적인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가시적 교회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과 규례가 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중한 특권을 누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지는 않았습니. 정말로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이런 구분을 볼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2:28,29에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문구는 보편교회라는 표현입니다. 보편이라는 단어는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거 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로마카톨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보편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참된 교 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내내 살펴본 내용은 바로 교회의 본질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에 대한 신약성경의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본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머리는 로마의 교황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한 대적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왕이 시며 머리시며 모든 권세가 그 분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 하여 우리가 믿어야 하는 모든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비롯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한 많은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보다 풍성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교 회에 대해서 몇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집과 몸으로 묘사하십니다. 갈라디 아서4:26에서는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묘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건 물, 왕국,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등으로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밭,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 양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공동체로 묘사합니다. 이것들은 교회에 관 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림 중에 몇 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공부하실 때 배우게 될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신실한 시행, 둘째, 성례의 신실한 시행, 셋째, 교회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참된 교회를 거짓교회와 구분해 주는 우리들의 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이 완전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4항과 5항은 바로 이 표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교회는 역사 속에서 뚜렷이 보일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순결한 것과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라도 이런 순결과 오류의 혼합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회원권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원권의 필요성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고안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적어도 성찬명부 혹은 회원명부를 사용하는 것은 무시되어도 괜찮은 실 용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과 교리와 규율과 권징과 조직과 권위를 가진 가시적인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과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교회의 회원들은 세례를 받았고 한 지역의 가시적인 교회에 가입되었으며 그 교회에 헌신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수많은 본문들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5:13과 같이 교회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신앙고백은 반드시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역 시 마태복음10:32,33에서 이를 강조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회원들은 셀 수 있기에 눈에 보이고 구분됩니다. 종이로 숫 자를 적어서 세든 손가락으로 세든 상관없습니다.

셋째로, 신약성경은 반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이 표현은 골로새서 4:5와 같은 성경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공개적인 모임에 단순히 참석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런 모임도 따로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4:23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상과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가족이 바로 이 모든 개념의 기초입니다.

넷째로, 교회의 회원들을 알고 돌보아야 할 책임을 가진 장로들의 다스림과 감독 아래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구분 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5:3에 나오는 표현 을 보면 문자적으로 양들이 제비뽑기로 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장로들에게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씀

하는 사도행전20:28,29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이리떼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13:17은 장로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신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섯째로, 교회의 권징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쫓아낸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2장과 마태복음18장의 표현을 사용하면 말이죠. 구분되는 회원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회원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간 회원은 자신을 추천하고 칭찬하는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곱번째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명칭은 그리스도의 가시적 교회에 대한 회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교회를 집, 몸, 건물, 가족, 왕국, 도시, 양 등으로 표현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덟 번째로, 교회는 한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해 주든지 아니면 거짓을 드러내든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5장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일서도 역시 이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과 관련하여 이 강의의 서두에서 우리는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살펴보았던 가정의 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구약의 할례의 패턴에 대응하는 신약의 가정세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와 할례는 둘 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보이는 백성으로 편입된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다 은혜언약의 표지이며 인장으로서 신자와 그들의 자녀를 향한 약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유월절을 대체하듯이 세례는 할례를 대체합니다. 물론 할례와 세례 둘 다 어린이가 중생했다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는 약속에 대한 인장이며 상당히 중요한 특권을 반영합니다. 유아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철저히 해석하는 것은 이 강의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범위와 시간을 넘어 가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의 정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와는 다른 권위의 구조를 지정하셨습니다. 각각은 저마다의 권위의 상징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국가에 칼이 주어졌지만 교회에는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회초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의 관심은 구속사의 발전이라는 빛 아래서 교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바로 자신의 교회에 대한 이 통치에서 드러납니다. 예배에 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구조와 조직도 사람들이 혁신하고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열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특정한 교회의 정치를 지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이 정하신 것을 마음대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권위가 왕이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 자체의 권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권위의 출처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과 권위의 표준은 교회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권세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지 입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규율과 교리와 규칙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그 말씀을 옹호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것은 사역적인 것이지 권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양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지 그들 위에 군림하라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쇠를 받았지 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는 자유재량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물어야 하지 믿음과 교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교회의 권세를 행사할 때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섬기라고 세우신 대표자들을 통해서 행사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권세이지 교회나 교회의 직분자들 안에 내재되어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정치를 위해서 지정하시고 승인하신 것에 대한 문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권위가 행사될 수 있는 특정한 교회정치를 지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세우신 패턴에 복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정치 안에 지정하신 직분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이 주어졌는데 성경은 이것

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디모데전서3:15입니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이 만료된 이후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세 가지 주요한 직분을 지정하셨습니다.

첫째는, 목사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목사들을 설교와 가르침과 세례와 성찬의 성례식을 집행하는 책무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치리장로와 더불어 양들을 목양하고 감독하는 다스림의 책임을 가진 이들을 강도장로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말씀 사역에 관련된 구별된 부르심과 구별된 임직과 구별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치리장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양떼의 감독자요, 목양자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주교 혹은 감독과 장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분에 대한 동의어입니다. 실제로 이 용어들은 신약성경에서 교호적으로 사용됩니다. 디도서1:5,7과 빌립보서1:1과 그 밖의 다른 구절들을 보세요. 성경은 각 회중에 복수의 장로들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양들을 다스리고 감독하는 일에 관하여 완전히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교회의 권징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히브리서13:17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직분은 집사적입니다. 집사들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실제적인 사역을 돕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과부와 고아들과 같이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필요를 돕는 일을 섬기면서 이를 통해 그들은 장로들이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다른 모든 권위를 가진 지위와 마찬가지로 이 세 직분에서 이 권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살펴야 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종이 되라는 것에 제대로 강조를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목사, 장로, 집사의 세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3장과 디도서1장과 같은 곳에서 이 세 직분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명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상위의 장로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상위의 장로회에게 통치의 권세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15장에 나타납니다.

지역교회의 경우 목사와 일단의 치리장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회 혹은 콘시스토리라고 부르는 지역회중의 장로회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한 감독기관 아래 여러 지역회중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감독기관에는 각 지역교회에서 온 목사들과 장로들이 있고 이들은 노회 혹은 클라시스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시노드 혹은 총회라고 부르는 가장 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교단 안에 있는 모든 노회에서 온 모든 장로들과 목사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구조를 주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정치의 한 기능이며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권징은 일반적으로 그리스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권징 혹은 징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더 넓은 권징이라는 개념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순결과 화평과 선한 질서를 위해서 자신의 가시적 교회에 엄숙히 약속하셨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수단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가시적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어떤 회원이 교리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심각하고 추한 범죄를 범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이 있는 훈육이 건강한 가족에게 필요하듯이 신실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의 권징은 건강한 교회에 필수적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경건한 교회의 권징의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천국열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열쇠를 신실하게 사용할 때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거나 풀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천국에도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권세이기에 고린도전서5:4,5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권징을 목적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특

별한 임재는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합니다. 디모데전서5장에 나오는 것처럼 장로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이 의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지정된 견책을 통하여 그 권징을 시행하십니다.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 문단으로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6:1은 우리에게 권징의 한 가지 목적은 잘못된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디모데전서5:20은 권징은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1:20은 권징이 범죄한 사람을 교정하는 수단이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5:7은 떡덩어리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은 장 9-1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고백의 정당성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1장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는 권징에는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목적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성경의 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함께 숙고해 보았던 간단한 요점들을 통해서 볼 때 교회가 정말로 유익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요점들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적인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지정된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수단에는 말씀을 읽는 것과 노래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식과 기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교회가 주는 다른 유익은 예배를 위한 공적이고 공동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건하게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최우선순위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유익은 거기서 일어나는 목양과 하나님의 양떼들이 받는 감독과 양육과 책임입니다. 또한 성도 상호간에 하는 권면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몸이 서로를 향해서 일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서로”라는 말을 하는 모든 구절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있는 다양한 은사와 각각의 회원들이 전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공헌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퍼지게 하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신학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위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27

연합

강의 주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유익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구세주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본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1:3).

강의 스크립트 27

한 가난한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거리를 지나가는 한 부자에게 울면서 동전 한 잎만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산더미같은 빛에 짓눌려 있던 비참한 과부가 부유한 왕자와 결혼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시나리오가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사실의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채 멀리서 그 분에게 몇 가지 유익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무한한 재물을 가진 왕자와 결혼한 소망없는 과부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빛도 청산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필요할 모든 유익과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속을 성취하는 것과 그 구속을 각각의 영혼에 적용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제는 신약성경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적인 이미지를 제공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 분이 주시는 유익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에 대해서 숙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신약신학에 있는 이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감당하신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신자들이 받을 유익과 연결됩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구속을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루게 될 다음 강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복음의 심장과 같은 것이며 구원에 관한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에 있어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신자들이 받아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

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알게 되시면 이 교리가 전체 신약성경에 골고루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교리에 관한 언급이 수백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대표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분과의 연합을 통해 그 유익을 누립니다.

신약성경은 이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구를 사용하는데 이 연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은 정말로 성경에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자 안에 계신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6:56과 요한복음15:4이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일서4:13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어느 누가 모르나”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성경은 종종 이 영적인 실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안에”와 “와(함께)”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1:3-14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숨막히도록 놀라운 구절을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유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자에 대한 선택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을 지나 성령의 선물과 하늘에 속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확장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안에서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결과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존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에 접붙임을 받기 위한 복음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오는 구원을 기다린다. 이는 그분은 멀리서 나타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있는 모든 유익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 참여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신비적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 혹은 연합적인 실제 연합의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련의 그림을 주셔서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로서 교회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과 결혼하셨습니다. 에베소서5:30-32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아6:3)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두 번째 그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와 결혼한 것입니다.

셋째, 신자들은 산돌로 묘사되며,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기초로 하여 지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하고 그 외에 다른 이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신자들은 줄기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15:4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먹는 음식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고 그분을 먹습니다. 요한복음6:56에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모습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연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영적인 것이지 육

체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은 이 연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신비적이고 영광스러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27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연합은 친밀한 연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연합은 해체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한번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신자는 영원토록 그 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이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몇 가지 표현을 묘사와 이미지 혹은 예화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신자들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에 있는 이러한 연결점을 성경이 어떻게 고집어 내는지 주목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못박혔습니다 (갈2:20).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았습시다 (롬6:3).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골2:12).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롬6:5). 그분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시다 (골3:1). 그분이 천국에 거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천국에 앉았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숨겨졌습시다 (에베소서2장).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읽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역시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6장 골로새서2장 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상사역을 통해 성취하신 모든 것은 자신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로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모든 그분의 활동의 의의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까? 신자들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 주는 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육체적인 연합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청교도 존 플라벨이 말했듯이, “그리스도편의 성령과 우리편의 믿음 곧 성령의 사역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결합시키는 두 개의 인대입니다” 플라벨의 설명은 정답입니다.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도록 하는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줄은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편에서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작용을 통해 죄인을 자신과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그 영혼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동일한 무한하신 성령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들을 오순절에 대한 강의에서 배웠던 사실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인간의 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3:17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연합에 의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신자는 성령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연합됩니다. 이 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만들어 내는 줄이 가진 두 부분 혹은 두 측면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구속이 죄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답을 하면서 첫번째 답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성경본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1:7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배울 이 외의 다른 모든 것은 이 사실에서 흘러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69문의 대답은 “무형교회의 회원이 그리스도와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그들의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받는 여러 가지 유익이니 곧 그의 중재의 효능에 참여하는데서 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유익에 참여합니다. 물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택함을 받았습시다. 에베소서1:4은 이에 대해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

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과 구속의 적용에 포함된 다양한 측면들 사이의 연결성을 명기합니다. 저 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엡1:9).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고 중생했습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2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롬8:1과 대략 6개의 다른 본문) 우리의 양자됨 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해 옵니다.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본문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후5:17).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합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신자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남습니다. 데살로 니가전서4:14은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취 하시고 이를 지지하는 성경의 모든 본문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하면 이 교리가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긴 목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라는 두 단어만을 찾아보면 신약성경 전체에 서 어디를 가도 이 두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점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 성들에게 제공하시는 구속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에서 그리스도를 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전체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습니다. 존 칼빈은 자신이 얻은 유익의 옷을 입고 있는 신자에게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도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분을 구세주로만 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체를 가지든지 아 니면 그분을 전혀 가지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속한 유익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유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 를 다른 하나가 없이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참된 신자는 거룩함에 있어서도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구속사에서 보증된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로마서8:29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자,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의 증거도 없고 경건에 대한 어떤 열매도 없는 그런 경우를 가끔 접하게 될 텐데 이것은 그들의 마 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경고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 나님의 존전에서 받아주실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질거야”라고 말하면서 그전에 살던 것과 똑같이 살 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유익들 중에 하나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자신을 위하여 흠도 없 고 점도 없이 드러지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것이 다 이 유익에 속합니다. 교회는 그리스 도의 몸이며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의 교제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의 교제는 연합에서 비롯됩니다. 주 예 수님과 의 연합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3:24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 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와 의 연합은 신자와 주 예수님이 서로 교제를 시작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교제가 지속되도록 합니다. 두 개의 성례 식은 이 복된 연합과 교제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12:13을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세 례와 성찬이라는 두 성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28:19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6장에서 바울은 세례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관계를 긴 설명과 함께 발전시킵 니다. 이것은 신자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것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통합되는 것을 나타 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속한 특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만찬은 주로 영적인 양육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0:16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축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이 지정된 은혜의 수단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영적인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여기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역사와 구원의 중심에 둡니다. 상상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모든 유익과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쌓여 있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유익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구세주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구속의 적용에 속한 구체적인 유익을 훨씬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28

삶의 적용

강의 주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시간 속에서 모든 개별 신자에게 적용하십니다.

본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29-30).

강의 스크립트 28

한 과학자가 매년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와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이 자신의 연구실에만 남아 있다면 단순히 그런 치료법을 개발해 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가 일한 목적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성취는 치료법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대답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더욱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역은 구원을 받게 된 그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이 사역에 관련하여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성취는 구속의 적용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적용에 포함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는 다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신학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차지하는 위치를 탐구했습니다. 구속의 모든 유익이 바로 이 연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그분의 백성에게 적용하는 데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변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성경의 역사는 최종적이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신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감당하시는 사역의 일부입니다.

먼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오순절날 자신의 성령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사역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자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16:8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36:27에서 보듯 성령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성령은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며 그 영혼 안에서 성화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고린도후서3:18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유익의 출처가 성령이시며 또 이 성령께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인도하심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유익들과 구속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속의 적용은 소명과 중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유효적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자주 구분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단순히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신앙과 회개에 대한 근거로서 복음의 약속을 제시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 부르심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택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2:14에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소명 혹은 효과적인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효과적이고 구원적으로 복음을 각각의 영혼에 적용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63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시며 마음을 각성시키셔서 진리를 이해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택자들은 이를 통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제시되는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도록 설득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속에 어떤 때에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동시에 택자 안에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외적인 부르심을 듣고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이 부르심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소명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적이고 유효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신자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신적인 소환입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이신 작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가항력적이고 설득하는 능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중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중생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생과 중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시 태어난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중생은 종종 새로운 출생이나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활동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원리가 은혜 안에서 사람에게 심겨집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면서 똑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은 새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결과 거룩이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십니다.

알미니안주의와는 반대로, 중생은 믿음과 회개보다 선행합니다. 중생은 우리 안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연히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부패한 상태에 있으니 어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이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중생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거듭남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회심 혹은 믿음과 회개는 중생시에 심겨진 은혜로운 성향이 처음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믿음과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중생을 포함한 구속의 사역을 택자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신적인 시작자이며 재창조자이시지만 요한복음3:8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중생의 방식은 다소 신비롭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을 보게 하시

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디도서3:5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종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이 과정의 주제를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은 마귀가 부르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최악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생명을 얻고 살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칭의와 양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마틴 루터는 칭의를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로 설명합니다. 칭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며 그분에게 용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합니다. 소요리문답33문은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며 그 의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의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성경은 로마서3,4,5장과 같은 곳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전가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것으로 간주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인을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고 여기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거래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오직 믿음으로만 수납됩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표시해 줍니다. 칭의의 근거와 기초는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거나 혹은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또한 이 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개인의 믿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반면에, 칭의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칭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 혹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만약 믿음이 칭의의 기초라면 선한 행위가 우리의 칭의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칭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습니까? 내가 옳은 일을 했고 믿었고 바로 그 믿음이 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도 가져오거나 어떤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그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을 뿐입니다. 믿음이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뿐입니다.

만약, 칭의와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칭의란 믿음 더하기 행위를 하면 구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믿고 그 다음으로 우리 믿음에 더해진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만약 여러분이 수학적 공식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믿음 더하기 행위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구원 더하기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에서는 필연적으로 성화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에 있는 지시적 측면과 선언적 측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특히 바울의 글에서 선언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예로, 야고보서2:21은 지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생명력 넘치고 구원하는 믿음의 열매를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수반해야 합니다. 네델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바빙크는 “바울은 죽은 행위와 싸우고 있고 야고보는 죽은 믿음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치면, 우리가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남습니다. 한 편으로 여러분들은 죄인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식의 조각 중에 열매가 있고 그것을 하나로 조립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분은 최악된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

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책임을 담당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대속자가 되어 죽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그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과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와 의로운 분노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며 의로운 하나님을 달래고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교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과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의에 대한 무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교환의 두번째 절반은, 이 칭의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으로 간주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여겨진 그리스도의 의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받을만 하게 여기시고 또 실제로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교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놓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양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자교리는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만약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칭의와 마찬가지로 양자도 법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가 열납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반면에 양자는 우리가 아들과 딸들로 받아들여져서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8:14-17, 갈라디아서4:4-7 그리고 요한일서3:1,2를 살펴보세요. 칭의와 양자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이 양자는 모든 종류의 특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4:16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른 특권은 갈라디아서4장에 나오듯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십니다. 시편103:13,14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뼨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또 다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12:5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징계가 실제로 자신이 아버지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 곳에 살아서 한 집안의 식구가 아닌 자녀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의의 평화로운 열매와 우리의 기업을 생산하심으로 주님은 자신의 사랑과 훈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약속과 영원한 구원과 천국과 영광에 포함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8장과 갈라디아서4장에 나오듯 이 주님은 또 우리에게 양자의 영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언하실 것이라는 객관적인 약속을 주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자녀로서의 신뢰와 정서를 만들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함께 증언하신다는 사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서서 자신에게로 이끄시며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다시 구속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서 소외되고 끊어진 상태로 두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속에서 자신의 완전한 순종의 기록이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전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가족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또 하나의 유익은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소요리문답은 35문에서 도움이 되는 정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곧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행위인 칭의와 양자와는 달리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과정이며,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감당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는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거룩 가운데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8:29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른 관점, 곧 선행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15:1-8은 선행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포도나무 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열매가 없고 선한 행위가 없다면 뿌리가 없다는 말이고, 이는 회심도 구원신앙도 없다는 말입니다. 성화는 복음적 열매로 증거됩니다.

야고보서2장으로 돌아가면, 14-26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구원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다른 본문들이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2:12은 우리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선한 행위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자로 하여금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의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령의 사역과 지속적인 영향에서 직접적으로 옵니다. 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는 성경에 덧붙여진 첨가물에 비롯되고 오직 인간의 권위에 근거를 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무를 행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돋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행위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선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거나 그분의 용납하심을 강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빛을 만족시킬 수도 없으며 칭의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인격과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로가 덧씌워져서 하나님께 열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선행이 참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설령 거기에 많은 불완전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은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회개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의 몇 가지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유익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강해질 것입니다. 복음의 고백을 더 멋지게 장식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익을 통해서 형제들이 교화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대적의 입은 막혀버릴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선행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거룩함에 진보가 있음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는 큰 이야기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앞선 강의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형상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은 넓은 의미의 형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도덕적 존재이며 이성적인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좁은 의미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이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3:10, 에베소서4:24, 로마서8:29과 같은 곳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백성들과 그들의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드러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립니다. 마태복음5:16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룬 내용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한 연구는 구속의 적용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신자의 영화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강의에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시간 속에서 모든 개별 신자에게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강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서 주신 사명 곧 자신의 구속의 메시지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29

사명

강의 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를 불러서 복음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온 세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문: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

강의 스크립트 29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프로젝트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담은 계획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전략은 무엇인가? 이것은 집을 짓는 것에서 군사작전과 직장에서의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설명없이 천국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최종적인 의도와 자신의 교회가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야 할 내용을 주셨는데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구약성경은 이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접근방법에 있어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라들을 복음화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사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예배는 복음전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 땅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모든 개별 신자들에게 시간 속에서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소식이 반드시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주신 사명 곧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내라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구약성경이 이에 대해서 하는 말과 그것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의 구속계획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구속사역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2:7,8에는 성자에게 주시는 성부의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창세기9:24은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언약과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은 그 언약으로 나오며 미래에는 그 언약을 엄청나게 확장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12:3에서 하나님도 아브람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질 때 신명기 4:6-8을 보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빛이 되어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에게 비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들도 세상의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복음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67:2-4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60:3은,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7:14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강의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속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는 사실에 대한 다른 많은 예시가 구약성경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기에 아브라함의 택한 자손과 함께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이방나라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1:16에서 로마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으로 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전개해 나가시는 가운데 중요한 전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와서 보라”를 강조하고 있다면 신약성경은 “가서 말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아야 했습니다. 곧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배워야 했습니다. 멀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자신이 친히 보기 위해서 왔던 시바의 여왕의 경우가 한 예입니다. 몇몇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약에 들어왔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이 된 그 장소에 있는 살고 있던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룻 아니면 히위 족속이었던 우리야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복음에 대해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와서 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이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교회에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28:19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은 “가서 말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인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1:8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땅을 뒤덮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마태복음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련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러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조그맣고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온 땅을 뒤덮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룩에 대한 비유도 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반죽에 넣어서 전체 반죽과 빵에 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얼마되지 않는 다른 추종자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니면 오순절 이전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피조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16:18과 같이 자신의 교회에 약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은 이 모든 것이 가장 초기에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로마를 넘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거기에 이르기 전에 죽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서15:24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귄다 할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스페인) 보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능한 통치를 통해서 이 복음의 구상을 성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상명령 앞에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다시 마태복음28장으로 돌아가서 18-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11:15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천국에 대한 묘사는 그 자체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 곧 이 복음의 풍성한 결실에 대한 예시입니다.

성경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21:24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가 따라야 하는 교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복음명령은 참된 교회의 심장 근처에 있습니다. 교회는 해외선교를 통한 복음의 전파에 무관심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 영광스러운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우선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여 민족들이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성취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를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주제로 인도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은 신자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7:9,10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히 펼쳐진 모습과 제자가 된 민족들이 그분의 발등상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도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목적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적은 인간의 창조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4:11은,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4:23,24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계속 존재하고 그 진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다음의 두 가지는 단순히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국 기독교의 전체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

이다. 이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예배를 받으시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며 둘째로, 우리가 얻는 구원의 출처에 대한 지식이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삶의 다른 부분에서 따로 구분하여 떼어 두어야 합니다. 마치 안식일이 한 주일의 다른 날들과 구분되고 성찬이 다른 식사와 구분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 이는 항상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 왔습니다. 히브리서12:22-29과 같은 신약성경의 모임만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에도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의 목적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 예배가 구체적으로 수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지상명령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속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존 칼빈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자신들이 고안해낸 것들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것을 순결하고 신실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조건도 함께 주셨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하여 지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여러 강의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법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허황되게 상상하여 만들어 낸 그 어떤 인간적인 혁신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명하신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신명기12:32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1항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옳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상이나 거룩한 성경이 명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상상하고 고안했거나 사탄의 제안에 따라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의 행위들 속에는 일상적인 예배의 행위로서 성경읽기,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편찬양, 기도,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식의 시행이 포함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모은 모든 실가닥들은 함께 엮여져서 순결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우상숭배와 거짓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법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17:29에서 아테네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1:21-25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규정을 정하실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20장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믿음 혹은 예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교훈과 명령에서 이 양심이 자유하도록 하셨다” 교회는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주권적인 기관이 되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행위를 고안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듯 이 원리는 제2계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예배를 정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첫번째 예는, 우리가 앞 강의에서 살펴본 앳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레위기10:1-3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왕들도 이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습니다. 웃시야와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경건한 위정자들은 이 원리를 고수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요시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5:17-19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킬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예배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집의 성결함에 대한 거룩한 질투를 보이셨습니다. 신약성경의 남은 부분도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12:28-29

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자연적인 우상숭배에서 구하여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예배의 순결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래야 사람들을 한가지 형태의 우상숭배에서 데려다가 그것을 대체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 주신 사명은 이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가지고 민족들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는 구속의 좋은 소식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모든 찬양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이 사명이 어떻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속한 남자들과 여자 들 소년들과 소녀들을 인도하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불러서 복음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온 세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정점인 마지막 날과 그 이후에 대하여 드러내실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30

영광

강의 주제:

역사의 절정은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의 완성을 통해 확대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합니다.

본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22-23).

강의 스크립트 30

아마 여러분은 인공위성에서 지구의 표면을 내려다보는 사진을 봤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눈에 대륙과 국가들과 대양의 큰 사진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신학을 전체로 보았고 구속사라는 풍경이 가진 모습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는 큰 조각들 가운데 몇 가지를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경 전체에 드러나고 있고 그분은 시간 속에서 하나의 은혜언약을 통해서 하나의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의 구원 방법을 제공합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부분들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진 본성은 무엇일까요? 왜 육신의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불신자들의 정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까요? 최후의 심판은 어떤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신자의 구속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특별히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과 절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가 전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래에 대해서 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속사에서 있을 마지막 위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책이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있는 핵심적인 연결점을 한데 모아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진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책은 다니엘서에서 멈춘 것을 다시 연결해주고 있으며 사도 요한의 시대와 마지막 때를 연결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후의 날입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대단한 과학적 수단과 지적 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미래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고린도전서2:9-10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이 시대의 결론 지점인 마지막 때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또 긴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날 곧 그 너머는 지금 세상은 알 수 없는 더 이상은 날이 없는 마지막 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이어서 두 번째이자 최종적인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14:3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을 다시 한 번 확신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11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서신서에도 이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재림은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신약성경이 재림과 관련하여 먼저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말하는 것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요약하여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도행전1:11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돌아오실 것을 압니다. 또한 그분께서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도 압니다. 요한계시록2:20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게 오실 것입니다. 많은 성경본문에서 이를 말하지만 특히 요한계시록1:7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림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4:16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재림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재림 이후에 세 번째 재림이 있어서 그 사이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15:22-24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재림과 동시에 두 개의 대단한 사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구약성경은 미래의 육신적인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사두개인들의 오류에 대하여 이 진리를 변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넘쳐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린도전서15장입니다. 이 부활은 육신적인 몸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8:11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24:15에서 말하듯이 이 부활은 의로운자와 불의한자의 모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불신자는 정죄의 부활으로 신자는 영광의 부활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체 인격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 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이 없으면 그들의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소요리문답3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에 영광 가운데 일으킴을 받는 신자들은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방면 될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 기는 완전히 복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일어나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도 역시 영광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은 즉시 모든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귀와 영광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2:9-11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 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있는 많은 본문들이 모두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심판주 가 되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심판석 앞으로 부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4:1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 있 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합니 다. 모든 인류는 그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5:10은 이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 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 의 결과도 역시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불의 연못으로 던 져지고 모든 위로를 빼앗기며 끝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 아래서 몸과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의 마지막 상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임재 속에 있게 될 것입 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매주 누리는 안식일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안식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히 브리서4:9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이라는 이 단 어는 이를 둘러싼 구절에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헬라어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 면 안식일 준수를 의미합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혹은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가 됩니다. 이 사실은 은혜언약의 절정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들었던 언약의 약속이 요한계시록21:2,3에 나온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세요. “또 내 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잘 들어보세요. “하 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사실은 우리를 신자 에게 속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이 요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가요? 우리 시대를 살아 가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하늘에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즐거움을 최고 의 수준으로 만끽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로 보잘 것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는 자 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 람들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구 속받은 신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이며 그리스도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들은 이에 대하여 겸손 하게 참여합니다. 바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신학자들이 가장 황홀한 장면 혹은 하나님을 보는 복되고 행복한 순 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17:15에서 이를 노래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 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타락할 때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 은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17:24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 셴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을 직접 볼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17세기 잉글랜드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맨튼은, “우리는 어린양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혹은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조차도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기 19:25-27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모든 공간을 다 채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21:22,23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를 통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즐거움과 최대의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대적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19:1-7에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조금 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사실은 피조물은 영혼에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고 그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이 어린이들은 아마도 간절한 마음으로 장난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꿈을 꾸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마침내 장난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날에는 정말로 즐거웠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날도 계속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고 나면 기쁨은 조금씩 줄어들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면 그 장난감은 다른 장난감들과 같이 버려져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장난감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해당되는 이것은 모든 어른들에게도 역시 해당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갈망한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16:11과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로 인해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복의 비전(the beatific vision of God) 이 성도들의 궁극적 행복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매우 제한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을 결코 다 소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볼 때마다 항상 새롭고 진정으로 신선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보는 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점점 증가됨과 동시에 신자의 능력도 함께 영원토록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에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들이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물을 한 잔 가진 다음에 그 물을 여러분의 입으로 마셔서 물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저 넓디 넓은 대양으로 나가서 그 대양에 뛰어드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그 분 자신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신자들에게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은 짐을 나서면서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지 아니면 왼쪽으로 갈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차로를 만날 때마

다 그 목적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직진해서 가야할까? 아니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 여행의 종착지를 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구속계획에도 해당됩니다. 요한일서3:2,3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의 목적지에 따라 그가 매일 하는 행동이 결정됩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11:24-26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므로 지금 순례의 길을 걷어가는 신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히12:2)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골로새서3:2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막에서 나올 때 빛났던 모세의 얼굴과 같이 사도행전7장에서 스테반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 모습을 구경하던 이들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정의 (definition)이시며 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신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변화되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미 고린도후서3:18에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공하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 분을 봅니다.

천국에 대한 이런 지식은 고난에 대한 신자의 관점마저도 바꿉니다. 로마서8:18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가올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세상의 고난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비가 오는 것쯤은 신경쓰지 않는다” 고린도후서4:17,18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를 분명하게 보는 여행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보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믿는 것과 보는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보도록 합니다. 신자들은 이 영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역사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첫 번째 서론적 강의에서, 우리는 열왕기상10장에 나오는 솔로몬왕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 있었던 인터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솔로몬과 그의 왕국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연결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은 바로 이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자신이 보았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그의 왕국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부유함과 여호와와 그의 집을 생각했을 때 성경은 그녀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왕은 “내가 시바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은 것은 이것들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신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신자가 영광 중에 천국에 도착해서 솔로몬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내 숨을 멎게 합니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 넘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갈망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지금 성경신학에 대한 이번 과정에 포함된 모든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떠나는 여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속사를 탐구했고 이 중요한 주제의 작은 부분만을 선택하여 보았을 뿐입니다. 이번 과정이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이 이 과정의 목적은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의들은 여행을 나서는 집의 문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더 보아야 하고, 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큰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 아래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가져다주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듯이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에 올 것입니다.